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6-04
협동보고서 2009-01-4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산업연구원, 한신대학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6-04
협동연구 2009-01-4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3차년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장미혜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기획
가격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27-2 93330

ISBN 978-89-8187-631-9 93330(전4권)

발간사

지난 2008년 말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국들은 다양한 위기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신속하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경제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크게 염려했던 것은 불과 십여년 전에 경험한 경제위기의 기억 때문이었다.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실업과 빈곤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큰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지난 수년간 그러한 비용을 지칭하는 함축적 표현이 바로 양극화였다. 비록 그 용어의 모호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동일한 현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위기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중산층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격차 확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최선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협동연구 보고서 『경제·사회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은 이 문제를 천착한 많은 연구기관의 고민의 산물이다. 전체 3년 동안의 협동연구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 연구자들은 산업, 기업, 고용, 소득, 교육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진행되는 격차 확대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최종연도인 이번 3년차 연구에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자본의 격차 확대라는 새로운 영

역으로 분석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협동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과 각 기관별 연구책임을 맡은 산업연구원의 주현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미혜 연구위원, 그리고 한신대학교의 전병유 교수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지난 1, 2차년도에 참여하여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도 다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과제에 참여했던 많은 연구자들의 노고는 우리 사회가 더욱 조화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실 우리 사회의 취약부문과 계층을 강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양극화 대책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더욱 깊은 통찰력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이란 관점에서 다양한 갈등에 주목하고 그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런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협동연구에 모아졌던 연구진들의 관심과 역량이 향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모색하는 작업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09-26-01 |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총괄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09-26-02 | 산업양극화의 이해와 정책과제 | 산업연구원 |
| 09-26-03 |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교육정책의 전략과 과제 | 한신대학교 |
| 09-26-04 |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참여연구진

|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연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연구위원(총괄책임자) | 노대명 연구위원 김태완 부연구위원 이소정 부연구위원 원 일 연구원 박은영 연구원 |
| | 산업연구원 | 주 현 선임연구위원 | 장재홍 연구위원 김영수 연구위원 |
| 협력연구 기관 | 한신대학교 | 전병유 교수 | 은수미 연구위원 이병희 연구위원 (이상 한국노동연구원) 이일영 교수 정건화 교수 (이상 한신대)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미혜 연구위원 | 민현주 연구위원 이택면 연구위원 (이상 여성정책연구원) 염유식 교수(연세대) |

| | |
|--|-----------|
| Abstract | 1 |
| 요약 | 5 |
| 제1장 서론(장미혜) | 19 |
| 제1절 연구 목적 | 19 |
| 제2절 한국사회의 양극화 논쟁 | 25 |
| 제3절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 32 |
| 제4절 양극화의 재생산기제로서의 사회자본 | 43 |
| 제2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1: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염유식) .. | 55 |
| 제1절 청소년의 사회자본 | 55 |
| 제2절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 측정: 요인분석 | 56 |
| 제3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자본의 양과 그 변화 .. | 60 |
| 제4절 사회자본 분포의 불균등 정도: 로렌츠 커브와 지니계수 | 76 |
| 제5절 고정 효과 모형을 통한 사회자본의 효과 측정 | 82 |
|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87 |
| 제7절 소결 | 87 |
| 제3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2: 한국사회의 집단별 사회자본(이택면) .. | 93 |
| 제1절 문제제기 | 93 |
|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94 |
| 제3절 연구모형의 설정 | 97 |
| 제4절 자료와 변수 | 97 |
| 제5절 분석 결과 | 102 |
|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106 |
| 제7절 소결 | 107 |

제4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3: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의

| | |
|---|-----|
| 지역효과(이택면) | 111 |
| 제1절 문제제기 | 111 |
| 제2절 연구방법: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의 적용 | 112 |
|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 115 |
| 제4절 연구모형의 설정 | 117 |
| 제5절 자료와 변수 | 118 |
| 제6절 분석 결과: 사회자본과 지역효과 | 121 |
| 제7절 정책적 시사점 | 125 |
| 제8절 소결 | 127 |

제5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4: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이 취업과

| | |
|------------------------------|-----|
| 빈곤에 미치는 효과(민현주) | 131 |
| 제1절 사회적 연결망과 노동시장 성과 | 131 |
| 제2절 자료 및 방법론 | 136 |
| 제3절 분석 | 138 |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53 |
| 제5절 소결 | 154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장미혜)

| | |
|------------------------------------|-----|
| 제1절 한국사회 사회자본 불균등 분포의 실태 | 159 |
| 제2절 불균등한 사회자본과 양극화의 재생산 | 167 |
| 제3절 사회자본과 양극화 재생산에 대한 정책적 대안 | 173 |

참고문헌

부록

185

표 목차

| | |
|---|----|
| 〈표 1-1〉 주요국의 지니계수의 불평등 정도 | 31 |
| 〈표 1-2〉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점 | 33 |
| 〈표 2-1〉 청소년 응답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57 |
| 〈표 2-2〉 청소년 응답자와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57 |
| 〈표 2-3〉 청소년 응답자와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58 |
| 〈표 2-4〉 청소년 응답자와 매우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58 |
| 〈표 2-5〉 청소년 응답자가 친한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 58 |
| 〈표 2-6〉 청소년 응답자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59 |
| 〈표 2-7〉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60 |
| 〈표 2-8〉 부모의 학력 분포 | 60 |
| 〈표 2-9〉 부모의 교육 수준과 정서적 유대 | 61 |
| 〈표 2-10〉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감독의 충실성 | 62 |
| 〈표 2-11〉 부모의 교육 수준과 학대 | 63 |
| 〈표 2-12〉 부모의 교육 수준과 교사와의 양호한 관계 | 64 |
| 〈표 2-13〉 부모의 교육 수준과 학교친구들과의 어울림 | 65 |
| 〈표 2-14〉 부모의 교육 수준과 친한 친구 수 | 66 |
| 〈표 2-15〉 부모의 교육 수준과 친한 친구와의 관계 | 67 |
| 〈표 2-16〉 사등분위에 의한 가구소득의 분포 | 68 |
| 〈표 2-17〉 가구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 68 |
| 〈표 2-18〉 가구소득과 부모의 충실한 자녀 감독 | 69 |
| 〈표 2-19〉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대 | 70 |
| 〈표 2-20〉 가구소득과 교사와의 양호한 관계 | 71 |
| 〈표 2-21〉 가구소득과 학교 친구들과의 어울림 | 72 |
| 〈표 2-22〉 가구소득과 친한 친구 수 | 73 |

| | |
|--|-----|
| <표 2-23> 가구소득과 친한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 74 |
| <표 2-24> 변수들 사이의 관계 | 75 |
| <표 2-25> 지니계수 | 81 |
| <표 2-26> 고정 효과 모형: 성적 | 83 |
| <표 2-27> 고정 효과 모형: 음주 횟수 | 84 |
| <표 2-28> 고정 효과 모형: 흡연 횟수 | 85 |
| <표 2-29> 고정 효과 모형: 외로움 | 86 |
| <표 3-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와 산출 방식(응답자 j) | 100 |
| <표 3-2> 독립변수와 기술통계 | 102 |
| <표 3-3> 사회자본 크기와 연령, 학력 간 상관관계(Pearson's r) .. | 103 |
| <표 3-4> 사회자본 크기의 집단간 차이 검정 | 104 |
| <표 3-5> 사회자본 크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05 |
| <표 4-1> 1층 모형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 119 |
| <표 4-2> 103개 시군구별 개인 응답자 분포(발체) | 119 |
| <표 4-3> 2층 모형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 120 |
| <표 4-4> 다층모형 분석결과 | 124 |
| <표 5-1> 가구소득 | 139 |
| <표 5-2> 성별, 연결망 유형별 가구소득 | 140 |
| <표 5-3> 가구소득에 따른 연결망 유형 | 141 |
| <표 5-4> 성별, 연결망 유형별 산업 및 직업 내 여성 비율 | 143 |
| <표 5-5> 연결망 유형별 종일제 취업비율 | 144 |
| <표 5-6> 연결망 유형별 정규직 취업비율 | 144 |
| <표 5-7> 연결망 유형별 월평균 임금 | 145 |
| <표 5-8> 기술적 통계 | 148 |
| <표 5-9> 연결망 유형 및 가구소득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분석 .. | 152 |

| | |
|--------------------------------|-----|
| 〈부표 1〉 가구소득 | 185 |
| 〈부표 2〉 4분위 가구소득 | 186 |
| 〈부표 3〉 가구소득에 따른 직업탐색방법 1 | 187 |
| 〈부표 4〉 가구소득에 따른 직업탐색방법 2 | 188 |
| 〈부표 5〉 가구소득에 따른 직업탐색방법 3 | 189 |
| 〈부표 6〉 월급여(중위임금) | 190 |
| 〈부표 7〉 주된 일자리 여부 | 191 |
| 〈부표 8〉 노동조합 유무 | 192 |
| 〈부표 9〉 전체 직업 수 | 193 |
| 〈부표 10〉 산업 및 직업 여성 비율 | 194 |
| 〈부표 11〉 직업 | 195 |
| 〈부표 12〉 산업 | 197 |
| 〈부표 13〉 그만둔 이유 | 199 |
| 〈부표 14〉 자발적 퇴직 여부 | 201 |
| 〈부표 15〉 근속기간 | 202 |
| 〈부표 16〉 고용 형태 | 203 |
| 〈부표 17〉 근로형태 | 204 |
| 〈부표 18〉 종사상 지위 | 205 |
| 〈부표 19〉 회사 규모 | 206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세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내부의 관계 | 39 |
| [그림 1-2] 사회자본에 의한 양극화의 재생산 매커니즘 | 44 |
| [그림 1-3] 사회자본의 양극화 재생산 매커니즘 1 | 47 |
| [그림 1-4] 사회자본의 양극화 재생산 매커니즘 2 | 51 |

| | | |
|----------|-------------------------------|-----|
| [그림 2-1] | 부모사회자본1(정서적 유대)의 로렌츠 커브 | 77 |
| [그림 2-2] | 부모사회자본2(감독)의 로렌츠커브 | 77 |
| [그림 2-3] | 부모사회자본3(학대)의 로렌츠커브 | 78 |
| [그림 2-4] | 교사관계의 로렌츠커브 | 78 |
| [그림 2-5] | 친한친구관계의 로렌츠커브 | 79 |
| [그림 2-6] | 학교친구관계의 로렌츠커브 | 79 |
| [그림 2-7] | 친한친구수의 로렌츠커브 | 80 |
| [그림 5-1] | 가구소득에 따른 구직기간 | 142 |
| [그림 6-1] |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통한 양극화의 재생산 | 169 |
| [그림 6-2] |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의 재생산 | 171 |



Abstract

Polarization and Social Capital in Korea Society

The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is an index of social inequality and at the same time can be a major cause that produces new inequality in contemporary socie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circular process in which economics polarization produce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between social classes and leads to the inequality between the social classes. For this purpose, we has examined how social capital is distributed and is stratified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s and occupations given that social capital, such as economic and cultural capital largely influences individuals' life chances and resources.

As previous research has argued, the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contributes to sustaining or worsening existing social inequality because social capit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the quality of individuals' life and scarce resources according to its quantity and features. Thus we, first, investigated how social capital in Korea is unequally distributed by sex, income, educational attainments. Further,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ocial capital differed between social classes. Social capital may offer new opportunities for some social minorities while it can serve to preserving the existing social inequality.

Second, we studi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ocial capital as a cause and consequence in three areas, such as educational attainments, the labor market, and local communities. The social capital of adolescent is unequally distributed and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largely influences the level of social capital among adolescents. Further, unequal social capital among adolescent influences their educational attainments, such as academic achievement(e.g., GPA). As parents have strong emotional attachment to and closely monitor their children, in particular,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becomes higher. To make the issue clearer,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and family income have a great impact o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In sum, parents' economic and social status determines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 being mediated by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ocial capital among adolescent. Further, the social capital accumulat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plays a positive role of controlling juvenile delinquency. This study investigated drinking and smoking among adolescent and found that strong solidarity between parents and their teens decreases the risk of smoking and drinking among teens.

Korea has been experiencing severe social and economic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which the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has already gone through. The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has largely decreased job security and at the same time led to the great increase of a number of low paying jobs in the service sector. The change in the job structure led to the polarization of jobs which presents professional and high paying jobs and unstable low paying jobs. This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necessarily causes

various social problems including working poor and social conflict.

While paying attention to cause and consequences of the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we investigated the role of social capital(or social network) in getting a job. Previous research has been interested in the role of social network as a method of searching a job in analyzing the quality of the jobs and argued that social network as social capital decreased the duration of searching jobs and increased the quality of jobs. Further, researches concerning the role of social network in search jobs have extended its argument to that social network tend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enure and achievement on the job since workers tend to enter the job with rich information on the job.

Another argument on the job search through social network and labor market achievement concerns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ocial capital(or social network) and further in the structure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se arguments, we has investigated the role of social network, formal and informal social network, in getting a job and suggested that workers who took advantage of informal network to get a job tended to earn more. This finding suggested that the policy should pay atten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jobs through formal networks such as public centers for job training given that most jobs through formal networks are provided by public resources and training center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inally, we examined the effects of local community on social capital to analyzed whether policy intervention can decrease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among local communities. By analyzing

the amount and the way of public expenditure and the support for cultural facilities, we fin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existing policy to narrow the gap in social capital among local communities. The findings highlight gender differences in the size of social capital: men are more likely to have social capital than women. However, we failed to find the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among religious groups. Further, this study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al policy may not be able to narrow the gap in social capital among individuals. Unexpectedly, the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 and in cultural facilities rather widened the gap in social capital by local communities. Thus, it is necessary to redistribute the income and decrease the inequality between social classes rather than directly investing in the facilities in the community level.

요약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분포는 자체로 불평등의 지표이자,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 양극화가 계층에 따른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집단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과정에 대해서 보여 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자본이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등과 같이 개인의 삶의 기회와 자원 접근에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사회자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이 학력, 직업에 따라 어떻게 층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와 같이 불평등한 사회자본의 분포 양상은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그 크기와 특성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희소 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이 한국사회에서는 성, 소득, 학력 등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지를 분석했다. 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갖는 사회자본의 양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그것보다 크기가 큰지, 성별, 소득 계층별, 학력별로 사회자본의 크기와 특성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사회자본은 성별, 소득별 계층별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구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자본은 부족한 여타 자본의 결핍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자본의 불평등 분배는 단순히 불평등 연구에 있어서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입안자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사회자본의 분포 양상을 보다 더 고르게 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 공공정책이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자본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은 청소년들 개인의 교육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청소년들의 학교성적에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모가 자녀와 감정적인 유대를 충실히 가질수록,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수록 자녀의 성적은 높았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자녀와의 관계의 많은 부분을 결정했었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라는 매개항을 통해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자녀의 성적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자본은 일탈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의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강한 연대를 갖고 있고 통제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음주와 흡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을 통한 계층의 재생산은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 대안을 내 놓고 있다. 사교육비가 늘어날수록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통한 계층의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의

재생산을 밝혀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통한 재생산이다. 부모의 계층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양질의 사회자본을 갖게 된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 내재한 양질의 사회자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학교성적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일탈행동은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계층의 재생산에 있어서 성적의 효과는 많이 강조되어 온 바 있다. 한국사회와 같이 입시가 장래의 계층을 상당히 결정하는 사회에서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은 계층을 절대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적만이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일탈행동도 계층 재생산의 중요한 기제로 일컬어지고 있다.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contact theory)과 같은 이론이 제시하는 바도, 일탈적인 가치관에 많이 노출되었던 청소년은 일탈행동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일탈행동의 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소년원에 가거나 장래에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이 일탈행동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일탈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계층이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져 경제양극화를 재생산하는 기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일탈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심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에는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청소년기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자녀가 선생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사회자본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전체적인 방향과 달랐던 것은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이러한 일탈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친구들의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일탈행동이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타고 퍼져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탈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청소년은 그에 해당하는 일탈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연결망의 중심에 있는 학생일수록 일탈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교사들은 반에서 교우관계가 좋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학생일 경우, 이 학생의 행동이 연결망을 통해서 반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고 지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세대의 재정 자본이나 사회자본이 대를 물려 세습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책에 가지는 함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된 사회자본은 학교성적이나 일탈행동 등 청소년의 인적 자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 부모세대에 불균등하게 분포된 인적 자본이나 사회자본이 자녀들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것이 자녀들의 인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확인되었다.

향후의 정책방향은 사회 각 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의 사회자본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연대가 약해져 있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졌으나, 사실 1차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 개입의 여지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가족 내의 사회자본을 확충시키는 방안의 직접적인 정책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내에서 청소년들의 상담창구를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육현

장의 상담창구는 성폭행이나 폭력피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찾아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창구의 기능과 접근성을 늘리는 것이 가족 내의 사회자본이 빈약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격차를 줄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생님들과의 관계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일수록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고소득층 자녀들에 비해서 약하다고 진단되고 있다. 교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여 문제가 되는 학생들과 꾸준히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사 수의 확충이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교사 수가 확보되더라도 교사의 의식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학생들의 일탈행동은 학생들 사이의 연결망을 통해서 확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많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으며, 교우관계가 좋은 몇몇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일탈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자본이 결정되고, 이 사회자본이 성적과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증명해준다.

나.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자본

한국은 현재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것은 사실 서구 선진국이 이미 기존에 밟았던 과정이기도 하다. 이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유연성의 확대로 인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지고, 동시에 저임금 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는 근로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양분화시켰으며, 전문직·고임금 일자리가 아니면 불안정·단순저임

금 일자리 구조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을 비롯한 여러 층위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취업시장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자본을 연구하면서 구직과 사회 연결망에 많이 주목해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일반적 합의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결망은 구직기간의 단축과 아울러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가 사전에 일자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능력 및 성향을 일자리의 특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직 이후의 업무성과 및 근속기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선행 연구에서 연결망을 통한 일자리 탐색 및 노동시장 성과를 연구하는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사회자본의 활용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서구를 비롯한 연결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연결망의 크기 및 유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이용하는 연결망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한국에 적용하여, 구직자들이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 내의 연결망 등을 이용하여 적응을 돕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직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성취가 낮은 이유와 대응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극화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식적 연결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공식적 연결망을 통한 일자리 획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구직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결망의 활용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만이 정책 담당자가 향후 불안정, 하층 계급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경제위기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추이 속에서, 일자리 탐색에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으로 대별되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 연결망의 구성 능력 및 특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회 연결망이, 구직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상반된 효과에 대한 논쟁은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팽팽히 대립되는 두 입장을 두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실한 답을 내리고자 한다. 만약 개인과 공동체에 이렇게 중요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사회자본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어 분포한다면, 사회자본은 기존의 계층 간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고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사회자본이 기존 자원의 불평등 분포와는 반대되는 양상으로 분포한다면 기존의 계층 간 불평등을 시정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노동시장에서 특히 남성의 경우 공식적인 연결망 경로를 이용한 사람들보다 비공식적인 지인 연결망을 이용하여 입직한 사람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이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도 사회자본에 의한 양극화의 재생산 매커니즘의 하나로 해석이 가능하다. 많은 연구들이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구직을 하였을 경우 임금수준이나 일자리의 질이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만족스럽다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구직과 구인을 할 경우, 중간의 매개인을 통해 사전적인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경우, 매개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연결망으로 구직하였을 경우에는 얻기 힘든 질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 실질적인 연봉의 정도, 업무실의 분위기, 동료들의 성향, 관리자의 성향, 장래의 승진 가능성과 같이 직업생활에 중요한 정보들을 매개자를 통해서 미리 입수할 수 있다. 고용인의 입장에서도 모집하고자 하는 직급의 특성, 원하는 특성

등을 매개인에게 미리 전달할 수 있고, 지원자의 개인적인 성향, 지원자의 요구 등을 미리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한 구직의 장점이다.

가구소득이 양분화되는 경제적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아울러 화이트칼라 사무직 및 숙련기능직 일자리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도 양극화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거나 경제적 지위가 불안한 계층일수록 저임금 서비스직, 비정규 및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자본의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양질의 사회자본을 확보하며, 구직기간을 가진 경우 이러한 사회자본이 일자리의 질과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수혜가 반드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연결망을 통한 구직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어서 오히려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전체의 사회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 및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계층에 속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일정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임금 수준 등을 포함한 근로 조건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들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일자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구직활동 및 일자리에 맞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

지원기관을 통하여 희망일자리에 적합한 기술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자리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진입 가능한 일자리와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직자들이 확보하는 기술의 유형과 수준이 진입 가능한 일자리와의 적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일자리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실업상태에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재직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일자리 연계지원도 필요하다.

다.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지역효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과연 지역 수준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자본의 차등적 분포를 시정하는데 더 효과적일지를 알아봄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공공 지출의 규모나 배분 방식, 문화시설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자본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현정책의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정책 실행의 큰 방향을 그리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사회자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할 때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힐 수 있다.

연구결과 연령과 성별로도 사회자본의 크기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자본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컸다. 한편 종교집단 간에는 사회자본 크기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값의 단순비교에서는 종교가 없는 집단의 사회자본 크기가 가장 작고, 개신교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이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

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사회자본 크기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 집단과 비임금근로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자본의 크기는 거주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두 집단과 지방도 거주자 집단을 비교하면 후자의 사회자본 크기가 유의미하게 컸다. 이로써 우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이나 기혼유배우자보다는 기혼무배우자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취업자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방도 거주자들보다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자본의 취업여부 간 격차에 대한 지역변수의 효과를 보면, 지역내총생산(유의수준 5%), 문화시설 수(유의수준 1%), 범죄발생(유의수준 10%), 공공 지출(유의수준 10%) 등이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를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나 문화시설 수, 범죄발생, 지역내총생산은 모두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의 사회자본 격차를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역 소득 수준의 증가는 개인의 소득 간 사회자본 격차를 미미하지만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소득 간 격차를 더 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개인의 평균적인 사회자본의 규모를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개입으로 확충시키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역내 총생산을 증대시키거나 사업체를 유지하여 고용을 유발시키거나 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범죄발생을 억제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지역거주민의 평균적 사회자본 규모의 수준을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개인의 사회자본의 평균적 크기는 정책수단을 통한 공공의 개입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사례를 실제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정책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있어서 간접적인 정책이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내의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유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자본을 확충하고, 계층 간 사회자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activity)들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민참여 활동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interactive) 활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마련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알게 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유도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재정 지출의 증대와 문화시설의 확충은 사회자본 크기의 격차를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지출의 확대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사회자본 격차를 증폭시킨다. 문화시설의 확충은 취업자-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를 더 벌려놓는다. 이는 현행 공공지출 방식이나 문화시설 지원 방식이 낡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공공지출의 규모나 배분 방식, 문화시설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자본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재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문화시설의 확충은 여러 사회자본 격차 중에서 학력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문화시설의 증가는 학력에 의한 사회자본 크기의 증가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자본이 학력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메커니즘에 의해 문화시설 수가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구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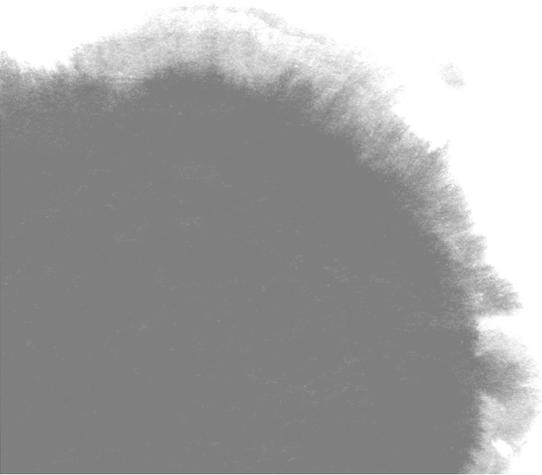
재정 지출의 불평등 심화적 결과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재정지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소득 간 격차와 취업/비취업자 간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은 재정지출이 고소득자의 사회자본 축적을 더 유리하게 하고 취

업자의 사회자본 축적을 더 유리하게 하여 기존의 소득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간접적(혹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지출의 이런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재정투입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재정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개발비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사회보장비는 단순 이전 지출로서 투자적 성격의 경비와는 거리가 멀다. 재정 지출 중에서 투자적 지출이 커져야 성장과 고용을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복지 수혜자로서의 수동적 위치에서 취업을 통한 능동적 자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확충되고 그것은 다시 취업기회와 경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촉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사회개발비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경상적 경비인 사회보장비 지출보다는 교육문화비, 지역사회개발비 등 투자적 성격의 경비를 더욱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더욱 늘림으로써 인적자본 개발 등 투자적 성격의 사업에 할애할 수 있는 지방정부 재량 재원의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경제적 양극화가 계층에 따른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집단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분포는 자체로 불평등의 지표이자,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미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곧 사회자본의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을 보다 심도있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은 아직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자본의 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정책 및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각도로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본 연구는 한국 사회자본 연구의 밑거름이 될과 동시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Coleman, 1988; Putnam, 1993, Lin 2001) 사회자본과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보면, 양극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하위집단에 속한 사람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신뢰의 부족은 곧 구성원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망이 형성되는 데 장애가 된

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이러한 자원의 부족은 타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양극화된 사회에서 상층계급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속한 연결망에서 지도적인 위치나 행정적인 위치를 담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연결망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다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자본 뿐 아니라 인적자본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다른 행위자들보다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최근에 널리 나타나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동일한 주거 환경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일수록 주민 서로가 동질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연결망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회자본은 그 효과가 어느 한 분야에 집중 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펼쳐 있고 또 그것 자체가 불평등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분포에 대한 연구만큼 그 불평등한 분포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이점을 유념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별, 노동시장에 따른 사회자본의 분포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더불어 사회자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등과 같이 개인의 삶의 기회와 자원 접근에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사회자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이 학력, 직업에 따라 어떻게 증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의 분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상대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청소년-학교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균등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좀 더 하층의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청소년기의 사회자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자녀인 청소년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본으로 직접 전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 불평등은 본인의 사회자본 불평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부모를 통한 불평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부모의 소득, 학력이나 직업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자본 분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궁극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의 불평등한 사회자본의 분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불평등한 경제적·사회적 자본은 그 영향이 축적되어 장기적인 사회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까닭에 이러한 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있는 사회자본이 과연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불평등한 사회자본의 분포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청소년의 비행이나 성적, 외로움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함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껏 청소년 비행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에 입각한 연구보다는 청소년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한 결손 가정이나 개인적 문제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청소년기의 사회자본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한국 청소년-학교사이의 사회자본의 분포와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사회자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지난 경제위기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추이 속에서, 일자리 탐색에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으로 대별되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 연결망의 구성 능력 및 특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회 연결망이, 구직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와 같

이 불평등한 사회자본의 분포 양상은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그 크기와 특성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희소 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이 한국사회에서는 성, 소득, 학력 등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갖는 사회자본의 양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그것보다 크기가 큰지, 성별, 소득 계층별, 학력별로 사회자본의 크기와 특성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사회자본은 성별, 소득별 계층별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구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자본은 부족한 여타 자본의 결핍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상반된 효과에 대한 논쟁은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팽팽히 대립되는 두 입장을 두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실한 답을 내리고자 한다. 만약 개인과 공동체에 이렇게 중요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사회자본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어 분포한다면, 사회자본은 기존의 계층 간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고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사회자본이 기존 자원의 불평등 분포와는 반대되는 양상으로 분포한다면 기존의 계층 간 불평등을 시정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불평등 분배는 단순히 불평등 연구에 있어서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입안자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답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사회자본의 분포 양상을 보다 더 고르게 하여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 공공정책이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특이하게도 사회자본은 개

인에게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출현적 속성이다. 따라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개인의 특성(학력, 소득, 노동시장 지위, 등)을 변화시키려고 의도한 정책적 개입만으로는 사회자본의 불균등 분포가 완화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자본의 그 정의대로 개인이 속해있는 더 큰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개인의 사회자본 크기에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회자본에 대한 지역효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과연 지역 수준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자본의 차등적 분포를 시정하는데 더 효과적일지를 알아봄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가령, 지역효과와 사회자본의 관계리는 화두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 질문 중 하나는 재정 지출의 증대와 문화시설의 확충이 사회자본 크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행 공공 지출 방식이나 문화시설 지원 방식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분석 결과, 재정 지출의 효과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공공 지출의 규모나 배분 방식, 문화시설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자본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현정책의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정책 실행의 큰 방향을 그리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사회자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할 때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현재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것은 사실 서구 선진국이 이미 기존에 밟았던 과정이기도 하다. 이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의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지고, 동시에 저임금 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는 근로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양분화시켰으며, 전문직·고임금 일자리가 아니면 불안정·단순·저임

금 일자리 구조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을 비롯한 여러 층위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취업시장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사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자본을 연구하면서 구직과 사회 연결망에 많이 주목해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일반적 합의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결망은 구직기간의 단축과 아울러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가 사전에 일자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능력 및 성향을 일자리의 특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직 이후의 업무성과 및 근속기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선행 연구에서 연결망을 통한 일자리 탐색 및 노동시장 성과를 연구하는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사회자본의 활용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서구를 비롯한 연결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연결망의 크기 및 유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이용하는 연결망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한국에 적용하여, 구직자들이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 내의 연결망 등을 이용하여 적응을 돕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구직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성취가 낮은 이유와 대응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극화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식적 연결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공식적 연결망을 통한 일자리 획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구직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결망의 활용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만이 정책 담당자가 향후 불안정, 하층 계급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한국사회의 양극화 논쟁

1. 양극화의 정의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절대적 빈곤층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기업 구조조정과 지구화와 인구의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소득집단 간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강신욱, 2008b).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증대하고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인구비중과 소득점유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강신욱, 2008a). 경제적 양극화는 한국사회 전반의 중산층의 쇠퇴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보는 시각은 경제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9; KDI, 2006). 실제로 1980년대에는 높은 경제성장세 속에서 실질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9). 그러나 소득뿐 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양극화란 단순히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자산분포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가치관의 대립, 생활양식의 분화, 중산층의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중산층에 대한 주관적 계층 소속의식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미혜, 2008).

이처럼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양극화를 정의할 때 양극화의 개념에 첫 번째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양극화이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중간층이 줄어들고 빈곤층과 부유층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취약계층¹⁾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빈곤층

1) 이때 취약계층이란 소득분포에서 하위 분위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자영업자(강신욱, 2008b),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밑에 위치하는 근로빈곤층(노대명,

이 빠르게 확대되며, 소득 수준별 집단들 내에서 경제적 동질화가 이루어진다(신광영, 2008).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기업, 산업, 소득, 고용 등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사회집단간의 양극화로 이어진다(김호기, 2008). 그 결과 소득 수준의 분절로 인한 집단들 내부에서 소비, 교육 등의 패턴의 동일화와 집단들 간의 위화감의 증폭, 건강 불평등(신호성, 2008),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의 증가로 이어진다(현영진, 2008). 이와 더불어 투표나 집합행동 그리고 계급의식 등의 정치적 행위들도 집단들 사이의 격차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양극화가 수반된다.

양극화를 소득규모별 인구분포의 형태로 기술하자면 고소득층과 빈곤층 사이에 위치한 중산층의 감소로 인하여 분포가 모래시계 모양이 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이러한 중산층의 감소이다. 중산층의 감소는 다수의 중산층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다(신광영, 2008). 중산층의 감소는 인구학적 분포에서 뿐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강신욱, 2008b).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란 지나친 쏠림이 없으면서 사회통합이 잘 된 사회를 지칭한다(이재열, 2008). 사회적으로 중산층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여 빈곤층의 박탈감을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을 억제하고 사회적 타협의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과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이재열, 2008).

중산층의 쇠퇴를 가져온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들이 지목된다.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볼 때, 세계화의 충격과 이에 따른 사회

2008) 등을 지칭한다.

양극화의 강화가 대외적 요인이라면, 이러한 충격과 강화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처 역량은 대내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의 충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쇠퇴양상이 나라마다 상이한 것은 대내적 대처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에서의 중산층의 쇠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제도적인 충격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대기업과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격차를 크게 만들었다. 이런 산업 및 기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중산층의 핵심을 이루었던 화이트칼라의 분화가 진행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김호기, 2008). 이렇듯 중산층의 쇠퇴라고 하는 사회계층의 변화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2. 양극화의 실태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서 진행된다. 이러한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는 세계화, 신기술의 도입,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경제체제의 개방화와 IT 기술의 등장으로 생산체제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탈산업화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윤윤규, 2008). 외환위기 이후 기업수준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면서 조기퇴직이 정착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신광영, 2008).

기업조직 내의 변화는 어떻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가? 첫 번째는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서 기업의 인력감축이 나타나고 있다(신광영, 2008). 대체가능한 노동은 실직하거나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반면, 대체가능하지 않은 노동의 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 축소와 직업 간 소득 격차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효과 이외에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의 고용

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의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가 임시직, 시간제, 파견근로, 계약직, 용역 등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고용불안뿐 아니라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쉽사리 연결될 수 있는 현상이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주와 가족 종사자, 상용직 임금 근로자가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 임금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 실업자들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자영업 종사자가 1995년 19.8%에서 2000년 20.8%로 증가하였다. 특히, 임금근로자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상용직 임금 근로자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 6.5% 줄어들었던 반면, 비정규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은 6.5% 늘어났다.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은 1993년 26.7%였다가 1998년 32.9%로, 2004년 40%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일용직도 1993년 14.4%였다가 1998년 18%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14.7%를 나타낸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했을 때, 2004년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54.7%에 달한다(신광영, 2008). 한국에서 소득불평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업 내부의 산업부문간 격차 뿐 아니라 산업 내부적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이질성이 강화되는 추세로 이어진다(이성균, 김영미, 2007).

3. 양극화 추세의 국제 비교

우리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중산층의 양극화란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현상인가, 아니면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경과하는, 혹은 유사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거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가(장미혜, 2008)? 기존의 경제학적 연구들에서는 중산층의 양극화가 외환위 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기변동적 요인보다는 추세적·구조적 성격이 강하므로 경기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KDI, 2006:22).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중산층의 양극화를 지나치게 한국적인 현상으로 국한시켜 보고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고유한 상황이 중산층의 양극화 현상을 촉발시킨 기폭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전 지구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중산층을 바라볼 때는 다른 시대나 국가의 상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장미혜, 2008).

실제로 양극화의 추세는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일찍이 쿠즈네츠(S. Kuznets)는 경제발전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나타낸 역 U자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지만 산업화 성숙단계에서는 오히려 분배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Lindert(1998)에 따르면 이러한 가설은 1970년대까지 타당하다. 미국의 경우 소득분배상태가 역 U자형을 따라가다가 1980년대 이후 반전되어 소득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크게 심화되었는데, 이것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이다(박복영, 2008).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던 아시아 국가들의 중산층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대체로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Smith, 2002; 장미혜, 2008).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산층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소득 수준과 구매력이 향상된 결과 유사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Chip, 1995). 예컨대 브라질의 경우 자가주택의 소유와 사립학교 자녀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질적인 브라질인들은 중산층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O'Dougherty, 2002; 장미혜, 2008).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새롭게 중산층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서구의 중산층과 유사한 소비수준과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Sitnikov, 2000).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산층이 팽창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는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연간 가구소득이 10,000달러 이상이며, 아파트와 소형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계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업을 보면 교육을 받은 정부의 관료나 의사, 엔지니어,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Unger, 2006; 장미혜, 2008).

이러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볼 때 중산층의 양극화를 한국적인 현상으로만 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양극화 현상의 한국적 특성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으로 나누어볼 때,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OECD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1>참조). 현재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대규모 흑인 빈곤층이 도심 내 슬럼 지역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신광영, 2008).

미국의 경우 지니계수가 1979년 0.30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0.368에 이르렀다. 지난 21년 동안 지니계수가 0.057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6년 0.298에서 2000년 0.358로, 4년 사이에 0.06이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분배가 악화된 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지니계수에 대한 특정 시점의 단순 비교도 중요하지만, 불평등의 진행 속도가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지니계수의 변화 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빠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신광영, 2008). <표 1-1>에서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2를 나타낸다.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미국, 러시아, 멕시코의 4개국 정도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호주, 이스라엘 등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타이완과도 시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0.1에 근접하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1-1〉 주요국의 지니계수의 불평등 정도

| 국가 | 연도 | 지니계수 | 10분위소득/1분위 소득 비 |
|-------|------|-------|-----------------|
| 슬로바키아 | 1996 | 0.241 | 2.88 |
| 핀란드 | 2000 | 0.247 | 2.9 |
| 슬로베니아 | 1999 | 0.249 | 3.15 |
| 벨기에 | 1997 | 0.25 | 3.19 |
| 노르웨이 | 2000 | 0.251 | 2.8 |
| 독일 | 2000 | 0.252 | 3.18 |
| 스웨덴 | 2000 | 0.252 | 2.96 |
| 네덜란드 | 1994 | 0.248 | 3.15 |
| 체코 | 1997 | 0.259 | 3.15 |
| 룩셈부르크 | 2000 | 0.26 | 3.24 |
| 오스트리아 | 1997 | 0.266 | 3.37 |
| 타이완 | 1995 | 0.277 | 3.38 |
| 루마니아 | 1997 | 0.277 | 3.38 |
| 프랑스 | 1994 | 0.288 | 3.54 |
| 폴란드 | 1999 | 0.293 | 3.59 |
| 헝가리 | 1999 | 0.295 | 3.57 |
| 스페인 | 1999 | 0.303 | 3.96 |
| 캐나다 | 1998 | 0.302 | 4.13 |
| 스위스 | 1992 | 0.307 | 3.62 |
| 호주 | 1994 | 0.311 | 4.44 |
| 아일랜드 | 1996 | 0.324 | 4.33 |
| 이탈리아 | 2000 | 0.333 | 4.48 |
| 이스라엘 | 1997 | 0.346 | 4.86 |
| 영국 | 1999 | 0.345 | 4.58 |
| 한국 | 2004 | 0.352 | 7.44 |
| 에스토니아 | 2000 | 0.361 | 5.08 |
| 미국 | 2000 | 0.368 | 5.45 |
| 러시아 | 2000 | 0.434 | 8.37 |
| 멕시코 | 1998 | 0.494 | 11.53 |

*자료: Nolan, Brian and Timothy(200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압력 속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산층이 와해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양극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위의 <표 1-1>의 비교에서 보듯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 지니계수가 매우 높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중산층의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특성 및 원인을 규명해보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담당하는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1. 사회자본의 정의

사회자본은 개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지목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자본의 논의와 관련지어 설명되지 않은 감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에 사회자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자본이란 개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생산요소 혹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생산수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자본’ 개념을 확대시킨 개념이다. 이러한 시도는 자본의 개념을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최근의 연구경향을 반영하고 있다(유석춘, 장미혜, 2003). 그렇다면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그리고 문화자본과 구분되는 사회자본의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표 1-2>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각각 비교하여 정리한 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이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유·무형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류석춘 외, 2003; Sandefur & Laumann, 1998; Lin, 2001). 사회자본의 의미를 논의하는 모든 연구자

들에게 연결망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취급된다. 즉 사람들이 둘 이상 연결되면 연결망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자본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이다. 사회자본은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적 자원’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이기 때문이다(Lin, 2001:21).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자본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표 1-2〉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차이점

| | 경제자본 | 인적자본 | 문화자본 | 사회자본 |
|---------------|---------------------------|--|---------------------------|------------------------------------|
| 이론적 의미 |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 자본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본의 개념에 대한 수정 |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 |
| 자본의 소유자 | 개인(자본가) | 개인(노동자) | 가족 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 집단(사회집단) |
| 자본소유자에게 주는 이익 |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와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와 결속의 창출 |
| 자본의 존재 형태 | 물질적 대상 (토지 및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 | 교육 및 직무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과 지식 |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 | 개별 행위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
| 연구의 핵심 |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인 착취관계 | 교육과정과 임금 사이의 연관성 |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간 계급 재생산 |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 유형 |
| 분석수준 | 구조(계급) | 개인 | 가족 | 개인/집단 |

* 출처: 유석춘, 장미혜(2003)

<표 1-2>에 요약된 각 자본의 속성을 비교하여 볼 때 사회자본만이 지닌 독특한 특성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다. 즉, 둘 이상의 행위자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분석단위의 특성이 사회자본을 다른 형태의 자본과 구분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유석춘, 장미혜, 2003).

둘째,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혹은 문화자본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이익이 배타적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자본은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유석춘, 장미혜, 2003). 이익이 공유되는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회자본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 사이에서만 이익이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뉴욕의 다이아몬드 상인이 서로 간에 신용을 쌓아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보석상가의 평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다른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다(Coleman, 1988). 사회자본을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이익의 공유에 대한 배타성을 전제로 계급이나 집단 간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상반되는 경우는 사회적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원에게조차도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컨대 특정지역 사람들이 신뢰를 통해 밤거리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혜택은 그 지역을 통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사회자본을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이와 같은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의 속성을 강조한다(Putnam, 1993b).

셋째, 사회자본은 소유자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자본이다(유석춘, 장미혜, 2003). 누군가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구성원 중 누구라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일련의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자본은 유지되고 재생산

될 수 있다(Bourdieu, 1986).

넷째,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유석춘, 장미혜, 2003).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는 받은 것만큼 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거래에서, 예컨대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하여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 들고 받은 것만큼 늘어나는 영합(zero-sum)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자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더욱 증가되는 정합(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난다(Alder & Kwon, 2000).

다섯째, 경제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볼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회자본의 교환은 이러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경제자본이 교환되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교환’ 과 사회자본이 교환되는 비정부/비영리 영역에서의 ‘사회적 교환’에 적용되는 개인의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Lin, 2001). 많은 경우 우리는 이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 보다는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생겼을 때 보답한다. 이처럼 사회적 교환은 서로가 주고받은 도움에 대해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환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거래만으로 내가 받은 도움을 되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채’는 쉽게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거래가 반복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과 이에 기초한 거래의 안전성은 언제든지 배반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자본은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에 기반을 둔 자원이며 또한 그 호혜성은 원칙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유석춘, 장미혜, 2003).

2. 사회자본의 기원과 효과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구현되는 자원이라는 지적에 대체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로 하는 자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주 정의되기 때문이다(Lin, 2001:24).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맺는 관계가 잠재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관계를 맺는다. 예컨대 사람들은 상류사회에 편입되면 확실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고급의 정보와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그렇게 맺은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실제로 일정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시 노력한다(Bourdieu, 1996).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창출해 내는 동기와 사회자본으로 얻는 효과는 마치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인이 결과가 되며 동시에 결과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논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사회자본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유석춘, 장미혜, 2003).

그러나 사회구조 속에서 행위자들이 반드시 사회자본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혜택을 고려하는 ‘도구적 동기’에 의해서만 사회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들의 기대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집단적 규범의 압력은 사회자본을 창출해내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Ostrom, 2000).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규범 가운데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법률이 개인의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법률처럼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단의 구성원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되고 있는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의 존재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Fukuyama, 1995b). 예를 들면, 이웃 사이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동네에서 사람들은 이웃의 눈총 때문에 쓰레기를 골목 안에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통제는 외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과 같이 내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자신의 자유가 구속되거나 행동의 제약을 받더라도 사회 정의나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약으로 인한 부자유스러움을 느끼지 않는다(Newton, 1997). 물론 공동체의 규범을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통제방식이 행위자로 하여금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외부적 통제나 법률적 제재보다 사회 내의 성원으로 하여금 서로 공존하고 협동하게 만드는 보다 효율적인 기제이기는 하다(유석춘, 장미혜, 2003).

이와 같은 규범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역할과 그에 따른 역할간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과 역할의 관계에 기초한 연결망(network)의 존재는 사회자본을 만들어내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이 된다(Coleman, 1988). 물론 사회성원들 간에 단순히 규범이 존재하는 것과 역할관계의 연결망이 존재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Newton,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이 다소 주관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라면, 연결망에 기초한 조직의 구성은 보다 제도화된 형태를 지니게 된다.

3. 사회자본의 축적

사회자본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집단의 ‘폐쇄성’ 혹은 ‘개방성’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점이다. 즉, 집단의 폐쇄성이 사회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가 하는 논쟁이다. 이 논쟁은 기본적으로 연결망이나 관계에 나타나는 연대의 성격이 약한 것과 강한 것 중 어느 것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한가 하는 논쟁과 같은 쟁점이다. 왜냐하면 ‘약한 연대(weak ti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집단의 ‘개방성’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Granovetter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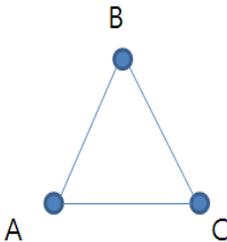
Burt, 2001), ‘강한 연대(strong ti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집단의 ‘폐쇄성’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Coleman, 1988; Bourdieu, 1986).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란 기본적으로 집단의 폐쇄성을 전제로 성립한다. 왜냐하면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맺기에 필요한 효과적인 규범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닫힌 연결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단의 경계가 모호한 개방적인 구조에서는 구성원이 규범을 어기는 경우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방적인 집단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급기야는 집단 자체의 규범이 해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Coleman, 1988). 그러므로 집단의 폐쇄성은 사회자본의 출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겠다(유석춘, 장미혜,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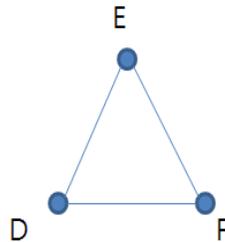
그러나 다른 한편 특정한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어느 정도 느슨한 관계를 맺는 구성원을 가진 집단은 완전히 폐쇄적인 집단에 비해 사회자본의 축적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빈번하게 접촉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강한 연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상적인 일로 자주 접촉하지 않는 즉 약한 연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왜냐하면 강한 연대는 동원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약한 연대는 공유하는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73). 따라서 집단 간에 존재하는 약한 연대는 집단의 장벽을 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외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완전히 폐쇄적인 집단 보다는 약한 연대를 통해 외부와 일정한 교류를 가지며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집단이 사회자본 축적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것은 약한 연대인가 혹은 강한 연대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의 그림을 보며 전개해 보자. [그림 1-1]은 세 사람

으로 구성된 집단 내부에 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하나는 ‘가’와같이 세 사람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가 모두 존재하여 관계가 완결된(complete)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와 같이 세 사람 사이의 가능한 관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아 관계가 완결되지 않은(incomplete) 상황이다. 물론 이 그림은 집단 내부의 관계를 부여주고 있기 때문에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의 외부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림 1-1] 세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내부의 관계



가: 완결된 관계(닫힘)
(Complete relationship:
network closure)



가: 완결되지 않은 관계(열림)
(Incomplete relationship:
network open)

완결된 상황 ‘가’에서는 집단 내부의 관계가 포화되어(saturated) 있는 상태이며 동시에 관계가 닫히는 폐쇄성(closure) 나타나 집단 내부의 결속이 강하다(strong in - group tie). 반면에 완결되지 않은 상황 ‘나’에서는 집단 내부에서 특정한 두 사람의 관계가 제3자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 경우 관계의 열림(open) 즉 개방성이 나타나 집단 내부의 결속은 앞의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비록 관계가 완결되지 않아 집단의 결속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경우 우리는 여전히 이 세 사람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다고 정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구성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다른 구성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유석춘, 장미혜, 2003).

4.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자본

사회자본을 둘러싼 연구에서 계속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무엇을 사회자본의 지표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Putnam, 1993). ‘규범(norm)’,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 그리고 ‘연결망(network)’과 더불어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개념은 ‘신뢰(trust)’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신뢰와 사회자본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Fukuyama, 1995a, 1995b). 그러나 동시에 다른 많은 연구에서 신뢰는 사회자본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촉진 요인이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혹은 역으로 사회자본이 만들어 낸 하나의 결과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Portes, 1998). 물론 이러한 혼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자본의 기원과 효과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사회자본을 둘러싼 개념이 혼란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가리키는 ‘신뢰’라는 미시적인 현상과 거시적 및 미시적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Adler & Kwon, 2000).

사회자본은 미시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뢰와 거시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한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한 국가일수록 즉 산업화가 진전되고 민주화가 성숙한 국가일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사람에게 대한 신뢰는 낮다고 알려져 있다(이재열, 2001). 또한 동아시아와 같이 집단 중심적인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서구와 같이 개인 중심적인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에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다(이재열, 1998, 2001).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는 이론적 예측이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유석춘, 장미혜, 배영, 2002). 왜냐하면 덴마크와 스웨덴 같이 발전한 국가이면서도 상대적

으로 보다 강한 개인 중심적인 정치문화를 가진 유럽 국가에서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이나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흔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일차적인 인간관계 보다는 이차적인 인간관계가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원리로 정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김상준, 2002; 박희봉, 2002; 장수찬, 2002a, 2002b). 그러나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두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자본의 개념을, 실증적인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이론적 가정이 경험적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유석춘, 장미혜, 배영, 2002) 왜냐하면 덴마크나 일본과 같이 발전한 나라에서조차도 이차적인 자원적 결사체는 물론이고 가족 및 개인 연결망이라는 일차적 인간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발언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 같이 국가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의 사람들조차 ‘가족 및 개인적 연결망’을 이용하여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가 발전하여도 일차적인 인간관계의 정치적 중요성은 전혀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Helgeson & Kim, 2002).

바람직한 사회는 분명 사회자본의 두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한 사회 내의 이질적인 여러 집단이 공존하면서 이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일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신뢰 역시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자본의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또한 이차적인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스스로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가족 및 개인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것이 곧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측근주의’ 혹은 ‘정실주의(cronyism)’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와 같은 현상이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과정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새로운 문제일 뿐이다(백우열 · 유석춘, 2002). 왜냐하면 ‘사람’

에 대한 신뢰와 ‘가족 및 개인 연결망’ 활용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덴마크와 스웨덴은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투명성지수(index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항상 가장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청렴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Lipset & Lenz, 2001). 결국 이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가족 및 개인 연결망’이 ‘제도’에 대한 신뢰와 ‘자원적 결사’ 못지않게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한번 반증해 준다(유석춘, 장미혜, 2003).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사적인 신뢰는 약화되어 가는 대신에 보편적인 규칙과 제도에 대한 공적인 신뢰는 증가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우선 실증적인 조사결과와 나타난 경험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서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는 사람에 대한 ‘사적’ 신뢰와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가 서로 양립 가능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파이(Pyre, 1999)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동양과 서양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과 사회조직의 방식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보완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Perkins, 2001; Orru et al., 1997).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해 왔다. 즉 “사적 신뢰가 열린 관계망을 통해서 공적인 제도로 전환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신뢰관계를 닫힌 관계망을 통해 배타적인 과당으로 전환해왔다(이재열, 1998:79)”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와 “폐쇄적인 연결망만이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신뢰를 제공해주는 원천이 된다(유석춘, 2001)”는 긍정적인 견해가 서로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대안으로 “전통적인 유대나 신뢰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협력과 합의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찾는 방안(이재열, 1998:88)” 제시하여 왔고, 후자의 입자에서는 “한국사회 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풍부한 원천으로서 기존의 다양한 연고집단이 지닌 잠재력”을 살려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유석춘, 1998: 2000). 그렇다면 집단 내부의 결속

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 외부와의 관계를 확장하는 사회자본의 축적은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한가?

이 문제는 결국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이미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 혹은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형태의 관계나 연결망 혹은 집단의 조직방식이 한국사회의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산시켜 사회자본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회자본은 서로 양립 가능하고 또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자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연대가 모두 그리고 동시에 필요하다.

제4절 양극화의 재생산기제로서의 사회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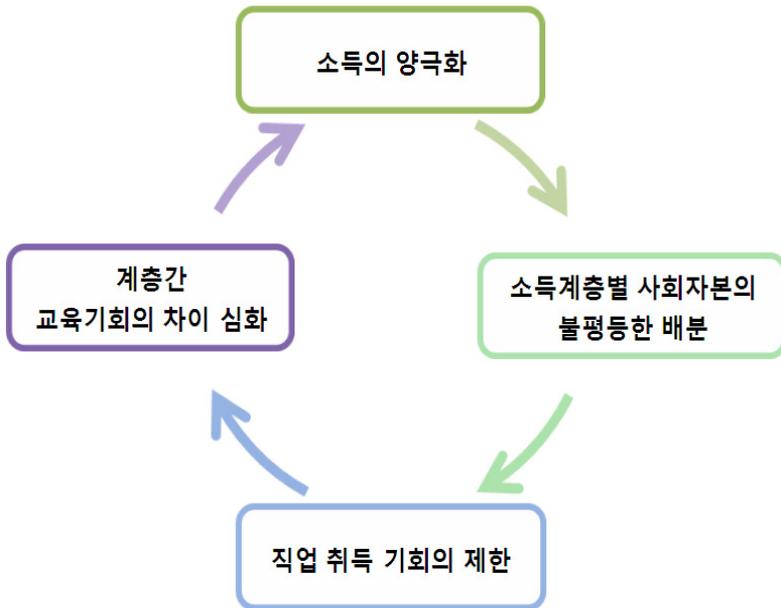
1. 사회자본에 의한 양극화 재생산의 두 매커니즘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자녀의 학습기회가 상당 부분 결정되고, 이것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로 이어지며, 다시 자녀의 계층을 결정하게 되는 매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한 계층 양극화의 재생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양극화가 재생산된다고 말할 때에는 양극화의 결과에 의해 교육이 영향을 받고, 그 교육의 격차가 다시 양극화를 낳는 두 가지 매커니즘이 충족되었을 때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과 사회가 갖는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인 사회자본에 의한 계층 양극화 현상이 재생산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계층별로 사회자본의 분포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둘째, 사회자본을 통한 계층 간 양극화 과정에서 교

육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셋째, 다음 세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육과정에서의 불평등은 노동시장으로도 이어져 사회자본에 따라서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림 1-2] 는 계층 양극화 과정의 순환적 메커니즘에서 사회자본이 매개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된 경제적 양극화가 어떻게 사회자본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다시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배분이 계층 간 교육기회의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계층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림 1-2] 사회자본에 의한 양극화의 재생산 메커니즘



2. 양극화의 결과로서의 사회자본의 불평등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경제적 불평등이 곧 사회자본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병은과 장충권(2006)은²⁾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들 소위 ‘노가다’ 노동자들의 사회자본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사회관계는 전반적으로 일거리에 의해서 매개되는 제한된 범위에서 형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관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약한 연대에 기반하여 물질적·도구적 동기로 맺어져서 관계의 폭이 좁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상호협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한 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의 방식은 약한 연대보다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음에도(Granovetter, 1973, 1974)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않는 약한 연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강한 연대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한계에 놓이게 된다(Stack, 1974; Scott, 1985).

곽현근(2008)은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동네 수준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지역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개인 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비율에 기초한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것을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동네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지역공동체적의식의 정도로 측정했을 때, 빈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환경이 그러한 의식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동네 수준의 효과를 제외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자본의 양극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집합적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 이들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결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파트 단지별 주민 중에서 상대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의 사회자본을 연구한 결과 서로간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천현숙, 2004). 이는 소외계층 스스로 자신의 이웃을 도시빈민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의해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한편으로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주는 경제적 편익을 계속 누리길 싶어 하면서도,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믿지 못하고 중산층 주거지로의 탈출을 꿈꾸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뢰가 사회자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의 주거지에서 신뢰가 매우 낮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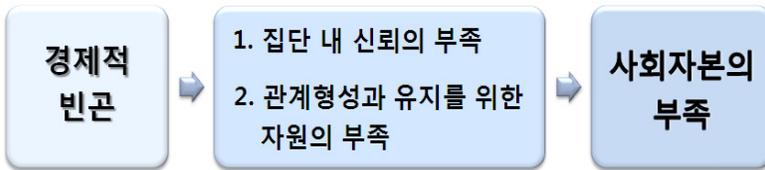
정보화 사회에서 한 개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력에 따라 사회자본이 불균등하게 보유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김태룡 외, 2008). 사회자본을 신뢰와 연결망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때, 정보활용과 정보인식의 차이 즉 정보 격차가 사회자본의 분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층이 양극화되었을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장벽을 제거해 줌으로써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신뢰와 커뮤니티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곧 사회자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김태룡 외, 2008).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곧 사회자본의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의 매커니즘은 양극화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하위집단에 속한 사람일수록 신뢰가 부족하며, 이러한 신뢰의 부족은 곧 구성원들 사이의 견고한 연결망이 형성되는데 장애가 된다(정병은, 장충권, 2006; 박현근, 2008). 그리고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자원이 되는데, 이러한 자원의 부족은 타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한다(김태룡 외, 2008).

반면 상층계급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속한 연결망에서 지도적인

위치나 행정적인 위치를 담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연결망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보다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곽현근, 2008). 그리고 이들은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행위자들보다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최근에 널리 나타나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김태룡 외, 2008). 그리고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단지일수록 주민 서로가 동질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연결망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천현숙, 2004). 이것은 [그림 1-3]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3] 사회자본의 양극화 재생산 매커니즘 1



이제까지 경제적 양극화가 어떻게 사회자본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많은 지역사회 연구와 직업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경제적 양극화가 곧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분포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에 의한 양극화의 재생산의 첫 번째 매커니즘, 즉 양극화가 사회자본의 불균등 분포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들에서 나타날 경험적 연구에서는 한국일반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해 과연 이러한 이론적인 예상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양극화에 의해서 나타난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분포가 다시 양극화를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인 논의들에 대해서 살펴볼게 될 것이다.

3. 사회자본 불평등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은 개인이 직장을 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자본이나 학생 본인의 사회자본이 학생의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듯 사회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며, 이것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가. 사회자본의 교육에 대한 영향

먼저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자본의 역할을 살펴보자.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자본은 가정 내의 사회자본과 학교 내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가정 내의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기초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Coleman 1987). 교육에 관한 부모의 역할은 가정 내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을 구성한다. 물론, 부모이외의 다른 성인이나 친구들도 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부모에게 있다. 가정 내 사회자본은 부모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인식,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간관계, 유대감, 사회적 정보망, 상호작용, 교육적 규범, 교육에 대한 배경지식 등을 포함한다(Coleman 1987, 1988, 1990). 풍부한 사회자본을 가진 가정일수록 자녀가 방치되지 않게 하고, 자녀가 불손한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서 자녀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right, 2001). 그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사회자본은 자녀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밖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신경을 쓰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소양과 태도, 관계맺음의 방식을 훈련하도록 만든다

(Costello, 1997; Wright, 2001). 가정 내의 사회자본은 학업실패에 대한 통제장치로도 기능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간의 유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가 강할수록 자녀의 중퇴율은 낮게 나타난다(Teachman, Paasch, Carvar,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자본이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Israel, 2001).

가정 내 사회자본뿐 아니라 학교 내 사회자본도 청소년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가 얼마만큼 학부모들과 연결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얼마만큼 상호작용하는지를 통해서 학교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Lareau, 1989). 수업시간 외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지, 그리고 교사가 얼마나 학생의 발전을 지원하는지를 통해서 학교 내 사회자본을 측정하였을 때, 이는 다시 학업태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 사퇴 가능성을 막는 효과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Lee와 Croninger, 2001).

가정이나 학교의 사회자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또한 청소년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빈민층을 이웃에 둔 청소년이 교육성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son, 1996). 이웃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태도, 습관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Kasarda(1993)은 이웃의 환경조건이 열악한 곳에 있는 학생의 자퇴율이 중산층 이웃을 두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3배에 이른다는 것을 보였다. 이웃관계가 청소년의 교육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은 사회적 신뢰, 단체의 멤버십, 선거 참여율, 시민단체의 수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 측정된다. 이들은 이와 같이 측정된 사회자본 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다른 지역사회에 비하여 청소년들의 성적이 우수했으며, 학교 중퇴율도 낮다는 것을 밝혔다(Brastz와 Putnam, 1996).

나. 사회자본의 직업에 대한 영향

사회자본이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먼저 취업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구직자의 구직과정, 그 가운데서 특히 연결망을 통한 구직방법은 구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Granovetter, 1974; 1995; 김성훈 2005; 이정규, 2001;2003). 그렇다면 연결망은 어떻게 구직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가? 주변사람을 통한 구직방법의 구체적인 의미는 직업구조에 진입하기 이전에 구직자 자신의 숙련과 능력, 개성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적합성, 직장의 분위기, 구체적인 업무내용, 사전에 필요한 지식 등의 정보를 미리 포괄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한다(Montgomery, 1991; Mortensen, 1994; Simon, 1992; Pellizzari,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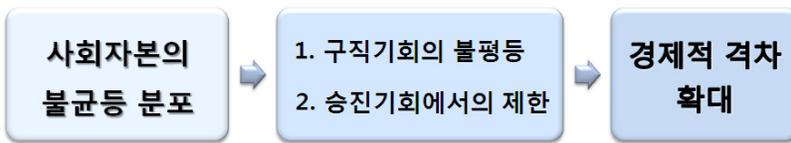
취업자가 구직을 하는 방법에는 광고와 공·사설의 직업안내소와 같은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 일자리를 구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주변의 지인을 통해 구직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다.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통한 구직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정보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라는 의미는 구직자가 고용주에게 노동능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과 구직자가 얻고 싶은 일자리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적합성의 측면을 포함한다. 비공식적인 연결망에는 교수, 친구, 친척, 가족, 혹은 직장동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른 구직 방법이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이용한 통로는 사전에 구직자와 직업의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Ullman, 1966),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Hill, 1970; Reid, 1972) 보다 적절하게 구직자와 직업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된다.

연결망을 통한 구직의 효과는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1) 정보의 접근 가능성, 2) 정보의 효율적 전달, 3) 정보내용의 우월성 등으로 요약된다. 사회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연결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연결망을 통해 구직을 하

는 사람은 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구직을 해야 하는 사람에 비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인광고를 낼 때와 달리 보수나 사내 복지에 대한 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직장의 분위기나,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보수에 대한 정보와 같이 공식적인 광고나 구직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은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취업과정뿐 아니라 취업 이후의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공에도 영향을 미친다. Engstrom과 Ferri는 승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 자신의 경력 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동일 직종 내 인적 연결망의 부족과 자신을 지지해주는 집단(support group)의 부재를 꼽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 인력이 직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데에는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유선영, 2002; 윤석민, 이철주, 2003; 손승혜, 김은미, 2005).

[그림 1-4] 사회자본의 양극화 재생산 매커니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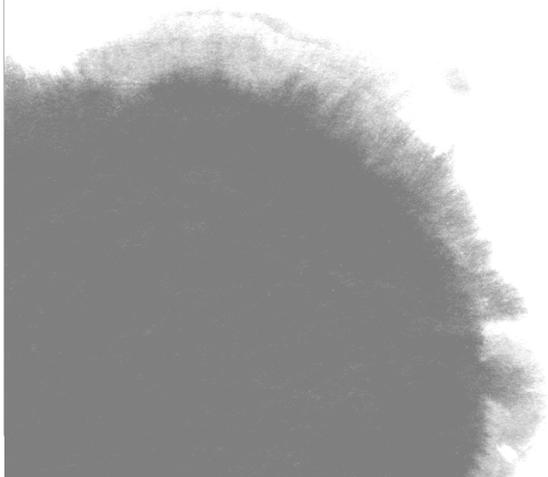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는 사회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취업에 있어서 다양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고 구직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분포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직업을 가진 사람과 실직자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는 지에 개인이 가진 사회자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사회자본이 계층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는지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승진기회에도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시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분포가 다시 임금 격차라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양극화가 계층에 따른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집단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02

양극화와 사회자본 1: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제2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1: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제1절 청소년의 사회자본

비록 “사회자본”이라는 용어의 최초 사용은 제이콥스(Jacobs 1961)나 루리(Loury 1977)에서 찾을 수 있지만 사회학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린 연구는 콜만이 인적 자본의 성취를 위해 사회자본이 어떻게 학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를 밝힌 논문이다 (Coleman 1988).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학업 성취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에 사회자본이 어떻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DBPIA에 “사회자본”이라는 용어가 제목, 목차, 초록으로 포함되어있는 학술지에 출간된 논문은 모두 145건이 등록되어있다. 또한 이 중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논문은 이정선(2001), 김현주, 이병훈(2007), 김은정(2006) 등 다수이다. 제목이나 목차, 초록에 “사회자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에서 청소년과 사회자본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 규정이나 정교한 측정 없이 매우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두루 쓰이며 단순히 좋은 결과나 성과가 관찰될 때마다 거론되는 동어반복의 성격을 가지는 용어로 전락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Bowles 1999; Durlauf 1999; Manski 2000 ; Portes 1998). 또한 사회자본을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여 가장 미시적인 개인들의 사회자본에서부터 지역사회, 미국의 한 주, 심지어는 나라

전체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비교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1) 미시적인 수준의 개인 학생들의 사회자본을 검토하며 (2) 여러 형태의 사회자본 중에서도 사회 연결망에 초점을 맞추고, (3) 한 종류의 사회 연결망이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차원의 사회 연결망을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측정된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단지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효과를 측정하고 보여주려고 하기 보다는 (1) 먼저, 청소년 패널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과연 어떻게 다양한 사회 계층에 걸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측정하고, (2) 그렇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사회자본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2절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 측정: 요인분석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의 대상은 2003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며 표집 방법은 층화 다단계집락표집으로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하고 이에 따라 학교 수를 결정, 정해진 추출 간격에 의해 표집된 학교에서 무작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한 후, 그렇게 선정된 1개 학급의 학생이 전부 조사된 체계적 표집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청소년들의 주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각각 요인분석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 청소년 패널에서 청소년 응답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모두 12개이며 다음과 같다(부모와의 관계임을 고려하여 앞에 p를 붙임).

〈표 2-1〉 청소년 응답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
|---|
| p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 p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
| p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
| p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
| p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
| p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
| p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
| p8.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
| p9.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
| p10.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
| p11.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
| p12.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

-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모두 3개이며 다음과 같다(교사와의 관계임을 고려하여 앞에 t를 붙임)

〈표 2-2〉 청소년 응답자와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
|-------------------------------------|
| t1.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
| t2.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
| t3.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

-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친구관계와 본인과 매우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을 나눌 수 있다(친구와의 관계임을 고려하여 앞에 f를 붙임).
-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친구관계를 묻는 문항은 다음과 같이 두개로 나누어진다.

〈표 2-3〉 청소년 응답자와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
|-------------------------------------|
| f1.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
| f2.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

–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개의 문항이 존재한다.

〈표 2-4〉 청소년 응답자와 매우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
|------------------------------------|
| f3. 매우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명수) |
| f4. 그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며칠정도 만납니까(만나는 빈도) |

–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설문 문항이 존재한다(관계).

〈표 2-5〉 청소년 응답자가 친한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 |
|--|
| f5.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
| f6.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
| f7.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 f8.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

– 요인분석 결과, 아래의 factor loading 표가 보여주듯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항은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5차년도 자료를 모두 합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매년 요인분석을 따로 실시할 경우에 매차년도마다 각각의 요인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6〉 청소년 응답자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 | | |
|--|-------|-------|-------|
| 요인1. 부모와 정서적 교감은 강하고, 약간의 통제를 받으며, 학대는 없는 유형 (정서: scp1) | | | |
| 요인2. 부모와 정서적 교감은 약하고, 통제가 강하며, 학대는 없는 유형 (감독: scp2) | | | |
| 요인3. 부모와 정서적 교감이나 통제는 없으며, 학대를 받는 유형 (학대: scp3) | | | |
| | 1 | 2 | 3 |
| p1 | 0.74 | 0.20 | -0.10 |
| p2 | 0.69 | 0.16 | -0.26 |
| p3 | 0.77 | 0.19 | -0.19 |
| p4 | 0.79 | 0.22 | -0.03 |
| p5 | 0.74 | 0.27 | 0.00 |
| p6 | 0.79 | 0.28 | -0.06 |
| p7 | 0.28 | 0.81 | -0.10 |
| p8 | 0.24 | 0.84 | -0.05 |
| p9 | 0.25 | 0.85 | -0.05 |
| p10 | 0.21 | 0.76 | -0.03 |
| p11 | -0.16 | -0.07 | 0.89 |
| p12 | -0.12 | -0.06 | 0.90 |
| 고유치 | 5.42 | 1.67 | 1.34 |
| 누적분산 | 45.10 | 59.02 | 70.15 |

-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게 되었다(교사와의 관계가 양호: sct).
- 학교에서 일반적인 친구관계를 묻는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기 어려워,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친구 수: numf,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림: join).
-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4개는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게 되었다(친한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 scf).

정리하자면 이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청소년 패널 자료에서 가능한 변수들을 요인 분석하여 얻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친한 친구들과 만나는 빈도’나 ‘외로움의 정도’는 요인분석의 goodness of fit이 좋지 않아서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표 2-7〉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 |
|-----------|--|
| 부모와의 사회자본 | 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좋음: scp1 |
| | 부모가 자녀의 감독을 충실히 함: scp2 |
| | 부모가 자녀를 학대함: scp3 |
| 교사와의 사회자본 | 교사와의 관계가 양호: sct |
| 친구와의 사회자본 | 친구의 수: numf (요인 분석 결과가 아닌 원래 변수) |
| |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림: join (요인 분석 결과가 아닌 원래 변수) |
| | 친한 친구들과 관계가 좋음: scf |

자료: 2003년, 청소년 패널

제3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자본의 양과 그 변화

부모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지위를 탐색한 후에, 부의 교육 수준, 모의 교육 수준, 부의 직업, 가구 소득의 네 가지 기준에서 위에서 밝혀낸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의 교육 수준과 모의 교육 수준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이 연구에서는 부의 교육 수준 결과만 제시한다. 또한 부의 직업은 거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 이것도 결과 제시는 생략한다. 모든 분석은 학년별로 불균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도 함께 제시된다. 우선 부모의 학력 분포 범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범주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부모의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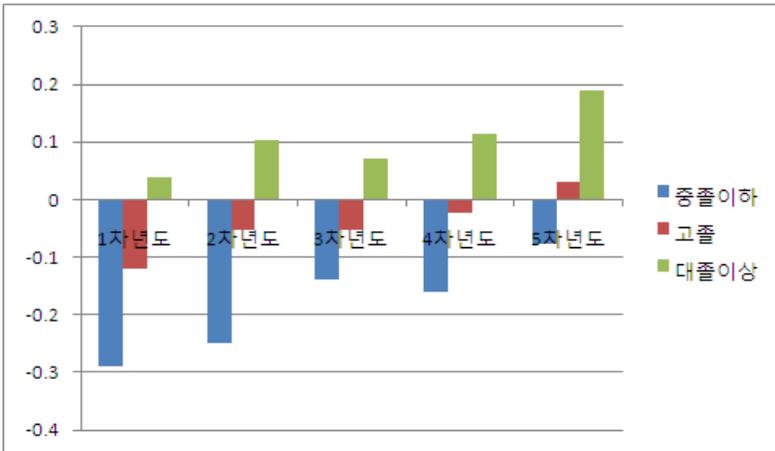
|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 | 전체 |
|---|------------|-------------|-------------|------|
| 부 | 403(11.92) | 1481(43.82) | 1496(44.26) | 3380 |
| 모 | 577(17.19) | 1942(57.85) | 838(24.96) | 3357 |

1. 부의 교육 수준으로 검토한 불균등

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표 2-9〉 부모의 교육 수준과 정서적 유대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중졸이하 | -0.29 | -0.25 | -0.14 | -0.16 | -0.08 |
| 고졸 | -0.12 | -0.05 | -0.05 | -0.02 | 0.03 |
| 대졸이상 | 0.04 | 0.10 | 0.07 | 0.11 | 0.19 |
| 전체(명) | 3374 | 3111 | 3052 | 3058 | 28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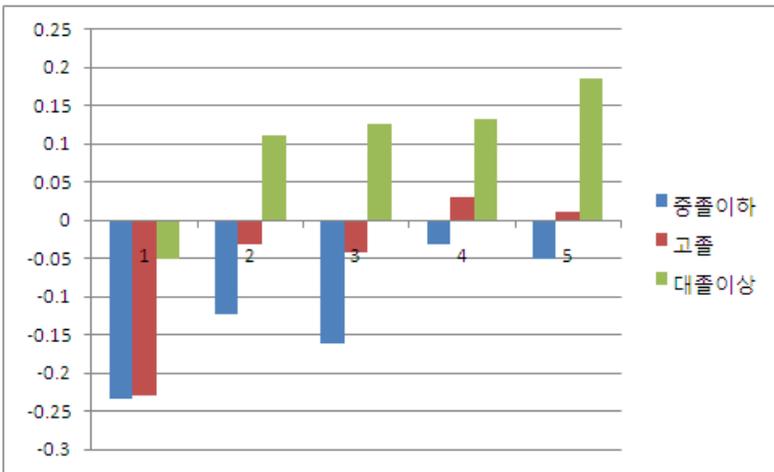


모든 학년에서 예외 없이 부의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유대 정도를 보여주는 요인의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유대는 좋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3인 제 5차년도에도 부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였다.

나. 부모의 충실한 감독

〈표 2-10〉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감독의 충실성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중졸이하 | -0.23 | -0.12 | -0.16 | -0.03 | -0.05 |
| 고졸 | -0.23 | -0.03 | -0.04 | 0.03 | 0.01 |
| 대졸이상 | -0.05 | 0.11 | 0.13 | 0.13 | 0.19 |
| 전체(명) | 3374 | 3111 | 3052 | 3058 | 28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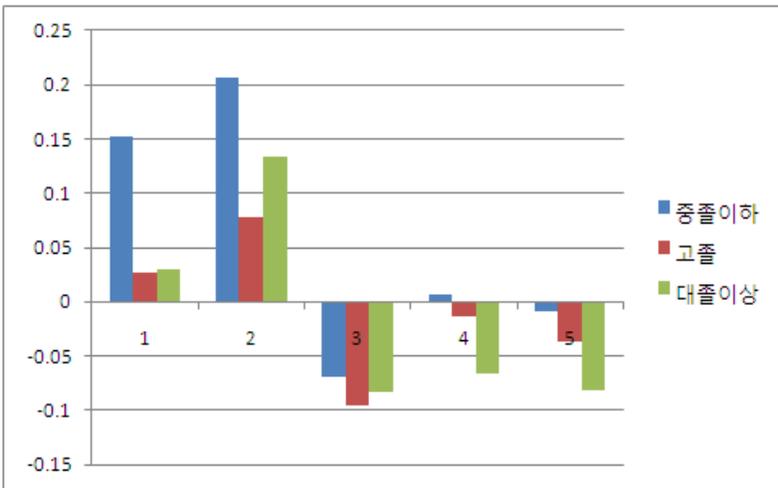


역시 모든 학년에서 예외 없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더 충실하게 감독하는 것으로 나왔으며(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일반적으로 부모의 감독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부모와의 정서 유대’보다 부의 교육 수준에 따른 점수가 더 크게 차이가 났다. 즉, 부의 교육 수준에 따라 정서적 교감보다는 감독과 모니터링에서 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 부모의 학대

〈표 2-11〉 부모의 교육 수준과 학대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중졸이하 | 0.15 | 0.21 | -0.07 | 0.01 | -0.01 |
| 고졸 | 0.03 | 0.08 | -0.10 | -0.01 | -0.04 |
| 대졸이상 | 0.03 | 0.13 | -0.08 | -0.07 | -0.08 |
| 전체(명) | 3374 | 3111 | 3052 | 3058 | 28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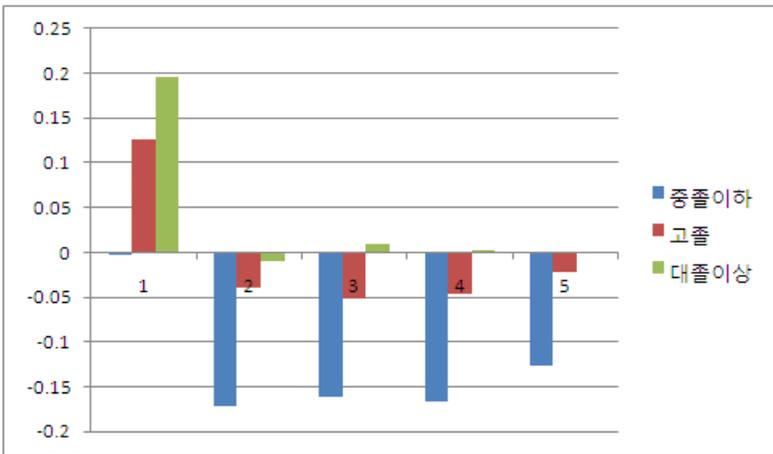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부의 교육 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 부의 교육 수준이 고졸과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학대를 측정하는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시계열적인 경향성을 찾기도 어려웠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학대가 감소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응답자인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하여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학대가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경향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라. 교사와의 관계가 양호

〈표 2-12〉 부모의 교육 수준과 교사와의 양호한 관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중졸이하 | 0.00 | -0.17 | -0.16 | -0.17 | -0.13 |
| 고졸 | 0.13 | -0.04 | -0.05 | -0.05 | -0.02 |
| 대졸이상 | 0.20 | -0.01 | 0.01 | 0.00 | 0.00 |
| 전체(명) | 3363 | 3111 | 3038 | 3017 | 28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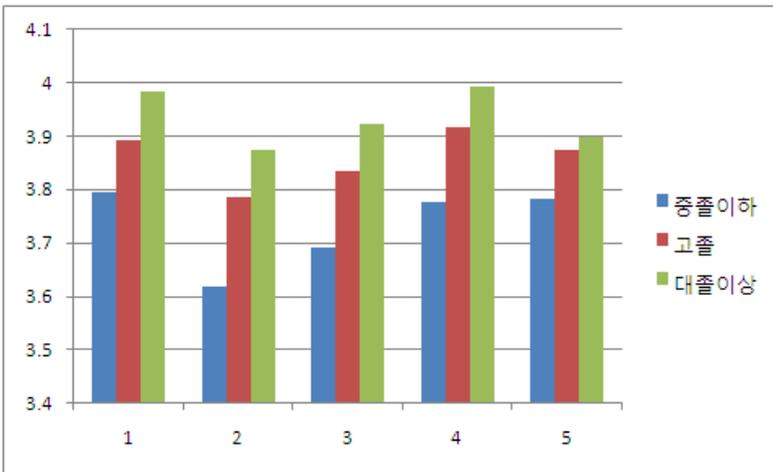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부의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교사와의 관계 점수도 증가하였으며 5차년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차년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가, 2차년도 이후 점수는 매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선생님의 중요성이 도리어 떨어지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림

〈표 2-13〉 부모의 교육 수준과 학교친구들과의 어울림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중졸이하 | 3.79 | 3.62 | 3.69 | 3.78 | 3.78 |
| 고졸 | 3.89 | 3.79 | 3.83 | 3.92 | 3.88 |
| 대졸이상 | 3.98 | 3.87 | 3.92 | 3.99 | 3.90 |
| 전체(명) | 3379 | 3124 | 3060 | 3018 | 28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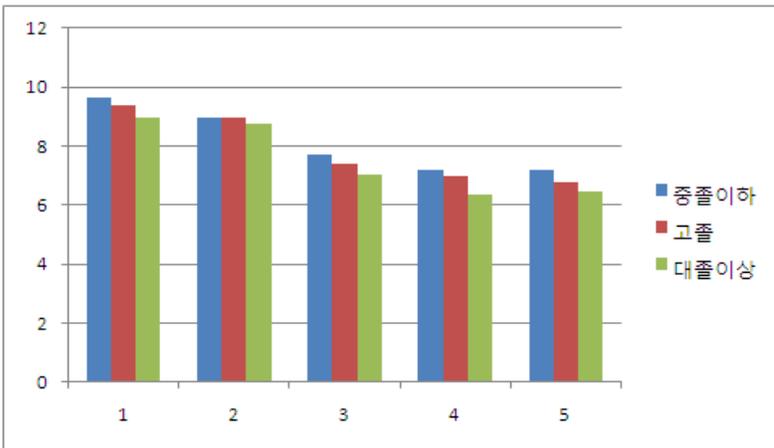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부의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어울림 점수가 높아져 스스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평가하였다. 5차년도만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학년별로는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힘들었고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바. 친한 친구 수

〈표 2-14〉 부모의 교육 수준과 친한 친구 수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중졸이하 | 9.63 | 8.98 | 7.71 | 7.17 | 7.19 |
| 고졸 | 9.41 | 8.96 | 7.41 | 6.96 | 6.79 |
| 대졸이상 | 8.96 | 8.75 | 7.02 | 6.35 | 6.46 |
| 전체(명) | 3375 | 3124 | 3054 | 3058 | 28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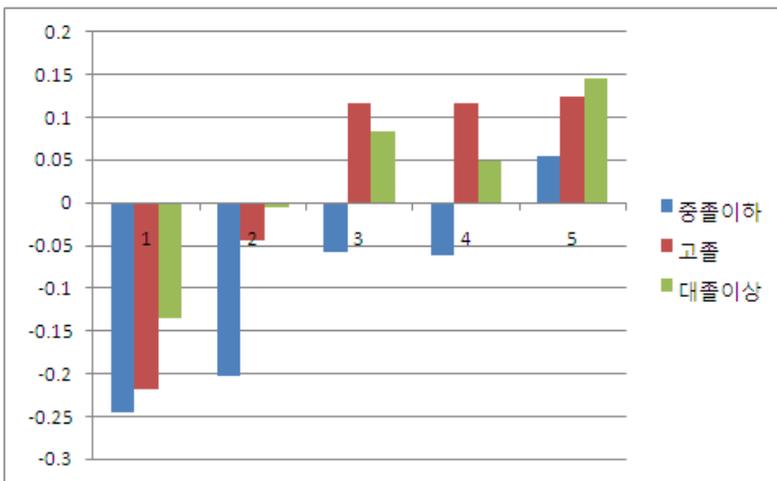


부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친한 친구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한 친구 수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 친한 친구와 관계가 좋음

〈표 2-15〉 부모의 교육 수준과 친한 친구와의 관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중졸이하 | -0.24 | -0.20 | -0.06 | -0.06 | 0.05 |
| 고졸 | -0.22 | -0.05 | 0.12 | 0.12 | 0.12 |
| 대졸이상 | -0.14 | -0.01 | 0.08 | 0.05 | 0.14 |
| 전체(명) | 3367 | 3112 | 3044 | 3056 | 2860 |



전반적으로 부의 교육 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고졸이나 대졸이상인 경우,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5차년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가구소득에 따른 불균등 분포

아래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아니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불균등 분포를 살펴 보았다. 가구소득은 사등분위를 하였으며 사등분위에 의한 매년 가구

소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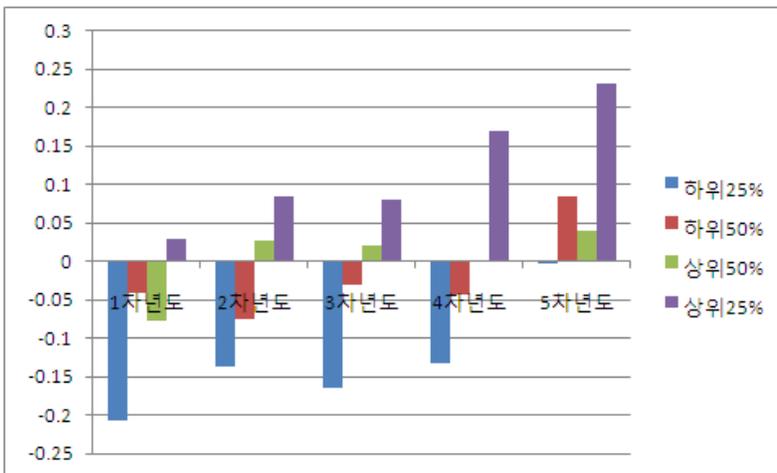
〈표 2-16〉 시등분위에 의한 가구소득의 분포

| 사 분 위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
|-------------|--------|--------|--------|--------|--------|--------|--------|--------|--------|--------|
| | 평균 | 중위값 |
| 1 | 121.65 | 130.00 | 123.07 | 130.00 | 118.18 | 120.00 | 122.04 | 150.00 | 159.95 | 180.00 |
| 2 | 201.17 | 200.00 | 218.57 | 200.00 | 220.78 | 200.00 | 222.78 | 200.00 | 253.78 | 250.00 |
| 3 | 283.50 | 300.00 | 311.53 | 300.00 | 312.52 | 300.00 | 314.00 | 300.00 | 315.00 | 300.00 |
| 4 | 520.73 | 450.00 | 514.39 | 455.00 | 510.81 | 500.00 | 513.13 | 500.00 | 497.72 | 450.00 |

가. 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좋음

〈표 2-17〉 가구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하위25% | -0.21 | -0.14 | -0.16 | -0.13 | 0.00 |
| 하위50% | -0.04 | -0.07 | -0.03 | -0.04 | 0.09 |
| 상위50% | -0.08 | 0.03 | 0.02 | 0.00 | 0.04 |
| 상위25% | 0.03 | 0.08 | 0.08 | 0.17 | 0.23 |
| 전체 | 3236 | 3092 | 2991 | 2973 | 25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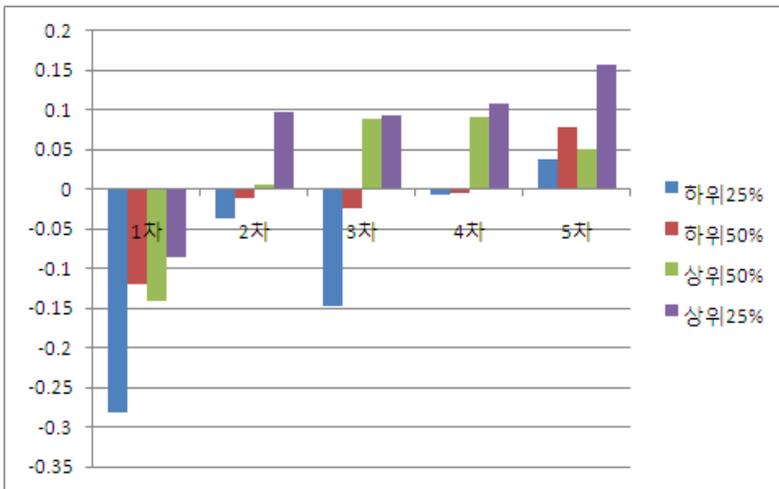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5%의 점수는 높고, 하위 25%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나. 부모가 자녀를 충실히 감독함

〈표 2-18〉 가구소득과 부모의 충실한 자녀 감독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하위25% | -0.28 | -0.04 | -0.15 | -0.01 | 0.04 |
| 하위50% | -0.12 | -0.01 | -0.02 | 0.00 | 0.08 |
| 상위50% | -0.14 | 0.01 | 0.09 | 0.09 | 0.05 |
| 상위25% | -0.09 | 0.10 | 0.09 | 0.11 | 0.16 |
| 전체 | 3236 | 3092 | 2991 | 2973 | 25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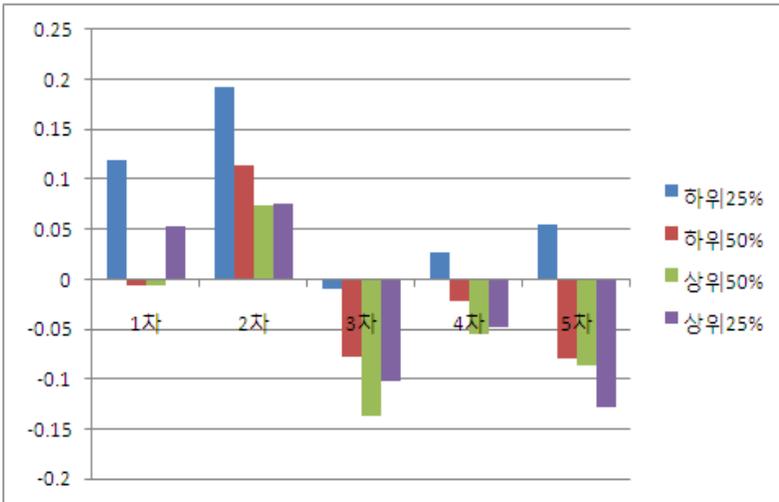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감독과 관련된 요인 점수도 증가하였다. 5차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독과 관련된 점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을 반영하였다.

다. 부모의 학대

〈표 2-19〉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대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하위25% | 0.12 | 0.19 | -0.01 | 0.03 | 0.05 |
| 하위50% | -0.01 | 0.11 | -0.08 | -0.02 | -0.08 |
| 상위50% | -0.01 | 0.07 | -0.14 | -0.06 | -0.09 |
| 상위25% | 0.05 | 0.08 | -0.10 | -0.05 | -0.13 |
| 전체 | 3236 | 3092 | 2991 | 2973 | 25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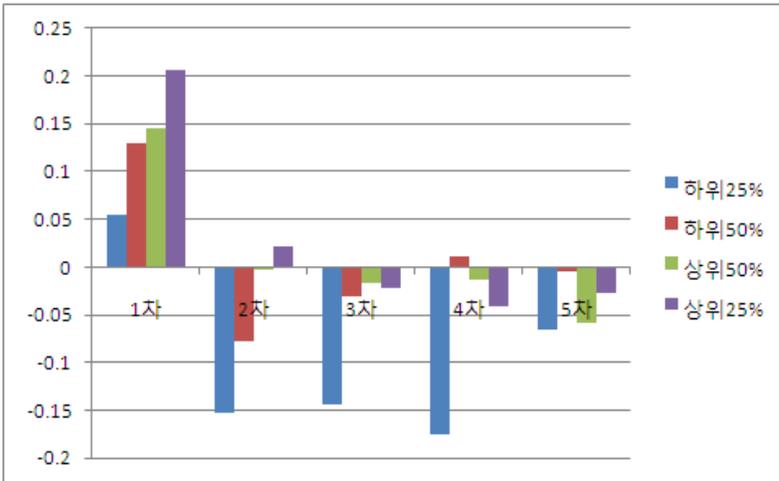


소득 수준에 따른 부모의 학대 요인 점수 차이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5차년도만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다만, 하위 25%의 경우, 학대 점수가 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이후 부모의 학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 교사와의 관계가 양호

〈표 2-20〉 가구소득과 교사와의 양호한 관계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하위25% | 0.05 | -0.15 | -0.14 | -0.18 | -0.07 |
| 하위50% | 0.13 | -0.08 | -0.03 | 0.01 | 0.00 |
| 상위50% | 0.14 | 0.00 | -0.02 | -0.01 | -0.06 |
| 상위25% | 0.21 | 0.02 | -0.02 | -0.04 | -0.03 |
| 전체 | 3225 | 3092 | 2981 | 2933 | 25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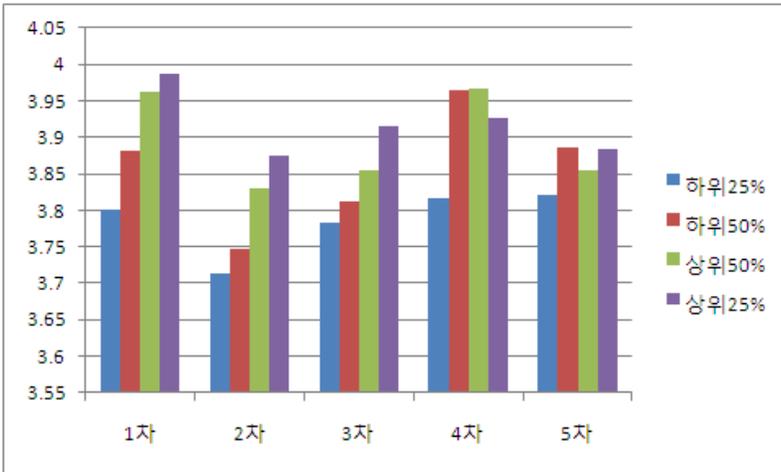


소득 수준이 하위25% 이상인 경우 교사관계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지만, 별다른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1·2·4차년도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3 이후 교사관계 점수가 급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마.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림

〈표 2-21〉 가구소득과 학교 친구들과의 어울림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하위25% | 3.80 | 3.71 | 3.78 | 3.82 | 3.82 |
| 하위50% | 3.88 | 3.75 | 3.81 | 3.96 | 3.88 |
| 상위50% | 3.96 | 3.83 | 3.85 | 3.97 | 3.85 |
| 상위25% | 3.99 | 3.87 | 3.91 | 3.93 | 3.88 |
| 전체 | 3240 | 3105 | 2998 | 2934 | 25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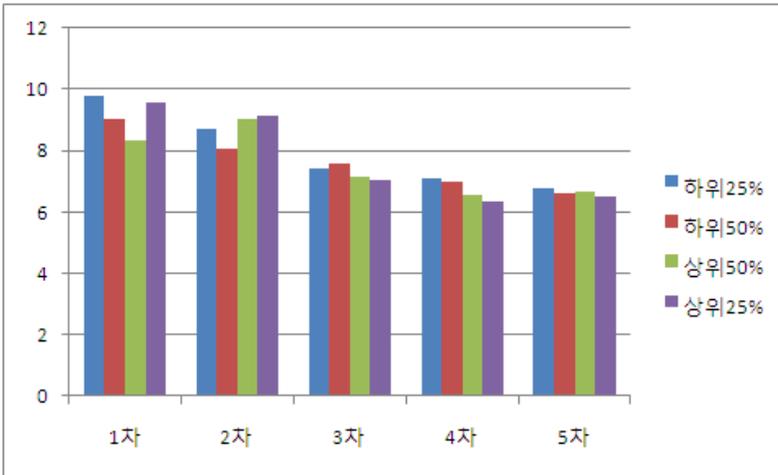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울림 점수도 높아진다. 특히, 하위 25%의 점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었으며, 5차년도 만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바. 친한 친구 수

〈표 2-22〉 가구소득과 친한 친구 수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하위25% | 9.77 | 8.69 | 7.42 | 7.11 | 6.76 |
| 하위50% | 9.05 | 8.05 | 7.59 | 7.00 | 6.60 |
| 상위50% | 8.31 | 9.04 | 7.16 | 6.57 | 6.65 |
| 상위25% | 9.56 | 9.14 | 7.03 | 6.34 | 6.51 |
| 전체 | 3237 | 3105 | 2994 | 2974 | 25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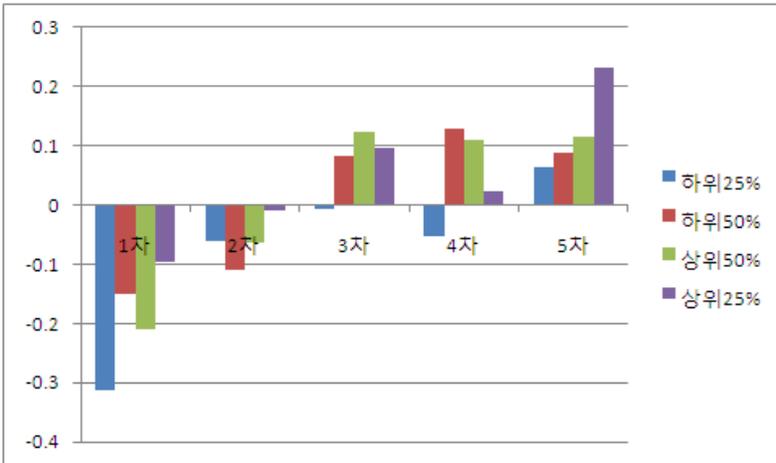


소득 수준에 따른 친한 친구 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4차년도만 제외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 친한 친구들과 관계가 좋음

〈표 2-23〉 가구소득과 친한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하위25% | -0.31 | -0.06 | -0.01 | -0.05 | 0.06 |
| 하위50% | -0.15 | -0.11 | 0.08 | 0.13 | 0.09 |
| 상위50% | -0.21 | -0.06 | 0.12 | 0.11 | 0.11 |
| 상위25% | -0.10 | -0.01 | 0.10 | 0.02 | 0.23 |
| 전체 | 3229 | 3093 | 2987 | 2972 | 2592 |



소득 수준에 따른 친한 친구관계 점수의 차이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1·4·5차년도에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리 및 토론

위의 분석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중에서 ‘모의 직업’은 ‘부의 직업’과 그 효과가 거의 동일하였으며 ‘부의 직업’은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위에서 따로 그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표 2-24〉 변수들 사이의 관계

| | 부의 교육 | 모의 교육 | 부의 직업 | 가구 소득 |
|---------------|-------|-------|-------|-------|
| 부모 관계: 정서 | + | + | + | + |
| 부모 관계: 감독 | + | + | + | + |
| 부모 관계: 학대 | 0 | 0 | 0 | 0 |
| 교사와의 양호한 관계 | + | + | 0 | 0 |
| 학교 친구: 어울림 | + | + | 0 | + |
| 친한 친구 수 | 0 | 0 | 0 | 0 |
| 친한 친구와 관계가 좋음 | + | + | 0 | 0 |

우선 아버지나 어머니의 직업은 대체적으로 큰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 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구분이 상세하지 못하여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에 미래의 연구에서 부모의 직업에 따른 사회자본의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고 한다면, 청소년 패널에서 보여준 직업 분류보다는 자세한 분류를 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한 가구소득보다는 부의 교육이나 모의 교육이 비슷한 정도로 사회자본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생의 사회자본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과 감독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와의 차이는 정서적으로 자녀들과 교감을 유지하면서도 충실하게 감독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사관계와 학교친구와 어울림, 친한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부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서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보다는 부모의 감독 요인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교감보다는 부모의 통제와 모니터링에서 사회경제적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불균등의 분포 정도를 위와 같이 교차 분석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차이의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예를 들어, 차이가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위 25%와 나머지 집단에서만 발견된다는 등), 반면에 불균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어떠한 사회자본이 더 심하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비교하는 목적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음 부분에서는 연속 변수를 가정하는 로렌츠 커브와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사회 자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불균등이 큰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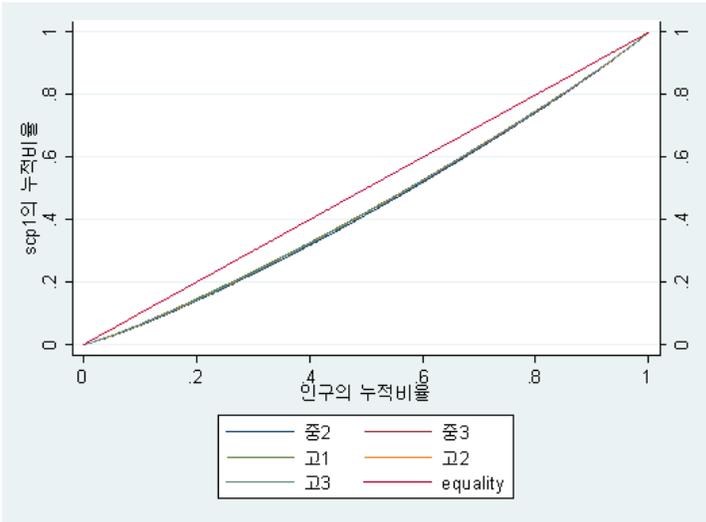
제4절 사회자본 분포의 불균등 정도: 로렌츠 커브와 지니계수

1. 로렌츠 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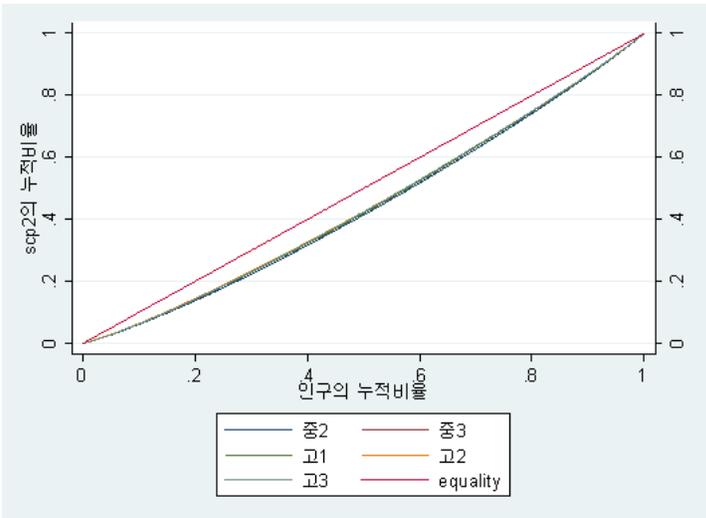
우선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로렌츠 커브를 통해 각 사회자본의 불균등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에서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이 가능하다. (1) 소득 수준에 비추어서는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불균등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단, ‘친한 친구의 숫자’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불균등을 보인다. (2) 불균등의 차이가 또한 학년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단 ‘친한 친구의 숫자’에서는 학년별로 불균등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불균등 정도가 이 또한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단, 음수로는 로렌츠커브와 지니계수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모사회자본 요인 점수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5정도로, 모두 5를 더해줘 양수로 만들어 계산하였다. 교사사회자본 점수는 교사 문항의 평균값으로,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이럴 경우, 표준편차는 동일한데, 평균값이 변하여 계수값이 달라질 수 있다. 로렌트 커브와 지니계수 모두 단위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 결과가 바뀌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자본들끼리의 비교는 불가능하며 단일 사회자본의 경우 년도별 차이에 대한 비교는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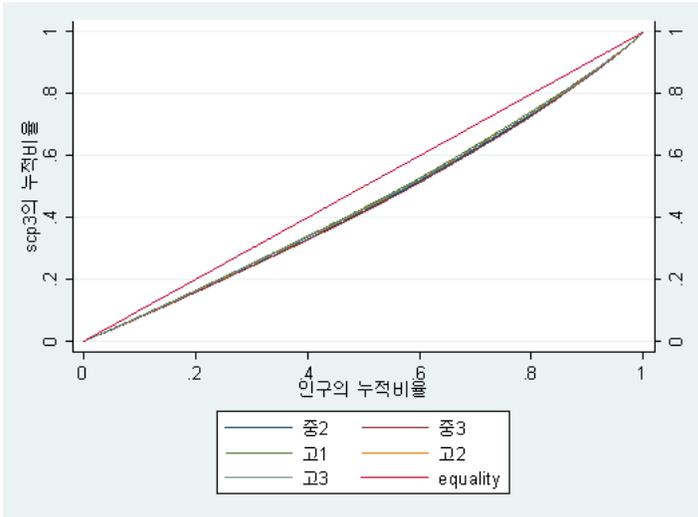
[그림 2-1] 부모사회자본1(정서적 유대)의 로렌츠 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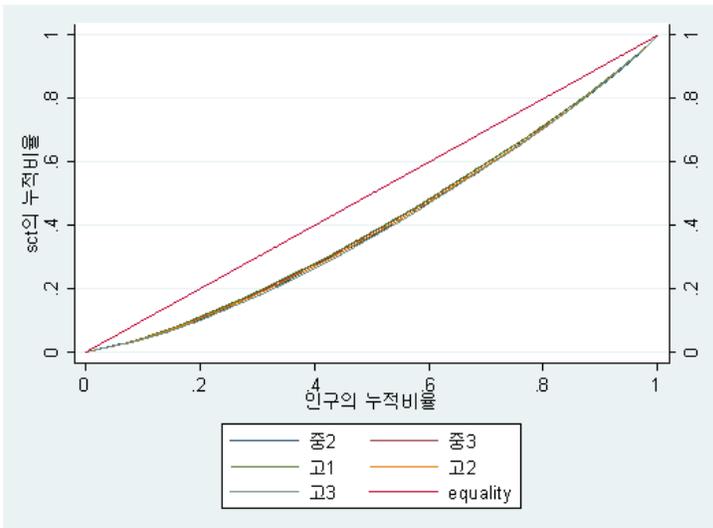
[그림 2-2] 부모사회자본2(감독)의 로렌츠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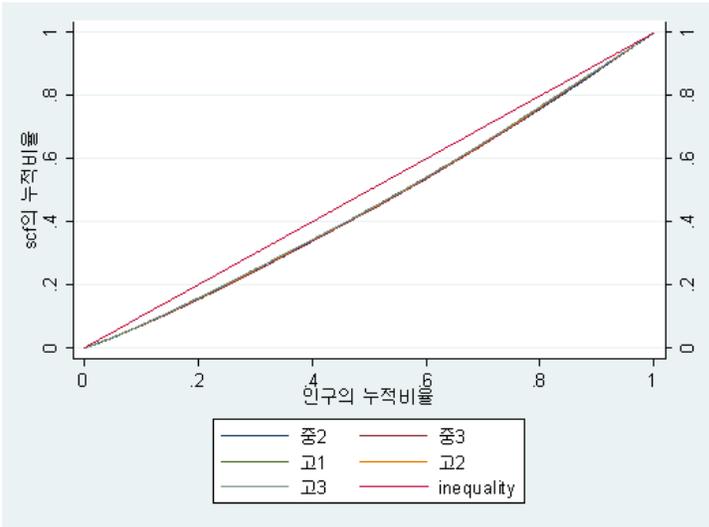
[그림 2-3] 부모사회자본3(학대)의 로렌츠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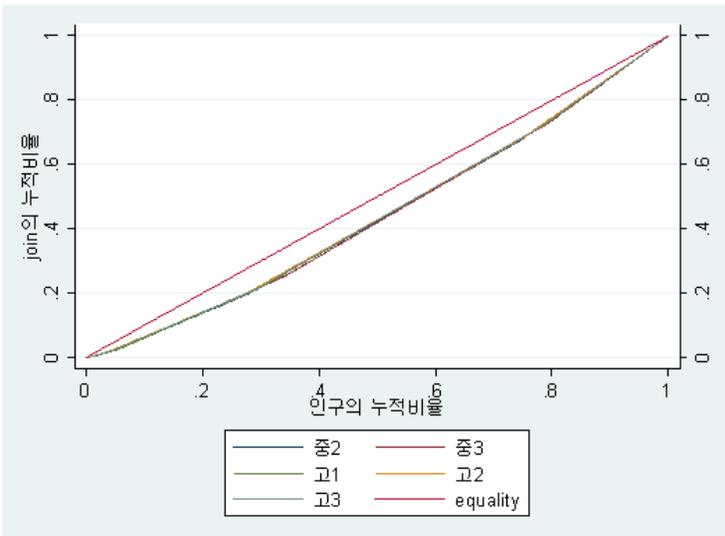
[그림 2-4] 교사관계의 로렌츠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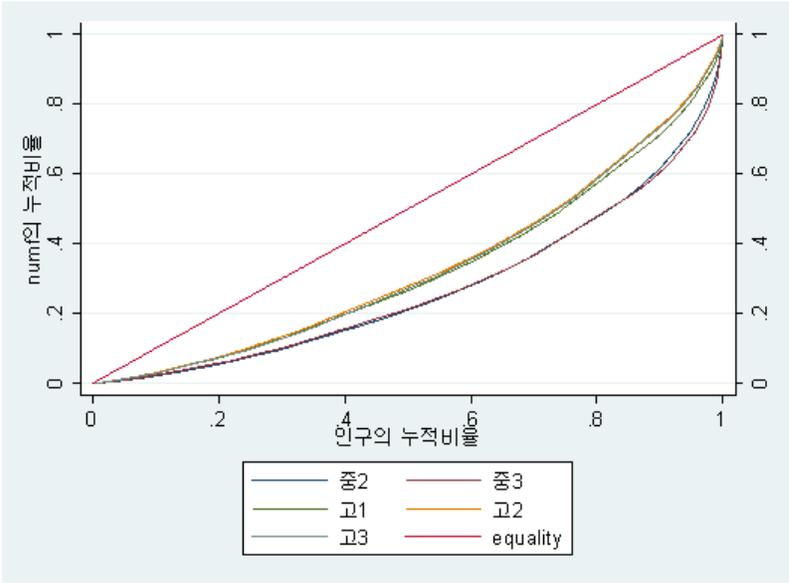
[그림 2-5] 친한친구관계의 로렌츠커브



[그림 2-6] 학교친구관계의 로렌츠커브



[그림 2-7] 친한친구수의 로렌츠커브



2. 지니계수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위에서 로렌츠 커브로 살펴본 것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균등 정도는 심하지 않으며 또한 학년별로도 차이가 없다. 단지, ‘친한 친구 수’는 큰 차이를 보이며 중학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청소년들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5〉 지니계수

| | 부모: 정서 | 부모: 감독 | 부모: 학대 | 교사 | 친한 친구 | 학교 친구 | 친한 친구 수 |
|----|-----------|-----------|-----------|------|----------|----------|------------|
| 중2 | 0.12 | 0.12 | 0.11 | 0.19 | 0.09 | 0.12 | 0.46 |
| 중3 | 0.11 | 0.11 | 0.12 | 0.17 | 0.09 | 0.12 | 0.46 |
| 고1 | 0.11 | 0.11 | 0.10 | 0.17 | 0.08 | 0.11 | 0.35 |
| 고2 | 0.11 | 0.11 | 0.10 | 0.18 | 0.08 | 0.11 | 0.33 |
| 고3 | 0.11 | 0.11 | 0.10 | 0.19 | 0.08 | 0.11 | 0.34 |

범주형 변수가 아닌 연속 변수를 가정하는, 경제 자본의 불균등 분포 정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들인 지니계수와 로렌츠 커브를 사용한 결과 교차분석표의 결과보다 훨씬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수정해야 될 듯)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의 측정이 연속형 변수의 형태보다는 범주형 변수의 형태를 띠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발견은 지니계수나 로렌츠 커브 이외에 사회자본의 불균등 분포 정도를 적절하게 요약하는 계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제5절 고정 효과 모형을 통한 사회자본의 효과 측정

사회자본이 얼마나 어떻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과연 그러한 사회자본이 청소년들의 여러 생활상에 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본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면 ‘자본’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 선형 회귀식은 관찰되지 않은 특이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성적을 분석하는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식을 가정하자.

$$y_i = b_0 + b_1x_i + b_2s_i + e_i$$

y_i 는 청소년의 성적이며 x_i 는 가구 소득이며 s_i 는 사회자본 중의 하나인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라고 가정하며 e_i 는 오류항이다. 이러한 일반 선형 회귀식에서 측정하는 사회자본의 효과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많은 청소년 A와 그렇지 못한 청소년 B를 비교하여 누가 성적이 더 좋은가를 측정하여 얻게 된다(between effect).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효과는 동일한 학생인 A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성적에 어떠한 차이가 내는 가이다(within effect).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청소년을 여러 번 다른 시점에서 관찰하는 패널 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청소년 패널이므로 패널 자료의 장점을 살려 동일한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양이 변화할 때 과연, 성적을 포함한 여러 청소년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종속변수로는 성적, 음주 횟수, 흡연 횟수, 외로움을 사용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남, 녀를 구분하여 중2부터 고3까지의 전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의 목적으로 사용한 다른 독립변수들(가

구소득 수준, 주택 형태, 부의 직업, 모의 취업 여부, 부모 교육 수준, 지역, 가구유형)의 결과는 제시하지 않고 사회자본의 효과만 정리하였다(형제자매 수나 부모의 학력 수준 등과 같이 매년 변하지 않는 변수는 고정 효과 모형에서는 빠지게 된다. 동일한 청소년이 매년 사회자본의 변화에 따라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측정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매년 변하지 않는 변수는 당연히 그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1. 고정 효과 모형: 성적

(표 2-26) 고정 효과 모형: 성적

| 남학생 | | | | | 여학생 | | | | |
|--------|-------|-------|-------|------|--------|-------|-------|-------|------|
| | 계수 | 표준 오차 | t 값 | p 값 | | 계수 | 표준 오차 | t 값 | p 값 |
| 부모(정서) | -0.80 | 0.39 | -2.05 | 0.04 | 부모(정서) | -1.54 | 0.39 | -3.93 | 0.00 |
| 부모(감독) | -0.74 | 0.36 | -2.08 | 0.04 | 부모(감독) | -0.57 | 0.38 | -1.53 | 0.13 |
| 부모(학대) | 0.32 | 0.37 | 0.88 | 0.38 | 부모(학대) | 0.75 | 0.40 | 1.90 | 0.06 |
| 교사 | -0.14 | 0.52 | -0.28 | 0.78 | 교사 | -0.87 | 0.50 | -1.75 | 0.08 |
| 친한 친구 | 0.87 | 0.35 | 2.48 | 0.01 | 친한 친구 | 0.26 | 0.36 | 0.71 | 0.48 |
| 어울림 | 0.65 | 0.60 | 1.09 | 0.28 | 어울림 | 0.66 | 0.60 | 1.10 | 0.27 |
| 친한친구수 | -0.02 | 0.03 | -0.72 | 0.47 | 친한친구수 | -0.07 | 0.06 | -1.26 | 0.21 |
| 표집 수 | 4287 | | | | 표집 수 | 4304 | | | |

종속변수가 반에서의 등수 이므로 음의 계수는 실제 성적이 향상되는 것과 관련 있음을 나타낸다. 남학생의 성적은 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좋고, 부모의 감독이 있을수록 또한 친한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성적이 상충된다는 결론은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주목할 만하다. 반면 여학생은 부모의 감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학대 정도가 상관있다. 정서적 유대가 좋을수록, 그리고 학대가 적을수록 성적은 향상된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성적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남학생에게는 부모의

충실한 감독과 친구들과의 사회자본이 성적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여학생들에게는 부모와의 다른 사회자본(정서적 유대나 적은 학대)과 교사와의 관계가 성적에 효과를 가진다.

2. 고정 효과 모형: 음주 횟수

〈표 2-27〉 고정 효과 모형: 음주 횟수

| 남학생 | | | | | 여학생 | | | | |
|--------|-------|-------|-------|------|--------|-------|-------|-------|------|
| | 계수 | 표준 오차 | t 값 | p 값 | | 계수 | 표준 오차 | t 값 | p 값 |
| 부모(정서) | -0.11 | 0.03 | -3.01 | 0.00 | 부모(정서) | -0.11 | 0.04 | -3.17 | 0.00 |
| 부모(감독) | -0.09 | 0.03 | -2.79 | 0.01 | 부모(감독) | -0.17 | 0.03 | -4.99 | 0.00 |
| 부모(학대) | 0.05 | 0.03 | 1.49 | 0.14 | 부모(학대) | 0.15 | 0.04 | 4.19 | 0.00 |
| 교사 | 0.04 | 0.05 | 0.97 | 0.33 | 교사 | 0.06 | 0.04 | 1.34 | 0.18 |
| 친한 친구 | 0.15 | 0.03 | 4.72 | 0.00 | 친한 친구 | 0.02 | 0.03 | 0.67 | 0.50 |
| 어울림 | 0.02 | 0.05 | 0.30 | 0.77 | 어울림 | 0.02 | 0.05 | 0.33 | 0.74 |
| 친한친구수 | 0.00 | 0.00 | 0.32 | 0.75 | 친한친구수 | 0.01 | 0.01 | 1.50 | 0.13 |
| 표집 수 | 4277 | | | | 표집 수 | 4296 | | | |

종속변수의 치우침이 심해 종속변수를 (ln음주횟수)로 바꾸었으므로 계수가 음수이면 음주 행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부모의 감독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들의 세 가지 형태의 사회자본은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자본은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여학생은 그 효과가 측정되지 않는데 반해 남학생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효과를 보이지만 그 효과는 음주 행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소수의 남학생들 사이에서 친한 친구들 사이에 음주 행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고정 효과 모형: 흡연 횟수

〈표 2-28〉 고정 효과 모형: 흡연 횟수

| 남학생 | | | | | 여학생 | | | | |
|--------|-------|-------|-------|------|--------|-------|-------|-------|------|
| | 계수 | 표준 오차 | t 값 | p 값 | | 계수 | 표준 오차 | t 값 | p 값 |
| 부모(정서) | -0.05 | 0.02 | -2.33 | 0.02 | 부모(정서) | -0.05 | 0.02 | -3.10 | 0.00 |
| 부모(감독) | -0.04 | 0.02 | -2.09 | 0.04 | 부모(감독) | -0.02 | 0.02 | -1.33 | 0.18 |
| 부모(학대) | 0.01 | 0.02 | 0.40 | 0.69 | 부모(학대) | 0.05 | 0.02 | 2.74 | 0.01 |
| 교사 | 0.04 | 0.03 | 1.37 | 0.17 | 교사 | -0.05 | 0.02 | -2.09 | 0.04 |
| 친한 친구 | -0.02 | 0.02 | -0.78 | 0.44 | 친한 친구 | 0.01 | 0.02 | 0.69 | 0.49 |
| 어울림 | 0.00 | 0.03 | 0.03 | 0.97 | 어울림 | 0.10 | 0.03 | 3.91 | 0.00 |
| 친한친구수 | 0.00 | 0.00 | 1.87 | 0.06 | 친한친구수 | 0.00 | 0.00 | 0.22 | 0.83 |
| 표집 수 | 4285 | | | | 표집 수 | 4304 | | | |

이번에는 (ln흡연횟수)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남, 녀 학생 모두에서 효과를 보였고 부모의 감독은 남학생에게 흡연 행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준다. 반면 여학생에게는 부모의 학대가 흡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친구들의 사회자본에서는 남학생은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지만 친구 수가 많을수록 흡연 횟수가 미미하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은 친구들과 일반적으로 잘 지낼수록 흡연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흡연 행위가 감소하였다.

음주나 흡연 등의 건강과 관련된 행위이면서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행위이므로 친구들의 압박(peer pressure)이 강한 행위는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자본이 경우에 따라 도리어 음주나 흡연 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회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의 흡연 행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Alexander et al. 2001).

4. 고정 효과 모형: 외로움

〈표 2-29〉 고정 효과 모형: 외로움

| 남학생 | | | | | 여학생 | | | | |
|--------|-------|-------|---------|------|--------|-------|-------|---------|------|
| | 계수 | 표준 오차 | t 값 | p 값 | | 계수 | 표준 오차 | t 값 | p 값 |
| 부모(정서) | -0.01 | 0.00 | -1.66 | 0.10 | 부모(정서) | 0.00 | 0.00 | -0.53 | 0.60 |
| 부모(감독) | -0.01 | 0.00 | -2.22 | 0.03 | 부모(감독) | 0.00 | 0.00 | 0.22 | 0.82 |
| 부모(학대) | 0.00 | 0.00 | -0.81 | 0.42 | 부모(학대) | 0.00 | 0.00 | -0.11 | 0.91 |
| 교사 | -1.54 | 0.00 | -325.28 | 0.00 | 교사 | -1.53 | 0.00 | -316.65 | 0.00 |
| 친한 친구 | -0.16 | 0.00 | -50.86 | 0.00 | 친한 친구 | -0.16 | 0.00 | -44.67 | 0.00 |
| 어울림 | 1.05 | 0.01 | 192.36 | 0.00 | 어울림 | 1.03 | 0.01 | 176.46 | 0.00 |
| 친한친구수 | 0.00 | 0.00 | -1.20 | 0.23 | 친한친구수 | 0.00 | 0.00 | 2.05 | 0.04 |
| 표집 수 | 4287 | | | | 표집 수 | 4304 | | | |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 중 매우 중요한 요소인 외로움을 종속 변수로 사회자본의 효과를 측정하여 보았다. 남녀 학생 모두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친한 친구와 관계가 좋은 것은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도리어 외로움을 더 타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한 친구가 몇 명인가 하는 단순한 숫자는 효과가 매우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흥미롭게 교사와의 좋은 관계가 남, 녀 학생 모두 효과가 매우 크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사회자본은 남학생에게는 일부 효과가 있는 데 반해 여학생들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의 분포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 (1) 사회자본의 분포가 매우 일관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2) 소득,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에 따라 중층적으로 불균등 구조를 보이고 있고, (3) 그 중에서도 부모가 포함된 사회자본은 심한 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데 반해 청소년 본인과 학교(선생님)와의 사회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약한 불균등 정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발견은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아직 청소년 본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본으로 전이되어 현실화되기 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 불평등은 본인 사회자본의 불평등 이라기 보다는 부모를 통한 불평등이다.

불균등 자체가 본인을 통한 것이 아닌데다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직업 등으로 중층적으로 불균등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 단순하게 하나의 차원(예를 들어 가구소득)을 조정하는 식으로는 쉽사리 불균등 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리어 단기적으로 현재 상대적으로 균등한 청소년-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좀 더 하층의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것이다. 즉,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이념을 단순한 균등에서, 여러 차원에서 불리한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바꾼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7절 소결

이 논문에서는 우선, 청소년 패널 자료로부터 이용 가능한 설문 문항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들을 가능한 여러 차원에서 요인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형태의 사회자본을 성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부모의 충실한 감독, 부모의 비학대가 그것이다. 친구들과 관련된 사회자본도 역시 세 가지 종류로 측정 가능하였는데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림, 친한 친구들과 관계가 좋음, 친한 친구들의 수가 그것이다. 학교 교사와 관련된 사회자본은 하나의 요인으로 줄여서 측정이 가능하였다(교사와의 관계가 양호함).

이렇게 측정된 사회자본은 여러 사회 경제적 지위의 기준에 따라 얼마나 어떻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검토되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이나 부의 직업보다는 부의 교육 수준이나 모의 교육수준이 일관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자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의 교육 수준이나 모의 교육 수준 모두 두 가지 종류의 사회자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도 더 좋았으며, 교사와의 관계도 더 양호했고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았다. 어떠한 종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 없었던 두 가지 종류의 사회자본 형태는 부모의 학대(또는 비학대)와 친한 친구 수이다. 아마도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부모의 학대 빈도는 아직 매우 낮고 또한 친한 친구들의 숫자도 큰 차이 없이 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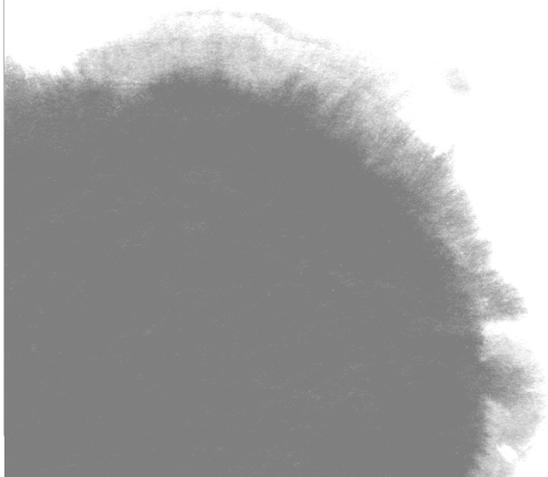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있는 사회자본이 과연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패널 자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성적, 음주, 흡연, 외로움을 종속변수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 학생 간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부모와의 다양한 사회자본 형태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종속변수에서 일관적으로 효과를 보였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외로움과 관련하여 효과를 보여주었다. 친구들과의 사회자본은 흥미롭게도 음주, 흡연과 관련하여서는 도리어 음주와 흡연의 확률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장에서는 1) 다양한 종류의 사회자본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별로(특히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한국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2) 불균등한 정도를 연속 변수를 가정하는 지니계수나 로렌츠 커브에 따라 측정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적인 자원에 비해 불균등 정도가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점은 사회자본에 적합한 지수 개발 등, 본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3) 사회자본의 효과는 청소년들의 성별로, 또한 자본이 효과를 가지는 종속변수 별로 다르게 작동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친구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청소년들에게 흡연이나 음주 등 주변 친구들의 압력이 중요한 행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이라 여겨지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러한 행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앞으로의 사회자본 연구는 좀 더 면밀하게 어떻게 사회자본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밝히면서도 나이, 성별, 종속변수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03

양극화와 사회자본 2: 한국사회의 집단별 사회자본



제3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2: 한국사회의 집단별 사회자본

제1절 문제제기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사회자본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비록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이냐 라는 미처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엄존하기는 하나(Fine, 2001; Schuller et al., 2000), 개인에게는 희소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Granovetter, 1973; Coleman, 1988; Burt, 1997; 이성균, 2006; 김성훈, 2006), 기업에게는 수익 증대 혹은 근로자의 조직몰입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이상민, 이용수, 2007; 김왕배, 이정용, 2002), 국가나 지역공동체에게는 더 번영하고 더 살만한 곳이 될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으로(Putnam, 1993; Cooke and Morgan, 1998; Evans and Syrett, 2007) 간주되어 왔다.

사회자본이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사회자본이 한국사회에서는 성, 소득, 학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아닌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갖는 사회자본의 양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그것보다 크지는 않느냐? 사회자본의 크기에 있어서도 성별 불평등, 소득계층 간 불평등, 학력 간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사회자본은 기존의 불평등 사다리에서 하층에 위치하던 집단(예컨대 저소득층)에 특별히 균건하게 뿌리

내려 그들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고갈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 만약 개인과 공동체에 이렇게 중요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사회자본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어 분포한다면, 사회자본은 기존의 계층 간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고 영속화시키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회자본이 기존 자원의 불평등 분포와는 반대되는 양상으로 분포한다면 기존의 계층 간 불평등을 시정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전국 규모의 서베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수도 없이 많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선행 연구는 사회자본의 측정 문제와 관련된 연구와 사회자본의 계층 간 불평등 분포를 다룬 연구이다.

1. 사회자본의 측정

사회자본의 이론적 기원과 개념 정의를 위한 논의들은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충실하고 충분하게 검토되고 정리되어 있으므로(류석춘 외, 2008; 김상준, 2004; Woolcock, 2001; Mohan and Mohan, 2002), 여기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조작적 정의들이 시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측정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에서 가능하다(Kostova and Roth, 2003).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 측정은 사회자본을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private) 자산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Burt, 1997; Leana and Van Buren, 1999).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인적 특성과 능력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사회자본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고 사회자본의 소유로 인한 혜택은 일차적으로 그것을 소유한 개인에게 돌아온다(Kostova and Roth, 2003: 301). 한편 집단 수준의 사회자본 측정은 사회자본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특성으로 보는 입장과 연결된다(Putnam, 1993, Lin, 1999).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집단이나 조직에 내재하는 집합적 자산으로서, 그 혜택은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파급된다. 사회자본을 이처럼 개인의 사적인 자산으로 보느냐 집단의 공적인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측정의 수준이 결정된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전적으로 전자의 측정 수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 측정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도 측정의 방법은 다양하다. 정병은, 장미혜의 연구(2008)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연결망, 신뢰, 호혜성 규범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이들 각 구성요소들을 적절한 설문항목의 구성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서는 다시 자기중심적 연결망(ego-centric network)의 크기, 상호작용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밀도, 관계의 중복성 등과 같은 하위 지표를 통해 더욱 세밀하게 측정하고자 했다(정병은, 장미혜, 2008:207-9). 한편 이재열, 남은영(2008)은 사회자본을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조명하면서 인맥의 형성과 활용 정도, 유효인맥자산 등을 사회자본의 척도로 활용했다. 이 외에도, 어떤 연구들에서는 집단이나 결사체에 대한 참여 정도나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수를 가지고 사회자본을 측정하고자 했으며(Narayan and Pritchett, 2000; Veenstra and Lomas, 1999), 다른 연구들에서는 제도나 사람에 대한 신뢰, 타인에 협력할 의향, 상대가 보답해 줄 것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사회자본의 측정 변수로 활용하기도 했다(박병진, 2007; 김왕배, 이경용, 2002; Kostova and Roth, 2003).

본 연구는, 다양한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 측정 방식들 중에서, 개인의 심리상태를 측정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들을 절충적으로 혼합하여 사회자본 측정 지표로 삼고자 한다. 신뢰를 포함한 심리상태 측정 방

식을 제외한 것은 개인의 관측할 수 없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사회자본 측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패널 데이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사회집단별 사회자본의 배분

Woolcock(2001)은 사회자본이 빈곤층에게 특히 발달했다고 보고, 그들에게 있어 사회자본은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방어막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Szreter(1999)는 영국 교육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자본의 학력간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계급적인 교육제도는 소수 집단의 자제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뿐만 아니라 밀도 높은 사회적 연결망까지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종국적으로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한다. 조혜선, 김용학(2005)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연결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개인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장덕진, 황정미(2003)는 기업 내 남녀 근로자 사이에 사회자본의 크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직 내에서 성별 사회자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자본 격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차원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여타 차원들이 동일할 경우에도 해당 특정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불균등 분포가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예컨대 사회자본의 크기가 성별로 차이가 나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들-학력, 종교, 소득 수준, 연령 등-의 영향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별로 사회자본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모형의 설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전통들 중에서 사회자본을 개인의 사회 연결망의 크기로 정의하는 전통을 따른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개인의 사회자본 규모의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사회자본을 이렇게 개인적인 수준에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전략은 개인의 여러 인적 특성들이 사회자본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인적 특성을 갖는 개인들이 비교적 큰 사회자본 규모를 보유하는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자본 크기를 종속변수로 하는 개인 대상의 회귀분석이 가장 적절한 연구모형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의 추정을 핵심 목적으로 삼는다.

$$\text{사회자본 크기}_i = \beta_0 + \beta_1 \text{성별}_i + \beta_2 \text{연령}_i + \beta_3 \text{혼인상태}_i + \beta_4 \text{소득}_i \\ + \beta_5 \text{지역}_i + \beta_6 \text{학력}_i + \beta_7 \text{취업상태}_i + \beta_8 \text{종교}_i + \mu_i$$

개인 i 의 사회 연결망의 크기로서 사회자본은 i 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소득, 거주지역, 학력, 취업상태, 종교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예컨대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의 회귀계수 β_1 이 0과 유의하게 다르다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더라도 개인의 사회자본 크기가 성별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4절 자료와 변수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4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

구비 지원을 받아 2003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 태도, 행동에 대한 전반적 사항들을 파악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서베이 조사이다. 2004년 KGSS는 다단계지역층화확률표집에 의해 16개 시도의 읍면동부에서 1312개 가구를 추출하여, 가구원 중 18세 이상 성인 1인을 무작위 선정·조사했다(KGSS, 2004b). KGSS는 현재 2007년 조사자료까지 공표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2004년도 자료만을 활용한 것은 사회 연결망 크기로서의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다른 조사차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 결과에 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종속변수인 사회자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KGSS 2004년 조사는 직장 및 일터, 이웃이나 동네, 그 외 동창·동호회, 교회 중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수를 응답하게 하고 있다(설문 57, 58, 59). 이 중에서 직장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를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³⁾ 나머지 두 문항의 응답치를 합한다. 이를 사회자본 크기 변수의 하위지표 1이라 하였다. KGSS 2004년 조사에는 하루 평균 접촉하는 사람 수를 응답하게 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설문 61).⁴⁾ 0-4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점, 1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점을 부여한다. 이를 사회자본 크기 변수의 하위지표 2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KGSS 2004년 조사에는 모임 혹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설문 75). 이 문

3)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응답자의 취업 상태를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을 제외한 것은 변수의 정의에 의해 자동적으로 취업자의 사회자본이 더 크도록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4) 여기서 ‘접촉’이라 함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인터넷 등으로 귀하와 일대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KGSS, 2004a).

항은 정당, 시민운동단체, 종교단체, 향우회, 등 9개 단체나 모임 별로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 “소속된 적 없다”라는 네 가지 선택지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된 적 없는데 응답한 경우는 0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에는 3점을 부여하여 각 단체별 응답치를 모두 합한다. 이것을 사회자본 크기 변수의 하위지표 3으로 삼는다. KGSS 2004년 조사 결과 (직장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는 평균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접촉하는 사람 수가 5-9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7%에 달하고, 9개 사회집단들 중 어느 한 곳에도 소속된 적이 없는 사람이 전체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하위지표들은 서로 평균과 분포가 상이하므로 각 지표의 값들을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하여 세 하위지표를 모두 합한다. 이것이 바로 한 개인(집단)의 사회자본 크기이다. 아래 <표 3-1>은 사회자본 크기 변수의 산출 과정을 실제 응답자 j의 경우를 통해 예시해준다.

〈표 3-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와 산출 방식(응답자 j)

| 문항 | 문항의 평균/표준편차 | j의 응답 값 | j의 표준점수 | j의 사회자본 크기 값 |
|----------------|-------------|--|----------|----------------------------------|
|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 | 15.7/21.4 | 13명 | -0.12754 | 0.38162+1.08660-0.12754 = 1.3407 |
| 하루에 접촉하는 사람 수 | 2.6/1.3 | 4(20-49명) | 1.08660 | |
| 사회단체, 모임 활동 정도 | 6.3/4.4 | ①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0 ② 소속되어있지만 활동은 안하는 단체: 동창회, 친목단체, 기타단체 = 2+2+2=6 ③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단체: 종교, 스포츠 문화 단체 = 1+1=2 ④ 계 = 6+2=8 | 0.38162 | |

3. 독립변수

다음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술통계이다(<표 3-2> 참조). 2004년 KGSS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3.6세이며 18세부터 93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표준편차 15.7). 연령변수는 사회자본 크기 변수와 2차함수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곱항과 함께 회귀식에 투입되었다. 응답자 중 남성은 46.6%였다. 성별 변수는 남성이 기준범주로 코딩된 더미변수이다. 학력은 응답자의 총 교육년수로 측정되었다.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졸과 고졸은 각각 9년, 12년, 전문대졸은 14년, 4년제 대졸은

16년으로 간주되고 대학원졸은 석박사 구분 없이 18년으로 환산했다. 각급 학교의 중퇴, 휴학, 재학생의 경우 전 단계 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연수에다 중퇴, 휴학, 재학 학년을 더한 값을 교육년수로 간주했다. 이렇게 산출된 학력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1.8년과 4.4년이다.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는 “종교 없음”이 37.5%, 불교가 27.2%, 개신교가 24.5%, 천주교가 9.6%, 기타 종교가 1.1% 순이다. 이 중 기타 종교(15 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종교 변수는 “종교 없음”을 기준범주로 하여 더미변수처리하였다. 혼인상태별 분포는 미혼이 22.3%(293명), 기혼유배우가 66.4%(871명), 이혼 별거 사별 등 기혼무배우가 11.3%(148명)이다. 혼인상태 변수는 미혼을 기준범주로 하여 더미처리하였다. KGSS는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50만원 단위로 구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네 구간으로 범주화하여 소득변수로 사용했다.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전체의 27.1%(338명),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은 전체의 24.0%(315명), 2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26.1%(342명), 4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은 19.1%(250명)이었다. 150만원 미만 저소득계층을 기준범주로 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취업상태 변수는 취업여부를 묻는 문항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자인지 자영업 고용주 등의 비임금근로자인지를 묻는 문항을 통합하여 “비취업”,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세 개의 범주를 갖는 불연속 변수로 만들었다.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35.8%(470명), 비임금근로자는 19.7%(259명), 나머지 44.4%(583명)가 비취업자였다. 취업상태 변수는 비취업자를 기준범주로 하여 더미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방 광역시, 도 세 가지 범주를 갖도록 구성했다. 응답자의 44.6%(585명)가 수도권 거주자이며, 22.1%(290명)는 지방 광역시 거주, 나머지 33.3%(437명)가 지방도 거주자였다. 수도권을 기준범주로 하여 더미처리하였다.

〈표 3-2〉 독립변수와 기술통계

| 변수 | 기술통계 | | | 비고 |
|-----------|---|------|------|--------------------------|
| | 분포 | 평균 | 표준편차 | |
| 연령 | - | 43.6 | 15.7 | - |
| 연령제곱 | - | - | - | - |
| 성별 | 남: 46.6% 여: 53.4% | - | - | 여=0 |
| 학력(피교육년수) | - | 11.8 | 4.4 | - |
| 종교 | 종교 없음:37.5% 불교: 27.2% 개신교: 24.5% 가톨릭: 9.6% 기타: 1.1% | - | - | 기타종교 분석에서 제외. 종교 없음=0 |
| 혼인상태 | 미혼: 22.3% 기혼유배우:66.4% 기혼무배우:11.3% | - | - | 미혼=0 |
| 월평균가구소득 | 150만원미만: 27.1% 150-250미만:25.3% 250-400미만:27.5% 400만원이상:20.1% | - | - | 150만원미만=0 |
| 취업상태 | 비취업자: 44.4% 임금근로자: 35.8% 비임금근로자: 19.7% | - | - | 비취업자=0 |
| 지역 | 수도권: 44.6% 지방광역시: 22.1% 지방도: 33.3% | - | - | 수도권=0 |

제5절 분석 결과

1. 사회자본 크기의 불균등 분포

먼저 사회자본의 크기는 응답자의 연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래 <표 3-3>에서 보듯이, 연령과 사회자본 크기와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 관계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여러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각 집단별로 사회자본 크기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다(<표 3-3>). 그 결과, 사회자본의 크기는 혼인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혼유배우자 그룹과 미혼자 그룹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양 그룹에 비해 이혼·사별·별거 등 기혼 무배우자 집단의 사회자본 크기는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사회자본 크기와 연령, 학력 간 상관관계(Pearson's r)

| | 사회자본 크기 |
|----|-----------|
| 연령 | -0.101*** |
| 학력 | 0.251*** |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

성별로도 사회자본의 크기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자본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컸다. 한편 종교집단 간에는 사회자본 크기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값의 단순비교에서는 종교가 없는 집단의 사회자본 크기가 가장 작고, 개신교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이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사회자본 크기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 집단과 비임금근로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자본의 크기는 거주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두 집단과 지방 도 거주자 집단을 비교하면 후자의 사회자본 크기가 유의미하게 컸다.⁵⁾

5) 그러나 혼인상태나 성별 간 차이는, Levene 통계량의 유의도 검증에서 보듯이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3-4〉 사회자본 크기의 집단간 차이 검정

| 변수 | 범주별 평균 | | F | Levene 통계량 | 사후검정 |
|-----------------|---------|-------|------------|---------------|--|
| 혼인 상태 | 기혼유 | 2.23 | 15.251*** | 7.928*** | 기혼유 = 미혼 기혼유,미혼 > 기혼무 |
| | 기혼무 | -0.92 | | | |
| | 미혼 | 0.004 | | | |
| 성별 | 남 | 0.58 | 78.080**** | 9.713*** | - |
| | 여 | -0.47 | | | |
| 종교 | 종교무 | -0.13 | 1.266 | 0.681 | - |
| | 불교 | 0.06 | | | |
| | 개신교 | 0.17 | | | |
| | 가톨릭 | 0.06 | | | |
| 월평균 가구 소득 | 150미만 | -0.73 | 39.963*** | 1.923 | 150미만< 150-250 < 250-400 < 400이상 |
| | 150-250 | -0.08 | | | |
| | 250-400 | 0.16 | | | |
| | 400이상 | 1.04 | | | |
| 취업 상태 | 비취업자 | -0.66 | 52.972*** | 2.831 | 임금=비임금 임금,비임금>비취업 |
| | 임금근로자 | 0.53 | | | |
| | 비임금근로자 | 0.60 | | | |
| 지역 | 수도권 | -0.03 | 5.326*** | 2.292 | 수도권=광역시 수도권,광역시 < 도 |
| | 광역시 | -0.27 | | | |
| | 도 | 0.27 | | | |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

이로써 우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이나 기혼유배우자보다는 기혼무 배우자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취업자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방 도 거주자들보다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채 사회자본 크기와 단일 독립변수 간의 관계만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해서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자본의 크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 크기를 종속변수로 하고 모든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다. 변량분석 결과와 다른 점은 여타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나면 연령효과와 혼인상태 변수의 효과는 사라지고 종교효과는 살아난다는 점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연령과 혼인상태는 더 이상 사회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사회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의수준 0.05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개신교 신자의 사회자본 크기가 가장 크고 불교 신자의 사회자본 크기는 그 다음으로 크며, 가톨릭 신자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사회자본 크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비표준화 계수 B | 표준오차 | 표준화 계수 베타 | t | 유의확률 |
|-----------|-----------|-------|-----------|--------|-------|
| (상수) | -3.222 | 0.620 | - | -5.198 | 0.000 |
| 남성더미 | 0.773 | 0.129 | 0.182 | 5.999 | 0.000 |
| 연령 | 0.022 | 0.028 | 0.161 | 0.775 | 0.438 |
| 연령제곱 | 0.000 | 0.000 | -0.106 | -0.522 | 0.602 |
| 기혼유배우더미 | 0.077 | 0.205 | 0.017 | 0.375 | 0.708 |
| 기혼무배우더미 | -0.028 | 0.287 | -0.004 | -0.099 | 0.921 |
| 150-249더미 | 0.346 | 0.172 | 0.071 | 2.014 | 0.044 |
| 250-399더미 | 0.594 | 0.180 | 0.125 | 3.307 | 0.001 |
| 400이상더미 | 1.167 | 0.197 | 0.222 | 5.922 | 0.000 |
| 광역시더미 | 0.032 | 0.150 | 0.006 | 0.211 | 0.833 |
| 광역시도더미 | 0.512 | 0.136 | 0.113 | 3.772 | 0.000 |
| 학력 | 0.075 | 0.020 | 0.153 | 3.740 | 0.000 |
| 임금근로더미 | 0.610 | 0.142 | 0.138 | 4.295 | 0.000 |
| 비임금근로더미 | 0.801 | 0.167 | 0.152 | 4.811 | 0.000 |
| 불교더미 | 0.369 | 0.148 | 0.077 | 2.499 | 0.013 |
| 개신교더미 | 0.503 | 0.149 | 0.102 | 3.379 | 0.001 |
| 가톨릭더미 | 0.387 | 0.207 | 0.055 | 1.869 | 0.062 |

한편 사회자본 크기의 성별 격차는 여타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사회자본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크기에 대한 소득효과 역시 타 변수의 영향을 통제해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는데,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상위 소득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사회자본의 크기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의 특성 역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자본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들보다는 광역도 거주자들 사이에서 사회자본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보다는 취업자가 사회자본이 더 컸다. 취업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나 고용주 집단의 사회자본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 베타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다양한 독립변수들 중에서 사회변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효과였으며 성별효과의 영향이 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6절 정책적 시사점

통상적으로 재정 지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재정 지출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소득 간 격차와 취업/비취업자 간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은 재정 지출이 고소득자의 사회자본 축적을 더 유리하게 하고 취업자의 사회자본 축적을 더 유리하게 하여 기존의 소득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간접적(혹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 지출의 이런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재정 투입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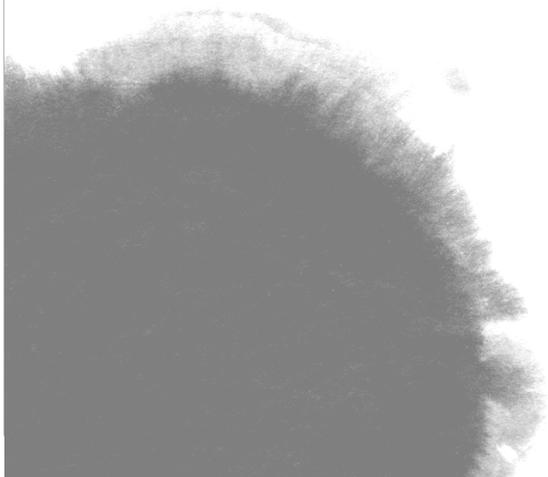
제7절 소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등과 같이 개인의 삶의 기회와 자원 접근에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역시 여타 조건들이 동일하더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각각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동안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의 크기가 개인의 삶의 질과 희소 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상, 사회자본이 그동안 사회 불평등의 사다리에서 비교적 상부에 있었던 계층(남성, 고학력자, 고소득자 등)에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재와 같은 사회자본의 분포 양상이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예컨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에 사회자본의 차등이 존재할 경우, 사회자본을 많이 보유한 고학력자는 학력의 높음이 가져다줄 수 있는 여러 가치 있는 자원들에 덧붙여 사회자본의 풍부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자원들마저 향유하게 되므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간 자원의 불평등 분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자본의 분포 양상을 보다 더 고르게 하여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 공공 정책이 개입해야 하는가? 주지하다시피 사회자본은 개인에게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출현적 속성이다. 따라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개인의 특성(학력이나 소득, 노동시장 지위, 등)을 변화시키려고 개입해서는 사회자본의 불균등 분포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이 속해있는 더 큰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s)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개인의 사회자본 크기에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04

양극화와 사회자본 3: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의 지역효과



제4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3: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의 지역효과

제1 절 문제제기

사회자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정하려는 시도는 사회자본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창출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해있는 구조적·공간적 맥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설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력에 따른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분포가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정책 목표는 사회자본 크기의 학력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학력이 높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사회자본이 높다는 것을 알려줄 뿐 사회자본의 학력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사회자본 크기의 학력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사회자본 크기의 학력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할 또 다른 추정모형이 필요하다. 같은 논리로 사회자본 크기의 성별 격차, 소득 간 격차, 취업·비취업자 간 격차, 종교간 격차 등을 줄이거나 늘이는 효과를 갖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또 다른 분석모형은 사회자본이 단순히 개인적 속성(individual attributes)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한다. 개인적 속성이

사회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진공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structural contexts)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촉진되기도 한다(Granovetter, 1985; Mohan and Mohan, 2002). 새로운 분석모형은 바로 이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회적 환경은 남녀 간 사회자본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어떤 구조적 요인은 사회자본의 학력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dampen) 효과를 갖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사회적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자본의 남녀간·학력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사회자본의 불균등 분포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강화되는 것을 일정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위계선형모형(HLM) 혹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으로 알려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개인적 속성들과 사회자본 크기 간 관계의 크기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맥락을 밝혀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의 적용

다층모형은 이처럼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을 초월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증폭되거나 완화되는 정도를 추정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분석기법이다(Singer and Willett, 2003: chs.1-8; Raudenbush and Bryk, 2002). 2수준 다층모형은 1층 모형(level-1 submodel)과 2층 모형(level-2 submodel)으로 구성된다. 1층 모형에서는 거시단위(예컨대 학교) 속에 포함되어있는(nested) 미시단위들(예컨대 개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이 수행되고, 2층 모형에서는 1층 모형에서 추정된 절편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거시단위 대상의 회귀분석이 수행된다. 따라서 다층모형은 예컨대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할 수 있는데, 학교의 어떤 특성이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하거나 더 완만하게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은 1층 모형과 2층 모형의 회귀식이다.

1층 모형 :

$$y_{ij} = a_{0j} + a_{1j}x_{1ij} + a_{2j}x_{2ij} + \dots + e_{ij} \rightarrow \text{식1}$$

2층 모형:

$$a_{0j} = b_{00} + b_{01}z_{1j} + b_{02}z_{2j} + \dots + u_{0j} \rightarrow \text{식2}$$

$$a_{1j} = b_{10} + b_{11}z_{1j} + b_{12}z_{2j} + \dots + u_{1j} \rightarrow \text{식3}$$

$$a_{2j} = b_{20} + b_{21}z_{1j} + b_{22}z_{2j} + \dots + u_{2j} \rightarrow \text{식4}$$

·
·
·

위의 회귀식에서 1층 모형의 y_{ij} 는 j 거시단위의 i 번째 미시단위(예컨대 j 학교의 i 학생)가 갖는 종속변수값이며 x_{1ij}, x_{2ij}, \dots 는 동일 미시단위가 갖는 각 독립변수들의 값이다. 예컨대 한 학교당 60명씩 100개 학교, 6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시험 성적에 어떤 독립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고 할 때 y_{ij} 는 j 학교 i 학생의 수학시험성적이 된다 ($j=1,2,\dots,100/ i=1,2,\dots,60$). 그리고 x_{1ij}, x_{2ij}, \dots 는 동일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주평균 공부시간 등이 될 것이다.

한편 학생의 성적은, 이러한 전적으로 개인적인 특성들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속한 구조적 맥락인 학교 차원의 특성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학교라는 구조적·거시적 특성이 발휘하는 영향은 2층 모형에 의해 포착된다. 1층 모형은 100개의 학교별로 60명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00개의 회귀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1층 회귀분석의 결과로 각 학교의 고유한 절편인 $a_{0j} (j = 1, 2, \dots, 100)$ 와 고유한 기울기인 $x_{1j}, x_{2j}, \dots (j = 1, 2, \dots, 100)$ 가 산출된다. 2층 모형은 1층 회귀분석의 이들 절편과 기울기들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이다. 위의 2층 모형에서 식2는 j 학교의 절편의 크기 - 즉 모든 독립변수가 0일 때 j 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학시험 성적 -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식3은 j 학교의 첫 번째 독립변수 x_{1ij} 의 회귀계수(기울기) - 즉 x_{1ij}

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수학적적의 증가분 -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2층 모형의 각 회귀식은 100개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독립 변수도 당연히 개별 학생수준이 아니라 학교 수준의 변수들(예컨대 학생 수, 학생1인당 교사 비율 등)이어야 한다. 예컨대 x_{1ij} 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이고 z_{1j} 가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이라면 2층 모형의 회귀계수 b_{11} 은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학적적에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b_{11} 이 유의미한 양수라면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이 더 높은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학적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거시 맥락적 변수인 학교의 특성(학생대비 교사가 얼마나 많은 학교인가)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층모형의 분석논리는 그대로 본 연구 주제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층 모형은 앞 장에서 추정했던 개인 수준의 회귀식(사회자본 크기를 종속변수로, 성별, 학력, 가구소득 등 여타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이 된다. 2층 모형은 1층 모형에서 추정된 각 독립변수들의 기울기(회귀계수)에 개인을 넘어서는 거시 맥락적 단위의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이 거시적·맥락적 단위는 다름 아니라 지역(regions), 보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이다.

많은 거시적 맥락적 단위들 중에서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행동의 피구속성(embeddedness) 문제를 천착한 이론적 연구들(예컨대 Granovetter, 1985)을 통해 공간적 지역적 동질성이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사회자본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지역과 공간적 맥락이 개인의 사회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Mohan and Mohan,

2002; Fox, 1999), 셋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게 됨에 따라 공식통계를 통해 필요한 변수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통제 가능한 변수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어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넷째, KGSS 데이터의 제약상 개인 응답자들을 다층모형 적용에 충분한 케이스를 갖는 거시 단위로 통합시킬 수 있는 유력한 변수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2층 모형은 1층 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시군구 단위의 특성들이 이들 회귀계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로써 2층 회귀식은 시군구 단위의 변수들이 증가 혹은 감소할 때 그 시군구에 거주하는 남녀 간의 사회자본 격차,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간의 사회자본 격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사회자본 격차가 줄어드는지 혹은 늘어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사회자본에 대한 지역효과 혹은 공간효과를 다층모형을 통해 테스트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층모형이라는 세련된 분석방법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수준의 사회자본이 지역이나 공동체의 거시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먼저 사회자본의 영향을 정부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와 연관지어 고찰하려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Lomas, 1998; Szreter, 1999).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성을 담보할 무형의 그러나 필수불가결한 정책 메뉴이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로는 Mohan and Mohan(2002)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사회자본 개념이 지리학(인문지리)의 연구 쟁점들에 어떻게 접목될

6) KGSS의 조사구 변수는 전체 응답자를 읍면동 수준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코딩되어 있다.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사회자본의 지리학(geography of social capital)”을 제시하고자 한다(Mohan and Mohan, 2002: 192). 한편 Fox의 연구는 지방정부의 분권화 정책이 어떻게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협치구조(structures of local governance)”가 풀뿌리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1999: 48). Moser and Holland는 자메이카 도시 지역의 범죄율이 사회자본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1998).

이 외에도 본격적으로 다층모형을 활용한 경험적 검증은 시도하지 않지만, 다층모형이 사회자본에 대한 거시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발견된다. 앞서 소개한 Mohan and Mohan의 연구(2002)가 그 일례다(2002: 199). 또한 Kostova and Roth의 연구(2003)도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회자본이 근로자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지사 차원의 특성과 나아가 지사가 주재하는 유치국(host country)의 정치·경제·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다층모형이 사회자본에 대한 거시적·맥락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다층모형의 유용성을 지적하거나 이론적 탐색을 통한 가설 제시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전국 규모의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층모형을 활용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는 것은 본 연구가 최초일 것으로 사료된다.

제4절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 추정할 다층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1층 모형 :

$$\text{사회자본크기}_{ij} = a_{0j} + a_{1j} \text{성별}_{ij} + a_{2j} \text{취업여부}_{ij} + a_{3j} \text{학력}_{ij} + a_{4j} \text{소득}_{ij} + a_{5j} \text{종교}_{ij} + e_{ij}$$

2층 모형:

$$\begin{aligned} a_{0j} &= b_{00} + b_{01} \text{지역내총생산}_j + b_{02} \text{사업체수}_j + b_{03} \text{문화시설수}_j + b_{04} \text{범죄발생건수}_j \\ &\quad + b_{05} \text{공공지출}_j + u_{0j} \\ a_{1j} &= b_{10} + b_{11} \text{지역내총생산}_j + b_{12} \text{사업체수}_j + b_{13} \text{문화시설수}_j + b_{14} \text{범죄발생건수}_j \\ &\quad + b_{15} \text{공공지출}_j + u_{1j} \\ a_{2j} &= b_{20} + b_{21} \text{지역내총생산}_j + b_{22} \text{사업체수}_j + b_{23} \text{문화시설수}_j + b_{24} \text{범죄발생건수}_j \\ &\quad + b_{25} \text{공공지출}_j + u_{2j} \\ a_{3j} &= b_{30} + b_{31} \text{지역내총생산}_j + b_{32} \text{사업체수}_j + b_{33} \text{문화시설수}_j + b_{34} \text{범죄발생건수}_j \\ &\quad + b_{35} \text{공공지출}_j + u_{3j} \\ a_{4j} &= b_{40} + b_{41} \text{지역내총생산}_j + b_{42} \text{사업체수}_j + b_{43} \text{문화시설수}_j + b_{44} \text{범죄발생건수}_j \\ &\quad + b_{45} \text{공공지출}_j + u_{4j} \\ a_{5j} &= b_{50} + b_{51} \text{지역내총생산}_j + b_{52} \text{사업체수}_j + b_{53} \text{문화시설수}_j + b_{54} \text{범죄발생건수}_j \end{aligned}$$

1층 모형에서 사회자본크기_{ij}는 j지역(예컨대 서울시 구로구, 경남 창원시 등에 거주하는 개인 i의 사회자본 크기이며, 모형의 경제성(parsimony)을 위하여 앞 장의 OLS회귀분석 모형에서 투입됐던 독립변수들 중 유의미하지 않았던 연령, 혼인상태 변수와 다층모형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지역 변수를 빼 나머지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투입된다.)⁷⁾ 1층 모형의 각 회귀계수 a_{kj} ($k = 0, \dots, 5$)는 j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별, 학력 등이 그들의 사회자본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한편 2층 모형에서는 1128명의 개인을 그들의 거주지에 따라 전국 102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분류하고, 각 시군구별로 추정된 1층 모형의 계수값 a_{kj} ($k = 0, \dots, 5 / j = 1, \dots, 102$)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6번의 회귀

7) 이들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1층 모형을 추정한 결과도 이들을 모두 포함한 앞 장의 OLS회귀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고, 변수들의 계수도 robust하게 유지된다.

분석을 실시한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로는 j시군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사업체 수, 문화시설 수, 범죄발생 건수, 해당 지자체의 공공지출 등을 투입하였다.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 변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data와 사회자본의 상호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얼마나 소득이 높은 지역인지(GRDP), 얼마나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이 활발한 지역인지(사업체 수), 문화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진 지역인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지역인지, 지방정부의 공공 지출이 얼마나 많은 지역인지에 따라 그 지역에 사는 개인들의 사회자본 규모와 개인적 특성들 사이의 관계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5절 자료와 변수

이 연구 역시 KGSS의 2004년 조사자료를 이용한다. 1층 모형에서 사용될 변수는 앞 장의 변수들과 동일하나, 모델의 간결성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범주가 셋 이상인 더미변수들은 두 범주 더미변수로 리코딩했다. 취업상태 변수는 “비취업” 범주는 그대로 두고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범주를 한데 묶어 “취업자”로 리코딩하여 비취업자=0인 더미변수로 재구성했다.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 역시 250만원 미만 그룹과 이상 그룹으로 리코딩하여 250만원 미만 그룹을 기준범주로 하였다. 종교 변수 또한 “종교 없음”과 “종교 있음” 두 범주로 리코딩하였고, 종교 없음을 기준범주로 하였다.⁸⁾ 다음 <표 4-1>은 1층 모형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8) 앞 장에서 분석에서 제외됐던 “기타종교” 응답자들은 이번에는 “종교있음”으로 분류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4-1〉 1층 모형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 변수 | 기술통계 | | | 비고 |
|-----------|----------------------------------|------|------|--------------------|
| | 분포 | 평균 | 표준편차 | |
| 성별 | 남: 46.6% 여: 53.4% | - | - | 여=0 |
| 학력(피교육년수) | - | 11.8 | 4.4 | - |
| 종교 | 종교없음:37.5% 종교있음:62.5% | - | - | 기타종교 포함. 종교없음=0 |
| 월평균가구소득 | 250만원 미만:52.4% 250만원 이상:47.6% | - | - | 250만원미만=0 |
| 취업상태 | 비취업자: 44.4% 취업자: 55.6% | - | - | 비취업자=0 |

한편 2층 모형의 독립변수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측정되었다. 우선 전체 개인 응답자 1312명을 거주지에 따라 103개 시군구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⁹⁾. 서울 강남구에는 전체 응답자의 1.1%인 15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충북 음성군에는 0.5%인 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기초단체는 40명이 표집된 경남 창원시였으며 가장 적은 수의 응답자가 속한 기초단체는 3명이 표집된 데 그친 대전 중구였다.

〈표 4-2〉 103개 시군구별 개인 응답자 분포(발체)

| 시군구 | 개인응답자 수 | % |
|--------|---------|-------|
| 서울 강남구 | 15 | 1.1 |
| 서울 강동구 | 12 | 0.9 |
| 경기 고양시 | 21 | 1.8 |
| 경기 용인시 | 32 | 2.4 |
| 경북 경산시 | 9 | 0.7 |
| 충북 음성군 | 7 | 0.5 |
| 전북 전주시 | 21 | 1.6 |
| | | |
| 계 | 1312 | 100.0 |

9) 총 개인응답자는 1312명이며 총 시군구수는 103개 이지만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면 1128명, 102개 시군구가 분석 대상이 된다.

지역내총생산은 당해 년(2004년) 기준가격으로 산출되었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시군구 단위의 일인당 지역내총생산이 통계연보에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의 일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일괄 적용했다. 서울, 인천, 충남, 충북, 부산, 울산, 전남(3개 시군), 전북 등 8개 시도 소속 시군구에서는 자체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각 시도 수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모든 소속 시군구에 일괄 적용했다. 이것이 추정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102개 시군구의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04년 당해 년 가격 기준으로 1천710만원 선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540만원을 기록한 광주광역시 남구, 가장 높은 지역은 5천70만원을 기록한 경북 구미시였다.

〈표 4-3〉 2층 모형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 변수 | 산출방식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지역내총생산 | 지역내총생산/ 인구 | 17069.48 | 6975.44 | 5400.00 | 50703.00 |
| 사업체 수 | log사업체수/ log인구 | 0.78 | 0.05 | 0.39 | 0.95 |
| 문화시설 수 | log문화시설수/ log인구 | 0.20 | 0.07 | 0.00* | 0.33 |
| 범죄발생 | 인구1천명당 범죄발생건수 | 40.93 | 13.59 | 0.00** | 141.60 |
| 공공 지출 | log세출예산/ og인구 | 0.99 | 0.06 | 0.91 | 1.13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시설 수 1개

** 0.000368, 충남 부여군

사업체 수는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로서, 지역 인구 대비 전산업 사업체 수를 계산했다. 단,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너무 큰 데서 오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 단순비가 아닌 로그비를 사용했다. 102개 시군 평균은 0.78,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0.39를 기록한 부산 수영구였으며 0.95를 기록한 서울 중구가 가장 사업체 수 비율이 높았다. 문화시설 수 변수는 지역 통계에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 영화관, 전시시

설 등의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서, 역시 지역 인구와의 로그비를 구하여 사용했다. 울산시 울주군이 문화시설 수 1개소로서 인구와의 로그비 0.0으로 지역 최소값을 기록했다.

범죄발생 변수는 지역의 인구 1천명 당 범죄발생 건수로 계산했다. 천명 당 범죄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 부여군이었으며(0.0004),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오산시로 141.6건을 기록했다. 공공지출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결산통계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당해년도 가격기준)을 사용했으며 역시 인구와의 로그비를 구하여 사용했다. 인구와 세출예산 간의 로그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북구로서 각각 0.91을 기록했다. 로그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1.13을 기록한 경기도 연천군이었다.

제6절 분석 결과: 사회자본과 지역효과

1층 모형의 추정을 통해 앞 장에서 개인의 사회자본 크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독립변수들의 영향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유지됨을 볼 수 있다. <표 4-4>의 b_{k0} ($k = 0, \dots, 5$) 계수들을 살펴보면 ① 일자리가 없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250만원 미만이고, 종교가 없는 여성 응답자는 평균 -2.156 정도의 사회자본 크기를 갖는다는 것, ② 여성보다 남성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는 많이 받은 사람이,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각각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자본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장에서 OLS 회귀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와 다르지 않다.

한편 2층 모형의 추정은 이러한 1층 모형에서 드러난 개인수준의 사회자본-개인특성 간 관계가 지역의 특성이라는 거시적·맥락적 차원의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증폭되거나 축소되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b_{0k} ($k = 0, \dots, 5$)

를 살펴보면 지역 차원의 변수들은 지역 내 사회자본의 절대적 크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유의수준 10%). 공공 지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혹은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의 사회자본 크기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수준의 변수들은 개인의 성별, 학력별, 취업상태별, 종교별, 소득별 사회자본 격차를 더 크게 하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는가? 지역변수들이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b_{1k} ($k = 0, \dots, 5$)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는 지역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수, 문화시설 수, 범죄발생, 공공 지출 등이 전국 평균 수준인 지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0.737 정도 큰 사회자본을 향유하고 있는데, 지역내총생산이 이보다 더 높은 지역이거나 문화시설이 더 많은 지역이거나 공공지출이 더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이 격차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¹⁰⁾

b_{2k} ($k = 0, \dots, 5$)의 계수들은 사회자본의 취업여부 간 격차에 대한 지역변수의 효과를 보여준다. 지역내총생산(유의수준 5%), 문화시설 수(유의수준 1%), 범죄발생(유의수준 10%), 공공 지출(유의수준 10%) 등이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를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지역수준 변수값이 전국 평균 수준인 지역의 취업자-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크기 격차는 0.747인데, 지역내총생산이 전국평균보다 1단위 더 높은 지역은 이 격차가 0.0004만큼 더 벌어지고 문화시설이 전국평균보다 1단위 더 많은 지역에서는 이 격차가 5.07만큼 더 벌어진다.¹¹⁾ 다시 말해 지역내총생산이 전국평균보다 1단위 더 높은 지역의 취업-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는 0.747이 아니라 0.74704이며, 문화시설이 전국 평균보다 1단위 더 많은 지역에서는 이 격차가 $0.747+5.07=5.817$ 로 커진다는 의미이다.

10) 2층 모형의 모든 독립변수들은 grand-mean centering 한 후 투입됐다.

11) 여기서 1단위 증가라고 함은 예컨대 문화시설 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 변수의 측정단위, 즉 문화시설의 로그값 대 지역인구의 로그값의 비가 한단위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여타 지역변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범죄발생이 전국평균보다 1단위 더 높은 지역에서는 취업자·비취업자 간 격차가 0.012만큼 더 벌어지고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전국평균보다 1단위 더 높은 지역에서는 이 격차가 4.135만큼 더 벌어진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나 문화시설 수, 범죄발생, 지역내총생산은 모두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의 사회자본 격차를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_{3k} 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소득 수준(유의수준 5%)과 문화시설 수(유의수준 10%)가 사회자본의 학력별 격차를 줄여 줄을 알 수 있다. 5개 지역변수 값이 전국 평균 수준인 지역에서는 개인의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사회자본 크기가 0.075만큼 증가하지만,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평균보다 1단위 더 높은 지역에서는 교육년수에 따른 사회자본 크기 증가율이 0.075에서 0.000004만큼 줄어든다. 물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아주 미미한 효과이다. 한편 문화시설 수가 전국 평균보다 한 단위 더 높은 지역에서는 교육년수에 따른 사회자본 증가율이 0.347만큼 줄어든다. 지역소득의 증가와 문화시설의 확충은 학력별 사회자본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소득별 격차에는 지역내총생산(유의수준 10%)과 공공지출(유의수준 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_{4k} 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수, 문화시설 수, 범죄발생, 공공지출이 전국 평균 수준인 지역에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사회자본 크기 격차는 0.651이지만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평균보다 한단위 더 높은 지역에서는 이 격차가 0.000024만큼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전국 평균보다 한단위 더 높은 지역에서는 이 격차가 오히려 5.527만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득 수준의 증가는 개인의 소득 간 사회자본 격차를 미미하지만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소득 간 격차를 더 크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b_{5k} 의 계수들은 지역수준 변수들 중 그 어느 것도 종교 유무

에 따른 사회자본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내총생산이 평균보다 더 높은 지역이든 아니든,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높은 지역이든 아니든,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간의 사회자본 규모 격차는 0.479정도로 일정하다.

〈표 4-4〉 다층모형 분석결과

| 1층 모형의 독립변수 | 2층 모형의 독립변수 | 2층 모형의 계수 | 표준오차 | t-ratio | 자유도 | 유의 확률 |
|-------------|-----------------|-----------|----------|---------|------|-------|
| 절편 a_0 | 절편 b_{00} | -2.155785 | 0.148979 | -14.470 | 96 | 0.000 |
| | 지역내총생산 b_{01} | 0.000038 | 0.000024 | 1.580 | 96 | 0.117 |
| | 사업체수 b_{02} | 1.298465 | 1.066155 | 1.218 | 96 | 0.227 |
| | 문화시설수 b_{03} | 1.409388 | 2.400536 | 0.587 | 96 | 0.558 |
| | 범죄발생 b_{04} | 0.001395 | 0.011701 | 0.119 | 96 | 0.906 |
| | 공공지출 b_{05} | -1.684313 | 2.976799 | -0.566 | 96 | 0.572 |
| 성별 a_1 | b_{10} | 0.737280 | 0.119047 | 6.193 | 1102 | 0.000 |
| | b_{11} | 0.000002 | 0.000014 | 0.169 | 1102 | 0.866 |
| | b_{12} | -0.331430 | 0.925745 | -0.358 | 1102 | 0.720 |
| | b_{13} | 0.062268 | 1.849020 | 0.034 | 1102 | 0.973 |
| | b_{14} | -0.012767 | 0.008585 | -1.487 | 1102 | 0.137 |
| | b_{15} | 2.019790 | 2.202093 | 0.917 | 1102 | 0.360 |
| 취업여부 a_2 | b_{20} | 0.747231 | 0.133638 | 5.591 | 1102 | 0.000 |
| | b_{21} | 0.000035 | 0.000015 | 2.279 | 1102 | 0.023 |
| | b_{22} | 0.693465 | 1.646643 | 0.421 | 1102 | 0.673 |
| | b_{23} | 5.070520 | 1.738601 | 2.916 | 1102 | 0.004 |
| | b_{24} | 0.012709 | 0.007124 | 1.784 | 1102 | 0.074 |
| | b_{25} | 4.135429 | 2.489408 | 1.661 | 1102 | 0.097 |
| 학력 a_3 | b_{30} | 0.075446 | 0.012422 | 6.073 | 1102 | 0.000 |
| | b_{31} | -0.000004 | 0.000002 | -2.400 | 1102 | 0.017 |
| | b_{32} | -0.021065 | 0.128418 | -0.164 | 1102 | 0.870 |
| | b_{33} | -0.346513 | 0.199259 | -1.739 | 1102 | 0.082 |
| | b_{34} | -0.000061 | 0.001131 | -0.054 | 1102 | 0.958 |
| | b_{35} | 0.131824 | 0.272805 | 0.483 | 1102 | 0.629 |

| 1층 모형의 독립변수 | 2층 모형의 독립변수 | 2층 모형의 계수 | 표준오차 | t-ratio | 자유도 | 유의 확률 |
|-------------|-------------|-----------|----------|---------|------|-------|
| 소득 a_4 | b_{40} | 0.651832 | 0.129876 | 5.019 | 1102 | 0.000 |
| | b_{41} | -0.000024 | 0.000014 | -1.735 | 1102 | 0.083 |
| | b_{42} | -0.437984 | 1.228006 | -0.357 | 1102 | 0.721 |
| | b_{43} | -1.998823 | 1.998100 | -1.000 | 1102 | 0.318 |
| | b_{44} | 0.004780 | 0.008301 | 0.576 | 1102 | 0.564 |
| | b_{45} | 5.526840 | 2.600559 | 2.125 | 1102 | 0.034 |
| 종교 a_5 | b_{50} | 0.478673 | 0.111552 | 4.291 | 1102 | 0.000 |
| | b_{51} | 0.000008 | 0.000011 | 0.670 | 1102 | 0.503 |
| | b_{52} | -0.375986 | 1.303130 | -0.289 | 1102 | 0.773 |
| | b_{53} | 0.871172 | 1.527871 | 0.570 | 1102 | 0.568 |
| | b_{54} | -0.010100 | 0.006279 | -1.609 | 1102 | 0.108 |
| | b_{55} | -1.151083 | 2.072398 | -0.555 | 1102 | 0.578 |

제7절 정책적 시사점

이 장에서 실시한 다층모형의 결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몇 가지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의 평균적인 사회자본의 규모를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개입으로 확충시키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역내 총생산을 증대시키거나 사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을 유발시키거나 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범죄발생을 억제하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지역거주민의 평균적 사회자본 규모의 수준을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개인의 사회자본의 평균적 크기는 정책수단을 통한 공공의 개입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사례를 실제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정책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있어서 간접적인 정책이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내의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유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퍼트남을 비롯한 많은 사회자본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의 장려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

적인 영향을 가지며, 또한 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퍼트남은 미국의 지역공동체 모임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며, 최근의 공동체의 쇠퇴를 통해서 사회자본의 감소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한 바 있다. 한국 사회는 지역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사무소와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스포츠를 비롯한 여가생활의 장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의 지역 수준의 연결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기관의 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이 주민 간의 연결망으로 적극적으로 발전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주민 간의 연결망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적 분석에서 재정 지출을 증대하고 문화시설을 확충시키면 사회자본의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준다. 공공 지출도 마찬가지로 공공 지출의 확대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사회자본 격차를 증폭시킨다. 문화시설을 확충할 경우에도 취업자·비취업자 간 사회자본의 격차가 더 커진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자본을 확충하고, 계층 간 사회자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activity)들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민참여 활동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interactive) 활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마련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알게 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유도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8절 소결

사회자본 크기에 대한 지역효과를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변수가 1층 모형의 절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추정 결과는 지역내총생산을 증대시키거나 사업체를 유지하여 고용을 유발시키거나 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범죄발생을 억제하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개인의 평균적 사회자본 규모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책수단을 통한 공공의 개입으로는 개인의 사회자본의 평균적 크기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부터 우리는 지역 수준의 정책적 개입은 사회자본의 차등적 분포를 시정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역 수준의 변수들은 개인의 사회자본 규모의 차등적 분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우선 성별 사회자본 격차와 종교유무별 격차는 지역 수준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이는 지역소득 수준의 증대, 사업체의 유치, 문화시설 확충, 범죄억제, 재정 지출 확대 등의 정책수단 이외의 다른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와 종교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다른 정책적 노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서 하는지는 추후 새로운 지역수준 변수의 추가를 통한 새로운 모형의 추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와 종교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정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재정 지출의 증대와 문화시설의 확충은 사회자본 크기의 격차를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지출의 확대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사회자본 격차를 증폭시킨다. 문화시설의 확충은 취업자·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를 더 벌려놓는다. 이는 현행 공공지출 방식이나 문화시설 지원 방식이 낡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공공지출의 규모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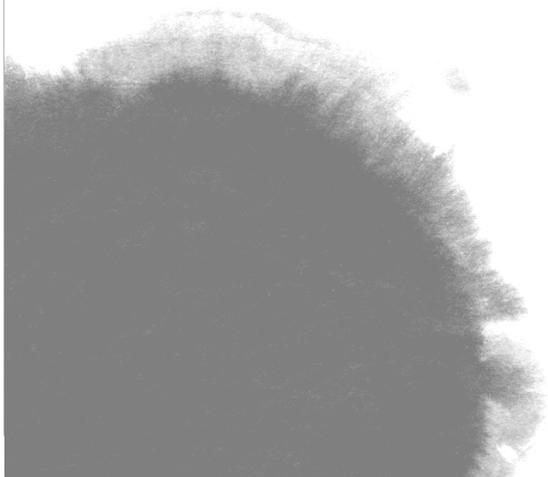
방식, 문화시설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자본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재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문화시설의 확충은 여러 사회자본 격차 중에서 학력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문화시설의 증가는 학력에 의한 사회자본 크기의 증가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자본이 학력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메커니즘에 의해 문화시설 수가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구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여러 사회자본의 차등적 분포가 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며, 달리 말하자면 정책적 개입이 사회자본의 차등적 분포를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회자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할 때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05

양극화와 사회자본 4: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이 취업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제5장 양극화와 사회자본 4: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이 취업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제1 절 사회적 연결망과 노동시장 성과

1. 사회적 연결망과 일자리 탐색

제1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자본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업성취 및 지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자본과 노동시장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는 구직과정에서 사회자본이 일자리 탐색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며, 일자리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예, Granovetter, 1974, Mouw, 2003, 이정규, 2001; 2003).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으로서 연결망은 구직기간의 단축과 아울러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구직자가 사전에 일자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능력 및 성향을 일자리의 특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직 이후의 업무성과 및 근속기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연결망이 일자리 탐색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공식적 연결망이며, 둘째는 비공식적 연결망이다. Granovetter(1982)는 사회적 연결망 중에서도 약한 네트워킹이 구직과정에 더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강한 연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중첩적이며 제한적이지만 약한 연결망

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식적 연결망은 비공식적 연결망에 비해 연결망의 결속정도가 느슨한 편이며, 따라서 그 범위가 보다 다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구직과정에서의 공식적 연결망과 비공식적 연결망의 분류는 직업안내기관, 신문광고, 기업체 방문, 학교 등이 공식적 연결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반면, 가족, 친지, 교수 등은 비공식적 연결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구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및 공식적 연결망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중첩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 연결망에 비해 비공식적 연결망이 더 효과적이라든지 그 역의 방향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단정적 논의가 진행되기 보다는 상대적 효과 또는 1차적 또는 주된 연결망 활용과 2차적 또는 부차적인 연결망 활용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결망의 속성상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를 통한 교수 추천 등으로 구직에 성공한 경우, 이론적 분류에 따라서는 공식적 연결망을 통한 비공식적 연결망이 취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어느 한 유형의 연결망의 효과에 대한 해석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결망을 통한 일자리 탐색 및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요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네크워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연결망의 크기 및 유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이용하는 네크워크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예, Marsden, 1987). 이와 같은 연구들은 비록 남성과 여성의 연결망의 차이가 비슷할지라도 연결망의 구성 및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는 공식영역에서의 연결망 유형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중심으로 비공식적 연결망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Gwen, 1990).

2.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일자리 탐색

경제적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간수준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일자리로 양분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양극화로 발전된다는 점이 강조된다(예, Morris, et al., 1994; Wright and Dwyer, 2003).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간수준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화이트칼라 사무직종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초대졸 이상의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흡수하였던 화이트칼라 사무직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이들 근로자들을 저임금 또는 서비스직종으로 이동하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하향이동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양극화 과정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지적된다.

일자리 양극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흑인이나 여성들보다는 백인 남성의 일자리 하향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층에서 일자리 하향이동 및 임금손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Morris, et al., 1994; Wright and Dwyer, 2003). Goos와 Manning(2003)은 영국에서 1979~99년간 세부직종별 일자리 증가가 임금수준의 양극단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Goos(2005)는 또한 1975년 이후 1999년까지의 시기에서 영국의 일자리 양극화(고임과 저임직종 비중의 증가) 추이분석을 통하여, 고용의 질을 중간임금을 기준으로 정의할 때, 저임금 서비스적인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금융 및 사업서비스 내 전문관리직)도 급증하지만 중간직(사무직, 숙련제조직)은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의 단순서비스직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사무직 및 숙련제조업종의 일자리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섬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성

장 산업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는데, 이들 부문의 저성장은 특히 여성이 많은 업종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민승규 외,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양극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양극화는 상호 원인이며 결과를 낳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양극화 추이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노동시장의 일자리 양극화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및 구성유형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추론될 수 있다. 개인의 구직과정 및 결과에 사회적 연결망이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가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 및 구성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직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주요변수로 사회적 연결망과 가구소득 수준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추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및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양극화는 고학력·전문직 일자리보다는 중간수준 이하의 학력과 단순사무직 일자리를 소멸 또는 질적으로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경제위기와 더불어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해체 또는 약화현상은 신입보다는 숙련된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구인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구직이 이전에 비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인적자원을 축적할 기회가 축소되고, 사회적 연결망을 보다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더불어 감소하며,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과 연결망의 단조로움과 빈약함은 노동시장에서의 구직기간과 일자리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일자리의 양극화가 강화될 수 있으며, 상위 일자리는 보다 양질의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하위 일자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본 장은 이상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구직방법 및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경제적 양극화의 한 결과물이며, 다시 사회적 연결망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의 내용은 첫째, 개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이용한 개인들의 인적 연결망의 종류를 살펴보고, 인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른 구직기간을 포함한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적 수준과 연결망 특성, 그리고 일자리 수준의 특성을 살펴본다. 가구소득 수준을 경제적 수준의 지표로 활용하여 구직방법 및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수준과 개인이 입직에 활용한 연결망의 특성이 일자리에서의 월 평균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가구소득과 연결망 유형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배경과 연결망 유형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기제임을 밝히고 향후 그 가능성을 정도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자료 및 방법론

본 장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연결망과 노동시장 성과 추이를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자료가 처음 수집된 1998년부터 종사했던 일 자리의 특성을 포함한 개인의 직업력, 생애사건,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들(예: 가구소득, 학력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각 일 자리에 진입하는데 활용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임금수준, 근로시간,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매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장의 분석에서 초점이 되는 변인들은 구직기간 유무 및 구직방법, 그리고 가구소득분위별 구직방법과 일자리 특성이다. 구직기간의 유무는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현재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구직기간이 있었는가에 대한 응답을 채택하였으며, 구직기간이 있는 경우, 주단위로 환산하여 그 구직기간을 계산하였다. 또한 구직방법은 구직기간이 있었던 응답자에 대해서 공식적·비공식 경로를 이용한 구직방법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가족, 친지로부터 직업훈련기관, 사설직업소개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직방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 구직방법(공식적 연결망)과 비공식적 구직방법(비공식적 연결망)로 재분류하였다. 비공식적 구직방법은 가족, 친인적, 친구, 교사, 교수, 스승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외의 구직방법은 공식적 구직방법으로 재분류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구직방법을 일자리 진입을 위한 연결망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문제는 구직활동기간이 없었던 응답자들에게는 구직방법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일정기간 직업탐색을 위한 시간을 할애한 경우에만 그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구직방법에 대해서 설문문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직기간 없이 바로 현재 일

자리에 입직한 경우에는 활용한 연결망 유형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직기간이 없었던 응답자의 경우에는 구직방법은 “연결망 활용 없었음”이 아니라 “구직기간 없었음”으로 코딩되었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은 전체 4분위로 분류하여 1분위부터 4분위까지 분류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연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뿐 아니라 저축, 보험, 수당, 자산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범주로 가구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소득은 이러한 다양한 분류의 가구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평균 가구소득을 4분위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외에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본 장의 분석구성은 첫째, 사회적 연결망, 가구 경제 수준, 그리고 노동시장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둘째, 로버스트 회귀분석(robust regression)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인들은 다양하다. 개인의 임금 수준, 근속 기간, 노동시장 경력, 교육훈련 정도 등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본 연구는 일자리에에서의 개인의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성과를 측정한다. 임금을 노동시장성과 측정변인으로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연결망을 매개로 하여 노동시장 성과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더불어 강화시킨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의 양극화는 다시 사회전반적인 경제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과 가구소득 수준의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3절 분석

1. 연결망 활용 여부 및 유형과 가구소득 계층

전체 분석 대상자의 중위 가구소득은 약 1780만원이며, 이중 남성은 중위 가구소득 약 1730만원, 여성은 약 1800만원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중위 가구소득이 약 70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주기의 경우, 구직방법 중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구직을 한 경우가 가구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약 2370만원인 반면,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입직한 경우는 가구소득이 가장 낮아서 약 10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주기의 경우, 가족을 통해서 구직한 경우의 가구소득이 약 3610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직한 경우 중위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약 720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5-1〉 가구소득

단위: 주기(spells, %), 만원

| | | 전체 | 중위 가구소득 |
|----------------------------|----------------------------|---------------|-------------|
| 전체 | | 1,996 | 1780.0 |
| 남 자 | 전체 | 1,053 (100.0) | 1731.0 |
| | 학교,학원의 취업정보,알선을 통해 | 81 (7.7) | 1444.0 |
| | 교사,교수,스승을 통해 | 35 (3.3) | 1512.0 |
| | 친구,친지들을 통해 | 311 (29.5) | 1590.0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3.0) | 1080.0 |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2.5) | 1200.0 |
| | 신문,TV,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13 (20.2) | 1560.0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46 (4.4) | 1560.0 |
| | 가족을 통해 | 14 (1.3) | 2220.0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84 (17.5) | 2370.0 |
| | 취업하고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4.7) | 1656.0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47 (4.5) | 1778.0 |
| | 기타 | 15 (1.4) | 925.0 |
| | 여 자 | 전체 | 943 (100.0) |
| 학교,학원의 취업정보,알선을 통해 | | 63 (6.7) | 2008.0 |
| 교사,교수,스승을 통해 | | 32 (3.4) | 1500.0 |
| 친구,친지들을 통해 | | 219 (23.2) | 1460.0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 25 (2.7) | 900.0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 31 (3.3) | 1520.0 |
| 신문,TV,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 231 (24.5) | 1980.0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58 (6.5) | 960.0 |
| 가족을 통해 | | 13 (1.4) | 3610.0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 174 (18.5) | 3163.0 |
| 취업하고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 48 (5.1) | 720.0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 25 (2.7) | 1260.0 |
| 기타 | | 24 (2.5) | 600.0 |

세분화된 직업탐색 방법이 아닌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른 연결망 유형별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구직활동이 없었던 경우 평균 가구소득은 약

2329만원으로 현재일자리 진입을 위해 구직기간이 있었으며, 연결망을 활용한 사람들의 가구소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이로서, 남성의 경우 구직기간 없이 바로 입직한 경우는 약 2361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경우에는 약 207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들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구직활동기간 없이 바로 현재 일자리에 입직한 경우는 약 2300만원인 반면,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진입한 경우는 약 21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공식적 연결망과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여성의 가구소득 격차는 남성에 비해 약간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 성별, 연결망 유형별 가구소득

단위: 주가(spells), 만원(평균값)

| 연결망 유형 | 전체 (4643) | 남자 (2314) | 여자 (2329) |
|------------|--------------|--------------|--------------|
| 구직활동 기간 없음 | 2329 | 2361 | 2301 |
| 공식적 연결망 | 2254 | 2222 | 2276 |
| 비공식적 연결망 | 2098 | 2054 | 2144 |
| 전체 | 2273 | 2275 | 2272 |

가구소득에 따른 직업탐색에 사용한 연결망 유형을 살펴보면(〈표 5-3〉), 구직활동기간이 없는 경우가 모든 가구소득 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비공식적 연결망 보다는 공식적 연결망을 통해서 현재 일자리에 진입한 비율이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 하위 25%인 1분위의 남성의 경우, 공식적 연결망을 통해서 현재 일자리에 진입한 비율이 약 28.4%인 반면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비율은 약 17.5%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1분위에 속하는 여성들의 경우, 공식적 연결망 활용이 남성보다 더 높은 약 33.5%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4분위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들도 이러한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현재 직

장에 입직한 비율이 약 24.0%인 반면, 여성은 약 32.0%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분위 가구소득자들과 비교해서 한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추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에 진입하기 전에 구직활동기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연결망의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을 위한 대기기간 없이 바로 현재 일자리에 입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5-3〉 가구소득에 따른 연결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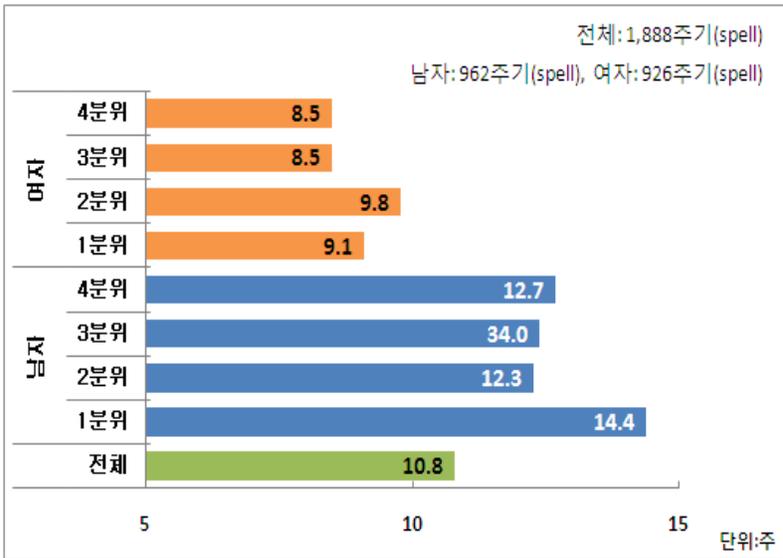
단위: %

| 네트워크유형 | 가구소득수준 | | | | | | | | | | | |
|-----------|--------|-------|-------|-------|-------|-------|-------|-------|-------|-------|-------|-------|
| | 1분위 | | | 2분위 | | | 3분위 | | | 4분위 | | |
|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 구직활동기간 없음 | 54.1 | 50.9 | 52.4 | 56.5 | 56.3 | 56.4 | 59.9 | 59.9 | 59.9 | 61.8 | 55.9 | 58.6 |
| 공식적 네트워크 | 28.4 | 33.5 | 31.1 | 25.0 | 28.6 | 27.0 | 22.4 | 28.4 | 25.6 | 24.5 | 32.0 | 28.6 |
| 비공식적네트워크 | 17.5 | 15.6 | 16.5 | 18.5 | 15.1 | 16.6 | 17.7 | 11.8 | 14.5 | 13.7 | 12.1 | 12.8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N=4643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분위에 속하는 남성주기의 구직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서 약 14.4주인 반면, 2분위의 가구소득에 포함되는 남성주기는 약 12.3주의 구직기간을 가져서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별 구직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긴 구직기간을 나타낸 것은 2분위에 속하는 여성 집단으로서 약 9.8주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 가구소득에 따른 구직기간



2. 구직 연결망과 일자리 특성

본 절에서는 현재 일자리 진입을 위한 구직기간 여부 및 구직기간이 있던 경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연결망 활용 여부에 따라 구성된 연결망 유형 변수를 이용하여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아래의 <표 5-4>의 연결망 유형별 산업 및 직업 내 여성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구직활동기간 없이 바로 현재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와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남성은 일자리의 여성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가 일자리 여성비율이 가장 높아서 약 37.8%인 반면,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현재 일자리에 진입한 남성은 약 33.7%의 여성이 분포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여성비율이 높은 일자리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구직활동기간 없이 현재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 일자리의 여성비율이 약 63.2%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또한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일자리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약 59.7%).

선행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성별분리도를 측정할 때 여성비율이 70-80% 이상인 경우를 여성집중 일자리로 분류하며, 여성비율이 20-30% 미만일 경우에는 남성집중 일자리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Bielby and Wharton, 1992). 이러한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본 분석자료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이 여성집중 일자리보다는 보다 혼합된 일자리에 분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4> 성별, 연결망 유형별 산업 및 직업 내 여성 비율

단위: 주기(spells), %

| 연결망 유형 | 전체 (4643) | 남자 (2314) | 여자 (2329) |
|------------|--------------|--------------|--------------|
| 구직활동 기간 없음 | 51.20 | 37.53 | 63.21 |
| 공식적 연결망 | 51.36 | 37.81 | 60.99 |
| 비공식적 연결망 | 46.28 | 33.68 | 59.70 |
| 전체 | 50.48 | 36.94 | 62.07 |

주: N=4643

일자리 진입에 활용한 연결망 유형에 따른 종일제 취업비율을 살펴보면 (<표 5-5> 참고), 구직활동기간 없이 취업한 경우 종일제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결망을 활용한 경우에는 비공식적 연결망보다는 공식적 연결망을 통해서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 종일제 취업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 연결망 유형별 종일제 취업비율

단위: 주기(spells), %

| 연결망 유형 | 전체 (4643) | 남자 (2314) | 여자 (2329) |
|-----------|--------------|--------------|--------------|
| 구직활동기간 없음 | 57.3 | 58.3 | 56.5 |
| 공식적 연결망 | 27.3 | 24.6 | 21.4 |
| 비공식적 연결망 | 15.4 | 17.2 | 13.8 |
| 전체 | 100.0 | 100.0 | 100.0 |

연결망 유형별 정규직 입직비율을 살펴보면, 구직활동기간 없이 일자리에 입직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기간 없이 바로 입직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약 78.3%로 남성보다 약 20%p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연결망 활용에 따른 정규직 입직 비율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여성은 공식적 연결망에 의존하여 입직한 경우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연결망 유형별 정규직 취업비율

단위: 주기(spells), %

| 연결망 유형 | 전체 (4643) | 남자 (2314) | 여자 (2329) |
|------------|--------------|--------------|--------------|
| 구직활동 기간 없음 | 59.3 | 58.9 | 78.3 |
| 공식적 연결망 | 22.5 | 21.1 | 23.7 |
| 비공식적 연결망 | 18.3 | 20.0 | 16.7 |
| 전체 | 100.0 | 100.0 | 100.0 |

일자리 진입을 위해 활용한 연결망 유형별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7>과 같다. 전체적으로 구직활동기간 없이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는 평균 약 101만원 정도 월평균 임금을 받는 반면,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경우에는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경우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5만원 vs. 87.6만원). 남성의 경우에는 비공식적

연결망을 이용하여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높아서 약 126.4만 원 정도인 반면, 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약 1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7〉 연결망 유형별 월평균 임금

단위: 주기(spells), 만원

| 연결망 유형 | 전체 (4643) | 남자 (2314) | 여자 (2329) |
|------------|--------------|--------------|--------------|
| 구직활동 기간 없음 | 101.4 | 125.5 | 79.7 |
| 공식적 연결망 | 87.6 | 110.1 | 71.5 |
| 비공식적 연결망 | 105.3 | 126.4 | 82.3 |
| 전체 | 98.3 | 121.9 | 77.6 |

여성의 경우도 남성의 임금 추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비공식적 연결망 활용 시 가장 높은 월평균 임금을 받는 반면, 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입직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자료에서 여성이 남성임금의 약 63.7%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구직활동기간 없이 바로 입직한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약 63.5%).

3. 사회적 연결망과 가구소득 수준이 임금이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본 절은 앞서 살펴본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과 가구소득 수준이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의 <표 5-8>의 기술적 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회귀분석에 포함된 전체 사례수는 793명이며, 이 중 남성은 416명, 여성은 377명이다. 종속변수인 월평균임금은 극단치값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로그화된 값을 적용하였다. 월평균 임금의 중간값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120만원이며, 남성은 167만원, 여성은 남성의 약 1/2수준인 85만원 정도로 나

타났다. 그리고 여성비율은 전체 중 약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결망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구직활동기간이 없었던 경우, 둘째는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경우이다. 현재 일자리 진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7.3%이며, 이중 남성은 약 58.2%, 여성은 약 56.6%로 나타났다. 즉, 분석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구직활동기간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서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비율은 약 27.3%이며, 남성은 약 24.5%, 여성은 29.7%로서 남성보다 여성이 구직을 위해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현재 일자리에 진입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15.4%이며, 남성은 약 17.3%, 여성은 약 13.8%로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공식적 연결망 활용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계층화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가구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1분위(하위 25%)의 비중을 살펴보면 약 13.7%이며, 이 중 남성은 약 12.3%, 여성은 15.5%로서 여성집단의 가구소득 1분위 분포가 남성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 2분위는 약 21.1%이며, 남성은 약 20.9%, 여성은 약 21.3%로 나타났다. 3분위 가구소득에 속하는 남성비중은 약 31.7%인 반면 여성은 28.3%로서 남성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4분위, 최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은 약 35.2%이며, 여성은 35.0%로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포를 통해서, 분석대상자들 중 여성은 가구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남성은 중위나 상위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약 3.7년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약 4.9년이고 여성은 약 2.8년으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년 정도 더 오래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극단치의 효과를 중재하기 위해서 로그화된 값을 취하였다. 로그화된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일자리 특성은 산업과 직종 내 여성비율이다. 산업과 직종 간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로 산정한 산업 및 직종 내 여성 비율의 평균은 약 46.0%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여성비중은 약 32.8% 반면,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여성비중은 약 61.8%로서 남성은 주로 남성일자리에 여성은 주로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모델의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변수는 전체 노동시장 경력과 학력 수준이다. 우선 전체 노동시장 경력을 살펴보면, 전체 노동시장 경력도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게 분석되었다. 남성은 약 9.6년인데 반해 여성은 약 6.4년으로서 약 3년 정도 남성이 여성보다 긴 노동시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고졸미만의 학력집단은 분석 대상자들 중 약 16.1%였으며, 남성은 약 14.4%, 여성은 약 20.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석대상자의 비율은 남성이 약 37.6%, 여성은 42.8%로 나타났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남성은 약 48.1%이고, 여성은 약 36.5%로서, 고졸이하의 학력집단은 여성이 높은 반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비중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인 5집단으로 분류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5-34세 연령 집단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서 약 42.9%인 반면, 55-65세 연령집단은 약 5.0%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25-34세 연령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약 50.9%인 반면, 55-64세 연령집단은 약 5.0%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15-24세 연령집단과 25-34세 연령집단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면서, 각각 32.1%와 32.9%를 보이고 있다.

〈표 5-8〉 기술적 통계¹²⁾

단위: 주기(spells), %, 만원, 중간값

| 변수 | 전체 | 남성 | 여성 |
|-----------------|-------|-------|-------|
| | (793) | (416) | (377) |
| 월평균임금(만원, 중간값) | 120.0 | 167.0 | 85.0 |
| 로그화된 월평균임금(중간값) | 4.8 | 5.1 | 4.5 |
| 여성 | 45.6 | - | - |
| 연결망 구직활동없었음 | 57.3 | 58.2 | 56.6 |
| 연결망 공식적 연결망 | 27.3 | 24.5 | 29.7 |
| 연결망 비공식적 연결망 | 15.4 | 17.3 | 13.8 |
| 가구소득 1분위 | 13.7 | 12.3 | 15.5 |
| 가구소득 2분위 | 21.1 | 20.9 | 21.3 |
| 가구소득 3분위 | 30.2 | 31.7 | 28.3 |
| 가구소득 4분위 | 35.1 | 35.2 | 35.0 |
| 근속기간(년, 중간값) | 3.7 | 4.9 | 2.8 |
| 로그화된 주당평균 근로시간 | 4.0 | 4.0 | 4.0 |
| 직종x산업내 여성비율 | 46.0 | 32.8 | 61.8 |
| 노동시장경력(년, 중간값) | 8.0 | 9.6 | 6.4 |
| 학력 고졸미만 | 16.1 | 14.4 | 20.7 |
| 학력 고졸 | 41.3 | 37.6 | 42.8 |
| 학력 초대졸이상 | 42.6 | 48.1 | 36.5 |
| 연령집단 15-24 | 21.8 | 13.7 | 32.1 |
| 연령집단 25-34 | 42.9 | 50.9 | 32.9 |
| 연령집단 35-44 | 19.8 | 20.5 | 19.0 |
| 연령집단 45-54 | 10.4 | 9.9 | 11.1 |
| 연령집단 55-64 | 5.0 | 5.0 | 5.0 |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로버스트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9>와 같다. 모델 I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며, 모델 II는 남성, 모델 III은 여성집단의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우선 모델 I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 33.1%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비공식적

12) 임금분석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앞서 가구소득과 연결망유형에 따른 일자리 특성에 포함된 사례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석자료가 근로시간에서의 결측치가 많은 한계에 기인한다.

연결망 활용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구직기간이 없이 바로 현재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집단보다 약 3%정도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집단은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집단에 비해 약 13.2% 정도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최하위층인 1분위 집단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2분위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3분위, 4분위에 속하는 집단은 1분위 집단에 비해 각각 13.5%와 32.4% 정도의 임금상승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하위 50%정도까지의 집단은 임금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특성 중 직종 및 산업 내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 1%가 상승할 때마다 임금은 약 28%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직종 및 산업 내 여성비율이 임금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집단 효과를 살펴보면, 24-34세 집단을 기준으로 15-24 연령집단은 약 27.6% 정도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35-44세는 24-34세 집단에 비해 약 10.9% 정도 임금상승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모델 II에 나타난 남성집단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집단과 비교했을 때 남성집단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결망 유형에서도 비공식적 연결망 보다는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경우, 약 19.2%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이 상위 50% 이상인 경우에 임금상승효과가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 2분위와 1분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3분위는 1분위보다 약 13.0% 정도의 임금상승을 경험하며, 4분위 경우에는 약 33.9% 정도의 임금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직종 및 산업 내 여성비율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비율 1%가 증가할 때마다 남성근로자들은 약 29.6%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 대상 분석에서 나타난 약 28.0%보다 1.6%p 정도 높은 것으로서 남성근로자가 여성집중 일자리에 취업했을 때 임금손실이 전체집단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 효과에서는 고졸미만과 고졸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초대졸 졸업자는 고졸집단에 비해 약 20.3%의 임금상승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집단의 효과를 살펴보면, 24-34세 집단에 비해 15-24세 집단은 약 39.5%의 임금손실효과를 갖는 반면, 35-44세 집단은 약 31.5%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체 대상의 10.9%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높은 임금상승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모델 III에 나타난 여성집단의 임금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구직에 활용한 연결망 유형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이나 남성집단에서는 공식적 연결망 활용이 비공식적 연결망 활용과 비교했을 때 임금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연결망의 유형은 임금수준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1분위에 비해 2분위는 약 14.3%의 임금을 더 받으며, 3분위는 약 14.4%, 그리고 4분위는 약 33.7%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전체 대상 분석이나 남성집단 대상 분석에서는 1분위와 2분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3분위 이상의 가구소득 수준에서의 임금프리미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었다. 이에 반해 여성집단의 경우, 각 가구소득 분위별 임금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성집단과 비슷하게 가구소득 4분위에 속하는 경우, 다른 소득 수준집단에 비해 약 3배에 가까운 임금상승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및 산업 내 여성비율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비율의 증가는 약 25.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효과는 비교적 큰 임금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집단이 1%의 여성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약 29.6%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성은 약 4% 정도 임금손실을 적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력 수준의 효과에서도, 여성 초대졸자들은 고졸학력자에 비해 약 18.3%의 임금상승 효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살펴본 남성 집단의 초대졸자가 경험하는 약 20.3%와 비교하면 여성 초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중에서 남성집단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바로 연령집단의 효과이다. 여성의 경우, 24-34세 연령집단에 비해 15-24세 집단은 약 25.3%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35-44세 집단은 약 19.5%의 임금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5-65세 연령집단도 24-34세 연령집단에 비해 약 33.1%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35-44세 집단이 25-34세 집단에 비해 임금상승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그 이상의 연령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시기인 25-34세 연령집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집단이 25-34세 집단에 비해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연결망 유형 및 가구소득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분석

| | 모델 I 전체 | 모델 II 남성 | 모델 III 여성 |
|------------------------|---------------------|---------------------|---------------------|
| 여성 | -0.331** (0.034) | - - | - - |
| 연결망 유형 | | | |
| 구직기간 없었음 | -0.03 (0.04) | -0.046 (0.056) | -0.001 (0.062) |
| 공식적 연결망 | -0.132** (0.045) | -0.192** (0.065) | -0.049 (0.067) |
| (준거집단: 비공식적 연결망) | | | |
| 가구경제적 지위 | | | |
| 가구소득 2분위 | 0.093+ (0.05) | 0.078 (0.071) | 0.143* (0.067) |
| 가구소득 3분위 | 0.135** (0.047) | 0.130* (0.064) | 0.144* (0.067) |
| 가구소득 4분위 | 0.324** (0.055) | 0.339** (0.084) | 0.337** (0.071) |
| (준거집단: 가구소득 하위1분위) | | | |
| 일자리 특성 | | | |
| 근속기간(년) | 0.130** (0.031) | 0.201** (0.049) | 0.061 (0.039) |
| 근속기간(년) ² | -0.019** (0.004) | -0.025** (0.006) | -0.013* (0.005) |
| 로그화된 주당평균 근로시간 | 0.094 (0.077) | -0.058 (0.09) | 0.179 (0.124) |
| 직종x산업내 여성비율 | -0.280** (0.054) | -0.296** (0.076) | -0.252** (0.083) |
| 인적자본 수준 | | | |
| 학력 고평미만 | -0.097* (0.048) | 0.052 (0.06) | -0.085 (0.066) |
| 학력 초대졸이상 | 0.225** (0.042) | 0.203** (0.062) | 0.183** (0.053) |
| (준거집단: 학력 고평) | | | |
| 노동시장경력(년) | 0.012 (0.01) | 0.02 (0.013) | 0.007 (0.017) |
| 노동시장경력(년) ² | -0.001+ (0.00) | -0.001* (0.001) | -0.001 (0.001) |

| | 모델 I 전체 | 모델 II 남성 | 모델 III 여성 |
|------------------|---------------------|--------------------|---------------------|
| 인구학적 특성 | | | |
| 연령 15-24 | -0.276** (0.042) | -0.395** (0.06) | -0.253** (0.063) |
| 연령 35-44 | 0.109* (0.05) | 0.315** (0.065) | -0.195** (0.067) |
| 연령 45-54 | 0.049 (0.072) | 0.049 (0.105) | -0.044 (0.091) |
| 연령 55-64 | 0.097 (0.192) | 0.51 (0.331) | -0.331* (0.15) |
| (준거집단: 연령 24-34) | - | - | - |
| 상수 | 4.192** (0.325) | 4.864** (0.395) | 3.634** (0.527) |
| N | 793 | 416 | 377 |
| R2 | 0.437 | 0.432 | 0.272 |

주: (1) 로버스트 표준편차가 제시되었음
(2) + $p < 10\%$; * $p < 5\%$; ** $p < 1\%$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일자리 양극화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에 가는 함의는 공식적 연결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공식적 연결망보다는 비공식적 연결망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시설 및 공공직업소개소, 직업훈련소 등을 포함하는 공식적 구직방법을 통한 일자리 진입이 가족, 친지 및 친구 등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일자리 진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공공직업소개서나 직업훈련소를 통한 일자리들이 대부분 사회적 일자리, 비공식 부문 일자리, 또는 불안정 고용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과

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인력들이 대체적으로 교육 및 기술수준이 낮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식적 구직방법을 통한 낮은 임금의 일자리 진입은 이들 집단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직업소개소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공식적 구직방법을 통한 일자리 진입은 근로자들의 근로빈곤층화의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제5절 소결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지난 경제위기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추이 속에서 일자리 탐색에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을 살펴보고, 가구소득으로 대별되는 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연결망과 더 나아가서 구직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구소득의 양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서구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바 있듯이,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져왔으며,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아울러 화이트칼라 사무직 및 숙련기능직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와 “못은 일자리”로 양분되는 경향이 생겨났으며, 이에 기존에 중간수준의 일자리를 차지했던 근로자들은 하향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거나 경제적 지위가 불안한 계층의 경우에는 저임금 서비스직, 비정규 및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과정은 서구선진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연

성의 확대에 의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동시에 저임금 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대거 양산되었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는 근로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양분화시켰으며, 전문직·고임금 일자리가 아니면 불안정·단순저임금 일자리 구조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일자리 탐색에 활용한 연결망을 공식 및 비공식적 연결망, 그리고 구직기간 없이 바로 취업한 근로자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일자리 탐색 방법 및 기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공식적 구직방법은 주로 사설 및 공공직업안내소, 직업훈련소, 인력개발센터, 학교 등을 포함하며, 비공식적 구직방법은 가족, 친구, 친지, 교사, 교수, 전 직장 동료 등을 포함한다. 기술적 분석 결과, 임금수준이나 일자리에서의 여성 비율로 측정된 일자리의 질은 공식이나 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한 근로자들 보다는 구직활동기간 없이 바로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에서도 4분위에 속하는 집단에서 구직활동기간 없이 바로 입직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월평균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결망 유형, 가구소득 수준, 인적 자원 수준, 일자리 특성, 그리고, 연령집단 변수를 통제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의 경우 비공식적 연결망 활용이 공식적 연결망 활용보다 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유형의 연결망 유형도 임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 수준의 효과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상위 50% 이상인 집단에 속할 경우에만 임금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의 각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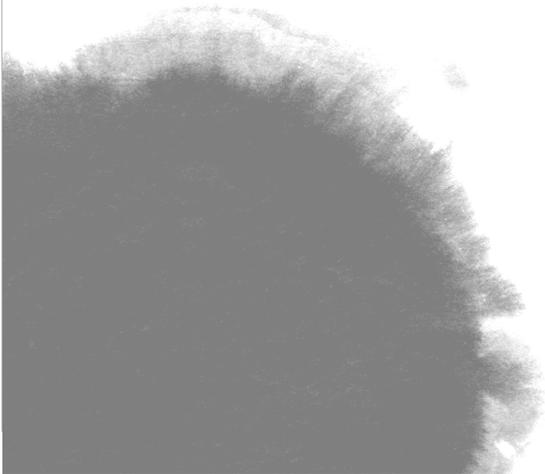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탐색에 가장 효과적인 탐색방법은 일차적으로는 구직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입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구직활동기간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일자리의 양극화와 더불어 연령에 따른 양극화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5-44세 연령대에 비해 여타 연령집단의 임금손실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고령층의 임금손실 수준이 크다는 점에서 젊은 층과 고령층의 빈곤화의 위험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구직방법에 활용된 연결망의 양극화, 그리고 임금으로 측정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결망의 크기와 질적 수준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분석상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결망의 활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0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 절 한국사회 사회자본 불균등 분포의 실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사회자본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자본은 경제적 자본(financial capital), 인적 자본(human capital) 등에 의해서 더 이상 설명되지 못하던 현상들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 각광받아 왔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의 시장에서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조명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여 가속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는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사회자본의 분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양극화와 사회자본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위의 질문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의 재생산에 가장 중요한 기제로 일컬어지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들 간 사회자본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3장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한 개인적인 속성들이 개인이 가진 사회자본의 총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계층을 나누는 중요한 속성으로 일컬어지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개인 수준의 속성을 넘어서 지역 수준의 특성들

이, 해당지역에 속한 행위자들의 사회자본의 총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구직과 관련하여 불균등하게 분포된 사회자본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한국사회의 계층과 사회자본

사회자본을 계층의 문제와 연결시켜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자본이 계층지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집중해 왔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자본이 개인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보유한 사회자본의 총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가? 하지만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행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자본을 종속변수의 위치에 놓고 이것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를 찾고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 한국의 사회자본은 사회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균등한 분포는 양극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학자들은 사회 연결망이 낙후된 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 역시 계층에 따라서 불균등하게 분포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각각 사회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회자본에 관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는 사회자본이 개인이 시장에서 얻는 기회와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데에 유리한 것으로 일컬어지는 속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자본을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극화의 재생산에 사회자본이 한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된다.

이번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사회 연결망, 다시 말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

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에 대한 참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정치적 조직부터, 여가를 위한 스포츠 조직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 여겨진다. 계층에 따라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지역 공동체의 모임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계층일수록 이러한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위 계층일수록 이러한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타난다.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시민들은 공식적으로 자원적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신뢰, 절제, 합의,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덕목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단이 증가하면 그 과정에서 집단들 사이에 서로 교차하는 연대가 형성되고 또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원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결국 다원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도 문제는 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서적인 소속과 헌신을 기울이는 집단은 자발적 결사이기 보다는 여전히 가정이나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서구사회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비서구 사회에서는 시민단체로 대변되는 자원적 결사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더라도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끈끈하고 긴밀한 정서적 연대는 강하게 남아 있다. 물론 그러한 연대의 원천은 바로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일차적 혹은 공동체적 조직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발적 결사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연결망을 보유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계층 간 자발적 결사에 대한 참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사회가 단지 경제적인 소득면에서 양극화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회문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자본

가. 청소년의 사회자본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교육의 영역에서의 사회자본도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거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도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생이 보유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첫째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이다. 아직 독립된 성인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위치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이다. 직관적으로 부모는 청소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수록 도움을 주지 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는 더욱 면밀하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감정적인 유대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해가 오고 가고 자녀가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지지를 받는 지는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는 통제이다. 통제는 청소년의 생활패턴, 인간관계, 성적 등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만큼 통제를 가하는가를 나타낸다. 감정적인 유대와 통제가 반드시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자녀의 심리상태를 잘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 깊은 유대를 갖고 있고, 자녀도 부모를 믿고 따르는 관계이나, 부모가 자녀의 생활패턴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 자녀와 감정적인 유대는 깊지 않으나 엄격한 통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감정적인 유대와 통제는 반드시 같은 측면은 아니며, 둘 다 청소년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측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유대나 통제와 다른 유형은 학대이다. 이것은 앞의 두 유대관계와는 반대로 순수히 부정적인 형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이 보유할 수 있는 두 번째 사회적 자원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이다. 많은 연구들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학생의 성적 향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일탈을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점은 선생님과의 유대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중학교 학생들보다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유대가 더 낮았고,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이 낮을 때에는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원하는 전통적인 ‘스승’의 모습이 있고, 이에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결정되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유대는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중 마지막은 교우관계이다. 교우관계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와 이 친구들과의 관계의 강도로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또래들 사이의 귀속감은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심리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나. 청소년 사회자본의 불균등 분포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부모의 계층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많은 부분 결정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자본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유대, 교사와의 유대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우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감정적 유대와 통제를 동시에 가하는 경향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낮은 계층의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 충분한 감정적 유대와 통제·감시기능을 높은 계층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고 따라서 감정적 유대와 통제의 기능을 더 강하게 수행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거나, 자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여지가 더 높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과 청소년의 교사와의 유대도 정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부르디외를 비롯한 많은 문화자본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의 가정에서는 사용하는 어휘의 종류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휘,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어휘의 종류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도 교사의 관심을 더욱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청소년의 교사와의 유대가 연결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의 원만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보의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자본의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자본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통계적인 결과는 교육의 분야에서도 사회자본을 통해 양극화의 계층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음의 소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학업성과 이탈행동과 관계가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계층의 대물림이 방지되거나 유지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부모의 계층이 어느 정도로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대물림이 결정된다. 최근 한국 사회는 심한 경제적·계층적 양극화를 겪고 있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계층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불균등의 문제부터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인생의 시작점부터 사회자본의 불균등을 겪고 있다. 최근에 큰 사회문제가 된 바 있는 ‘왕따’ 문제도 이러한 연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계층적 특성은 자녀의 사회자본, 특히 교우관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왕따 문제가 과연 어느 계층의 자녀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도 추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통한 분석에서 이러한 불균등의 분포는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의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계층 양극화가 청소년의 사회자본 양극화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양극화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 사이의 사회자본 불균등 문제, 그리고 부모의 계층이 청소년의 사회자본 불균등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이다.

3.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자본

노동시장 또한 한국사회의 경제양극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장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의 안정성이나 급여에 따라서 계층이 유지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안정된 자리를 점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삶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양극화에 관한 논의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많은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새롭게 빈곤층에 진입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전형적인 형태는 비정규직 고용 확대에 의한 근로 빈곤층이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계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간계급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간계급의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원인이기도 하다(신광영, 2008). 2004년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약 50-60%의 낮은 월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과 연금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계층에 따라서 연결망의 이용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구직기간이 없이 바로 입직을 한 사람들, 지인들을 통한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입직한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직업소개소 등의 공식적인 연결망을 통해 입직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구직기간이 없이 바로 입직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입직을 했는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구직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연결망을 통해서 입직을 하는가이다. 흥미로운 점은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식적인 연결망보다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통해 입직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즉, 상위계층의 구직자들이 하위계층의 구직자들보다 친구, 부모, 지인 등을 통한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입직을 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계층 간 연결망 이용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계층에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구직이라는 중요한 생애주기에 있어서 자신의 연결망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의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직기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입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구직기간을 가진 집단에서 상위계층일수록 입직이 가능할 정도의 연결망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하위계층의 경우에는 연결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연결망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입직을 하기는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경

제적 양극화가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분포에 의해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입직 자체를 떠나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주는 종일제/파트타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구직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의 소장에서 다시 설명할 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공식적 연결망을 사용한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 또한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분포가 다시 경제적인 계층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불균등한 사회자본과 양극화의 재생산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은 계층에 따라서 불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사회자본은 경제적 양극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시장에서 개인이 얻는 기회(opportunity)와 성과(performance)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한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 해 왔다. 이 장에서는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회자본이 계층 재생산의 어떠한 매커니즘이 되고 있는지 앞서 진행된 통계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자본의 재생산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은 청소년들 개인의 교육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청소년들의 학교성적에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 특히, 부모가 자녀와 감정적인 유대를 충실히 가질수록,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수록 자녀의 성적은 높았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자녀와의 관계의 많은 부분을 결정했었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라는 매개항을 통해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자녀의 성적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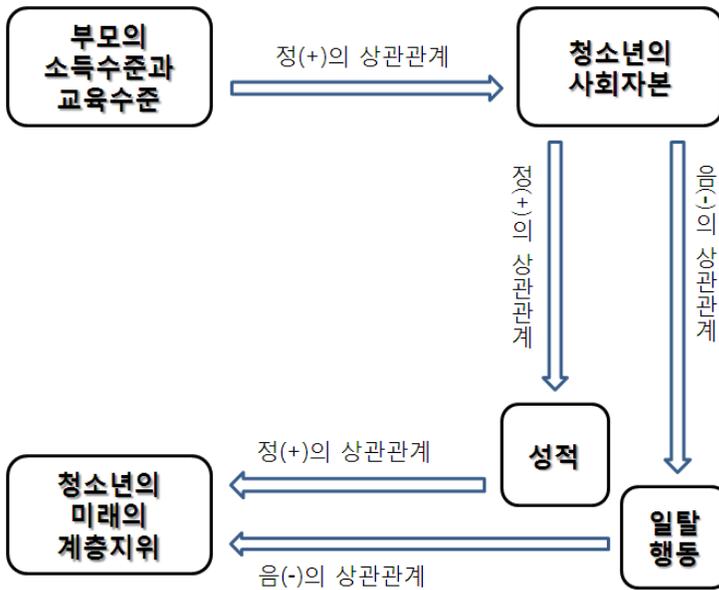
또한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자본은 일탈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의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부모와의 강한 연대를 갖고 있고, 통제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음주와 흡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을 통한 계층의 재생산은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 대안을 내 놓고 있다. 사교육비가 늘어날수록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통한 계층의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의 재생산을 밝혀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통한 재생산이다. 부모의 계층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양질의 사회자본을 갖게 된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 내재한 양질의 사회자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학교성적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일탈행동은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계층의 재생산에 있어서 성적의 효과는 많이 강조되어 온 바 있다. 한국사회와 같이 입시가 장래의 계층을 상당히 결정하는 사회에서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은 계층을 절대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적만이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일탈행동도 계층 재생산의 중요한 기제로 일컬어지고 있다.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contact theory)과 같은 이론이 제시하는 바도, 일탈적인 가치관에 많이 노출되었던 청소년은 일탈행동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일탈행동의 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소년원에 가거나 장래에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가 양극화 될수록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이 일탈행동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일탈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계층이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져 경제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기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일탈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림 6-1]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통한 양극화의 재생산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심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에는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청소년기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자녀가 선

생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사회자본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전체적인 방향과 달랐던 것은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이러한 일탈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친구들의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일탈행동이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타고 퍼져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탈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청소년은 그에 해당하는 일탈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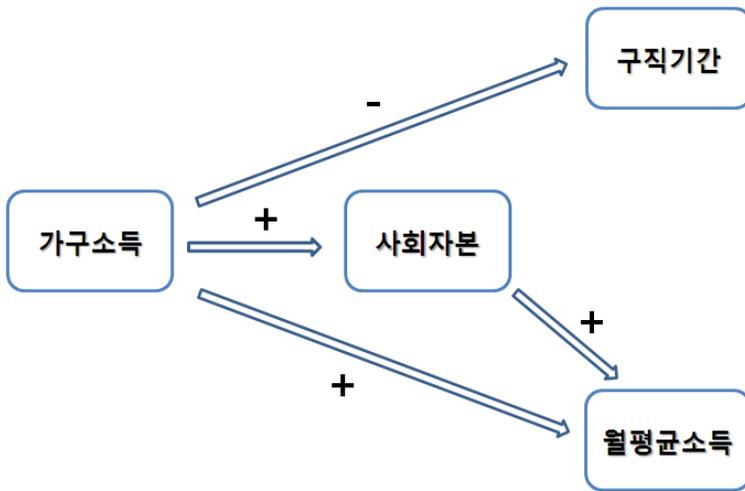
또한 많은 연구들이 연결망의 중심에 있는 학생일수록 일탈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교사들은 반에서 교우관계가 좋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학생일 경우, 이 학생의 행동이 연결망을 통해서 반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고 지도할 수 있다.

2.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자본의 재생산

노동시장에서 특히 남성의 경우 공식적인 연결망 경로를 이용한 사람들보다 비공식적인 지인 연결망을 이용하여 입직한 사람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이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도 사회자본에 의한 양극화의 재생산 매커니즘의 하나로 해석이 가능하다. 많은 연구들이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구직을 하였을 경우 임금수준이나 일자리의 질이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만족스럽다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구직과 구인을 할 경우, 중간의 매개인을 통해 사전적인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경우, 매개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연결망으로 구직하였을 경우에는 얻기 힘든 질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 실질적인 연봉의 정도, 업무실의 분위기, 동료들의 성향, 관리자의 성향, 장래의 승진

가능성과 같이 직업생활에 중요한 정보들을 매개자를 통해서 미리 입수할 수 있다. 고용인의 입장에서든 모집하고자 하는 직급의 특성, 원하는 특성 등을 매개인에게 미리 전달할 수 있고, 지원자의 개인적인 성향, 지원자의 요구 등을 미리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한 구직의 장점이다.

[그림 6-2]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의 재생산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또 다른 것은 월평균 임금 수준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가정의 소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계층이 양극화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나온 구직자의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것이다. 월평균 임금이 계층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통계분석의 함의는 매우 크다.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구직 시에도 평균 임금이 높은 직장을 구하고, 양질의 사회자본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구직기간을 가진 경우에도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더욱 높은 평균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직하기까지의 기간에도 영향을 미

쳤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구직자들이 구직기간이 없이 바로 입직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림 6-2>에 간단하게 시각화 되어 있다.

3.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지역효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과연 지역 수준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자본의 차등적 분포를 시정하는데 더 효과적일지를 알아봄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공공 지출의 규모나 배분 방식, 문화시설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자본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현정책의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정책 실행의 큰 방향을 그리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사회자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할 때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힐 수 있다.

연구결과 연령과 성별로도 사회자본의 크기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자본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컸다. 한편 종교집단 간에는 사회자본 크기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값의 단순비교에서는 종교가 없는 집단의 사회자본 크기가 가장 작고, 개신교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이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사회자본 크기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 집단과 비임금근로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자본의 크기는 거주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두 집단과 지방도 거주자 집단을 비교하면 후자의 사회자본 크기가 유의미하게 컸다. 이로써 우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이

나 기혼유배우자보다는 기혼무배우자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취업자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방 도 거주자들보다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자본의 취업여부 간 격차에 대한 지역변수의 효과를 보면, 지역내총생산(유의수준 5%), 문화시설 수(유의수준 1%), 범죄발생(유의수준 10%), 공공 지출(유의수준 10%) 등이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사회자본 격차를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나 문화시설 수, 범죄발생, 지역내총생산은 모두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의 사회자본 격차를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역 소득 수준의 증가는 개인의 소득 간 사회자본 격차를 미미하지만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소득 간 격차를 더 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3절 사회자본과 양극화 재생산에 대한 정책적 대안

1.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

향후의 정책방향은 사회 각 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의 사회자본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연대가 약해져 있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졌으나, 사실 1차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 개입의 여지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가족 내의 사회자본을 확충시키는 방안의 직접적인 정책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내에서 청소년들의 상담창구를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육현장의 상담창구는 성폭행이나 폭력피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에 찾아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창구의 기능과 접근성을 늘리는 것이 가족 내의 사회자본이 빈약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자본 격차를 줄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사회자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생님들과의 관계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일수록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고소득층 자녀들에 비해서 약하다고 진단되고 있다. 교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여 문제가 되는 학생들과 꾸준히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사 수의 확충이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교사 수가 확보되더라도 교사의 의식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학생들의 일탈행동은 학생들 사이의 연결망을 통해서 확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많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으며, 교우관계가 좋은 몇몇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일탈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자본이 결정되고, 이 사회자본이 성적과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교육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증명해준다.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가구소득이 양분화되는 경제적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아울러 화이트칼라 사무직 및 숙련기능직 일자리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도 양극화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거나 경제적 지위가 불안한 계층일수록 저임금 서비스직, 비정규 및 시

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자본의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양질의 사회자본을 확보하며, 구직기간을 가진 경우 이러한 사회자본이 일자리의 질과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수혜가 반드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연결망을 통한 구직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어서 오히려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전체의 사회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 및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계층에 속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일정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임금 수준 등을 포함한 근로 조건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들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일자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구직활동 및 일자리에 맞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을 통하여 희망일zur리에 적합한 기술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자리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진입 가능한 일자리와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직자들이 확보하는 기술의 유형과 수준이 진입 가능한 일자리와의 적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일자리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실업상태에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재직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일자리 연계지원도 필요하다.

3.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제언

재정 지출의 불평등 심화적 결과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재정지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소득 간 격차와 취업/비취업자 간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은 재정지출이 고소득자의 사회자본 축적을 더 유리하게 하고 취업자의 사회자본 축적을 더 유리하게 하여 기존의 소득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간접적(혹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지출의 이런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재정투입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재정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개발비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사회보장비는 단순 이전 지출로서 투자적 성격의 경비와는 거리가 멀다. 재정 지출 중에서 투자적 지출이 커져야 성장과 고용을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복지 수혜자로서의 수동적 위치에서 취업을 통한 능동적 자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확충되고 그것은 다시 취업기회와 경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촉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사회개발비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경상적 경비인 사회보장비 지출보다는 교육문화비, 지역사회개발비 등 투자적 성격의 경비를 더욱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더욱 늘림으로써 인적자본 개발 등 투자적 성격의 사업에 할애할 수 있는 지방정부 재량 재원의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먼, 피트남의 사회적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 김성훈. 2006. “전문직의 취업경로.” 『한국사회학』 40(5): 137-177.
- 김왕배, 이경용. 2002.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사회학』 36(3): 1-23.
- 김은정. 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33-61.
- 김현주 · 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김호기. 2008. “중산층과 이중적 시민사회: 중산층의 쇠퇴와 시민사회의 변동.” 『기로에 선 중산층』 한국사회학회. 인간사랑.
- 류석춘, 장미혜, 전상인, 정병은, 최우영, 최종렬. 2008.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희봉. 2004.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8(4): 14.
- 신광영. 2008.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해법인가?” 『기로에 선 중산층』 한국사회학회. 인간사랑.
- 이상민, 이용수. 2007. “사회자본 투자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한국사회학』 41(2): 67-89.

- 이성균. 2006.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소득 수준.” 『한국사회학』 40(5): 178-206.
- 이재열, 남은영. 2008.,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42(7): 178-214.
- 이재열, 남은영. 2008. “중산층의 사회적 자본: 인맥과 결사체 경험을 중심으로” 『기로에 선 중산층』 한국사회학회. 인간사랑.
- 이정선. 2001.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관계: 콜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 연구』 4(2): 147-181.
- 장덕진, 황정미. 2003. “여성의 사회적 자본: 기업조직 내 연결망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9: 130-160.
- 장미혜. 2008.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기로에 선 중산층』 한국사회학회. 인간사랑.
- 정병은, 장미혜. 2008.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자본 실태와 특성.” 류석춘 외,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 Alexander C, Piazza M, Mekos D, Valente T. 2001. “Peers, schools,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J Adolesc Health 29(1):22-30.
- Bowles, Samuel. 1999.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Governance.” Focus 20: 6-10.
- Burt, R.S.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339-365.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 S95-S120.
- _____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e P. and K. Morgan 1998. The Associational Economy: Firms, Regions, and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rlauf, Steven. 1999. "The Case 'Against' Social Capital." *Focus* 20: 1-5.
- Evans, M. and S. Syrett,. 2007. "Generating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4(1): 55-74.
- Fine, B. 2001. *Social Capital vs Social Theory*. London: Routledge.
- Fox, J. 1999. "The Inter-dependence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Lessons from Mexico's Rural Municipal Funds." in K. Piester, ed. *Thinking Out Loud: Innovative Case-studies on Participatory Instruments*. Washington DC: World Bank.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 KGSS. 2004a :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설문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 KGSS. 2004b :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원 Manual."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 Kostova, T. and K. Roth,. 2003. "Social Capital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 Micro-Macro Model of Its Form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2): 297-317.
- Leana, C. and H. Van Buren,. 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 55-67.

Lin, 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 28-51.

Lomas, J., 1998. “Social Capital and Health: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nd Epidemiolog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7(9): 1181-88.

Loury, Glenn. 1977. “A Dynamic Theory of Racial Income Differences.” in *Women, Minoriti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P. Wallace and A. LaMond, ed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Manski, C.F. 2000. "Economic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3): 115-136.

Mohan, G. and J. Mohan,. 2002. “Placing Social Capit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2): 191-210.

Moser, C. and J. Holland,. 1998. “Can Policy-focused Research be Participatory? : Research on Violence and Poverty in Jamaica Using PRA Methods.” in J. Holland and J. Blackburn, eds. *Whose Voice? Participatory Research and Policy Change*. London : Intermediate Technology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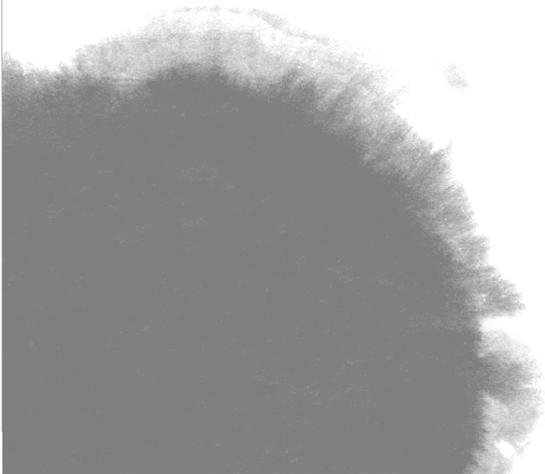
Narayan, D. and L. Pritchett,. 2000. “Social Capital: Evidence and Implications.” in P. Dasgupta and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epective*. Washington DC: World Bank.

Portes, Alex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pp. 1-14.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_____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8.
- Raudenbush, S.W. and A. S. Bryk,.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Schuller, T., S. Baron, and J. Field,. 2000. "Social Capital : A Review and Critique." in Schuller, et al., eds. *Social Capital - Critical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inger, J. D. and J. B. Willett,.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zreter, S. 1999. "A New Political Economy for New Labour: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Renewal* 7: 30-44.
- Veenstra, G. and J. Lomas,. 1999. "Home is Where the Governing Is: Social Capital and Regional Health Governance." *Health and Place* 5: 1-12.
- Woolcock, M. 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Economic Outcom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11-17.

부 록



부록

〈부표 1〉 가구소득

단위: 주기(spell, %), 만원

| | | 전체 | 중위 가구소득 |
|----------------|-----------------------------|---------------|------------|
| 전체 | | 1,996 | 1780.0 |
| 남 자 | 전체 | 1,053 (100.0) | 1731.0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1 (7.7) | 1444.0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3.3) | 1512.0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11 (29.5) | 1590.0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3.0) | 1080.0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2.5) | 1200.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13 (20.2) | 1560.0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46 (4.4) | 1560.0 |
| | 가족을 통해 | 14 (1.3) | 2220.0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84 (17.5) | 2370.0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4.7) | 1656.0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47 (4.5) | 1778.0 |
| | 기타 | 15 (1.4) | 925.0 |
| 여 자 | 전체 | 943 (100.0) | 1800.0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3 (6.7) | 2008.0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2 (3.4) | 1500.0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19 (23.2) | 1460.0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25 (2.7) | 900.0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31 (3.3) | 1520.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31 (24.5) | 1980.0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8 (6.5) | 960.0 |
| | 가족을 통해 | 13 (1.4) | 3610.0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74 (18.5) | 3163.0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8 (5.1) | 720.0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5 (2.7) | 1260.0 |
| | 기타 | 24 (2.5) | 600.0 |

〈부표 2〉 4분위 가구소득

단위: 주기(spell, %), %

| | | 전체 | 1 분위 | 2 분위 | 3 분위 | 4 분위 |
|----|--------------------------------|------------------|---------------|---------------|---------------|---------------|
| 전체 | | 1,996 (100.0) | 625 (31.3) | 544 (27.3) | 400 (20.0) | 427 (21.4) |
| 남자 | 전체 | 1,053 (100.0) | 337 (32.0) | 304 (28.9) | 207 (19.7) | 205 (19.5)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1 (100.0) | 35.8 | 25.9 | 21.0 | 17.3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100.0) | 34.3 | 34.3 | 11.4 | 20.0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11 (100.0) | 35.4 | 30.9 | 15.1 | 18.6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100.0) | 50.0 | 28.1 | 9.4 | 12.5 |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100.0) | 42.3 | 34.6 | 15.4 | 7.7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13 (100.0) | 35.7 | 23.5 | 26.8 | 14.1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46 (100.0) | 34.8 | 26.1 | 15.2 | 23.9 |
| | 가족을 통해 | 14 (100.0) | 28.6 | 7.1 | 50.0 | 14.3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84 (100.0) | 16.3 | 27.7 | 21.2 | 34.8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100.0) | 30.6 | 32.7 | 26.5 | 10.2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47 (100.0) | 19.1 | 48.9 | 17.0 | 14.9 |
| | 기타 | 15 (100.0) | 60.0 | 26.7 | 6.7 | 6.7 |
| 여자 | 전체 | 943 (100.0) | 288 (30.5) | 240 (25.5) | 193 (20.5) | 222 (23.5)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3 (100.0) | 23.8 | 27.0 | 23.8 | 25.4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2 (100.0) | 15.6 | 56.3 | 3.1 | 25.0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19 (100.0) | 32.4 | 31.5 | 22.4 | 13.7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25 (100.0) | 56.0 | 20.0 | 16.0 | 8.0 |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31 (100.0) | 41.9 | 25.8 | 29.0 | 3.2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31 (100.0) | 28.6 | 24.2 | 28.1 | 19.0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8 (100.0) | 58.6 | 10.3 | 13.8 | 17.2 |
| | 가족을 통해 | 13 (100.0) | 7.7 | 15.4 | 7.7 | 69.2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74 (100.0) | 9.2 | 21.3 | 17.8 | 51.7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8 (100.0) | 62.5 | 22.9 | 8.3 | 6.3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5 (100.0) | 28.0 | 32.0 | 12.0 | 28.0 |
| | 기타 | 24 (100.0) | 66.7 | 12.5 | 12.5 | 8.3 |

〈부표 4〉 기구소득에 따른 직업탐색범범 2

단위: 주기(spell, %), %

| | 전체 | 학교학 원 의 취업정 보, 알 선 통 | 교사, 교수, 스승을 통 | 친구, 친지들 을 해 | 공공직 업안내 소 통 | 사실적 업안내 소 통 | 신문, TV, 벽 보등의 광고를 통 | 일하고 싶은곳 을 찾 아다니 면 서 | 가족을 해 통 | 인터넷 등 산 을 해 | 취업하 고 싶 은 지 리에 근무하 고 느 는 람 통 | 직 장에서 업무상 계 사 를 해 된 람 통 | 기타 | |
|----|------------|----------------------------------|------------------------|-------------------|-------------------|-------------------|---------------------------------|---------------------------------|---------------|-------------------|---|---|-------------|-----|
| 남자 | 전체 | 1,610 (100.0) | 26 (1.6) | 33 (2.0) | 238 (14.8) | 100 (6.2) | 115 (7.1) | 440 (27.3) | 63 (3.9) | 170 (10.6) | 131 (8.1) | 81 (5.0) | 16 (1.0) | |
| | 전체 | 900 (100.0) | 17 (1.9) | 18 (2.0) | 103 (11.4) | 61 (6.8) | 75 (8.3) | 247 (27.4) | 37 (4.1) | 92 (10.2) | 75 (8.3) | 55 (6.1) | 12 (1.3) | |
| | 1분위(상위25%) | 299 (100.0) | 0.7 | 2.7 | 11.4 | 6.4 | 8.7 | 33.1 | 12.0 | 1.3 | 7.4 | 6.4 | 8.4 | 1.7 |
| | 2분위(상위50%) | 253 (100.0) | 0.4 | 2.4 | 11.9 | 8.7 | 9.5 | 23.3 | 15.4 | 4.0 | 7.9 | 11.5 | 4.0 | 1.2 |
| 여자 | 전체 | 186 (100.0) | 3.2 | 0.5 | 12.4 | 7.0 | 8.1 | 23.7 | 8.1 | 7.5 | 8.6 | 7.0 | 2.2 | |
| | 전체 | 162 (100.0) | 4.9 | 1.9 | 9.9 | 4.3 | 6.2 | 27.8 | 11.1 | 5.6 | 6.8 | 4.3 | 0.0 | |
| | 1분위(상위25%) | 710 (100.0) | 9 | 15 | 135 | 39 | 40 | 193 | 89 | 26 | 56 | 26 | 4 | |
| | 2분위(상위50%) | 225 (100.0) | 1.3 | 2.1 | 19.0 | 5.5 | 5.6 | 27.2 | 12.5 | 3.7 | 7.9 | 3.7 | 0.6 | |
| 전체 | 전체 | 225 (100.0) | 1.3 | 2.7 | 17.3 | 4.4 | 2.2 | 33.3 | 16.9 | 2.7 | 9.3 | 3.6 | 1.3 | |
| | 1분위(상위25%) | 193 (100.0) | 1.6 | 1.6 | 19.2 | 8.3 | 6.2 | 28.5 | 14.0 | 3.6 | 10.9 | 4.1 | 0.5 | |
| | 2분위(상위50%) | 148 (100.0) | 0.0 | 2.7 | 18.2 | 5.4 | 8.1 | 20.3 | 12.8 | 4.7 | 11.5 | 3.4 | 0.0 | |
| | 3분위(상위75%) | 144 (100.0) | 2.1 | 1.4 | 22.2 | 3.5 | 7.6 | 22.9 | 3.5 | 20.1 | 9.0 | 3.5 | 0.0 | |

〈부표 5〉 기구소득에 따른 직업탐색방법 3

단위: 주기(spell, %), %

| | 전체 | 학교학 원 의 취업정 보, 알 선 통 | 교사, 교수, 스승을 통 | 친구, 친지들 을 해 | 공공직 업안내 소 통 | 사실적 업안내 를 해 | 신문, TV, 벽 보등의 광고를 통 | 일하고 싶은곳 을 직 접 찾 아다니 면 서 | 가족을 해 통 | 인터넷 등 산 을 해 | 취업하 고 싶 은 지 리에 근무하 고 있 는 일 을 해 | 직 업무 상 개 사 를 해 | 기타 | |
|----|-------------|----------------------------------|------------------------|-------------------|-------------------|-------------------|---------------------------------|--|---------------|-------------------|---|----------------------------|-------------|----------------|
| | | | | | | | | | | | | | | 971 (100.0) |
| 남자 | 전체 | 598 (100.0) | 9 (1.5) | 0 (0.0) | 96 (16.1) | 15 (2.5) | 21 (3.5) | 103 (17.2) | 95 (15.9) | 42 (7.0) | 86 (14.4) | 74 (12.4) | 48 (8.0) | 9 (1.5) |
| | 1분위(상위25%) | 208 (100.0) | 1.4 | 0.0 | 14.9 | 1.4 | 3.4 | 14.4 | 22.1 | 7.7 | 10.1 | 16.3 | 5.8 | 2.4 |
| | 2분위(상위50%) | 159 (100.0) | 2.5 | 0.0 | 12.6 | 2.5 | 5.7 | 19.5 | 11.9 | 7.5 | 15.7 | 10.1 | 10.7 | 1.3 |
| | 3분위(하위75%) | 129 (100.0) | 0.8 | 0.0 | 23.3 | 4.7 | 2.3 | 17.8 | 14.0 | 2.3 | 12.4 | 14.0 | 7.8 | 0.8 |
| 여자 | 전체 | 373 (100.0) | 6 (1.6) | 2 (0.5) | 46 (12.3) | 5 (1.3) | 22 (5.9) | 79 (21.2) | 50 (13.4) | 52 (13.9) | 41 (11.0) | 35 (9.4) | 15 (4.0) | 20 (5.4) |
| | 1분위(하위25%) | 108 (100.0) | 0.0 | 0.0 | 16.7 | 0.9 | 5.6 | 14.8 | 19.4 | 22.2 | 5.6 | 9.3 | 0.0 | 5.6 |
| | 2분위(하위50%) | 100 (100.0) | 0.0 | 0.0 | 6.0 | 3.0 | 9.0 | 28.0 | 14.0 | 11.0 | 13.0 | 9.0 | 6.0 | 1.0 |
| | 3분위(하위75%) | 84 (100.0) | 1.2 | 1.2 | 10.7 | 1.2 | 4.8 | 19.0 | 13.1 | 10.7 | 14.3 | 13.1 | 3.6 | 7.1 |
| | 4분위(하위100%) | 81 (100.0) | 6.2 | 1.2 | 16.0 | 0.0 | 3.7 | 23.5 | 4.9 | 9.9 | 12.3 | 6.2 | 7.4 | 8.6 |

〈부표 6〉 월급여(중위임금)

단위: 주기(spell, %), 만원

| | | 전체 | 중위임금 |
|-----------------------------|-----------------------------|--------------|-------|
| 전체 | | 2,121 | 89.0 |
| 남자 | 전체 | 1,139(100.0) | 110.0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4 (7.4) | 122.5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3.1) | 67.0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36 (29.5) | 110.0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2.8) | 78.0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25 (2.2) | 100.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28 (20.0) | 96.0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2 (4.6) | 120.0 |
| | 가족을 통해 | 18 (1.6) | 140.0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215 (18.9) | 130.0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8 (4.2) | 120.0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48 (4.2) | 125.0 |
| | 기타 | 18 (1.6) | 64.5 |
| | 전체 | 982 (100.0) | 72.0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5 (6.6) | 80.0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2 (3.3) | 80.0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36 (24.0) | 70.0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25 (2.5) | 57.0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31 (3.2) | 75.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36 (24.0) | 70.0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9 (6.0) | 50.0 | |
| 가족을 통해 | 13 (1.3) | 80.0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86 (18.9) | 100.0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5.0) | 50.0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6 (2.6) | 80.0 | |
| 기타 | 24 (2.4) | 55.0 | |

〈부표 7〉 주된 일자리 여부

단위: 주기(spell, %), %

| | | 전체 | 주된 일자리 아님 | 주된 일자리 |
|--------|--------------------------------|------------------|-----------------|-----------------|
| 전체 | | 2,132 (100.0) | 1,122 (52.6) | 1,010 (47.4) |
| 남 자 | 전체 | 1,147 (100.0) | 576 (50.2) | 571 (49.8)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4 (100.0) | 60.7 | 39.3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100.0) | 97.1 | 2.9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38 (100.0) | 49.1 | 50.9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100.0) | 68.8 | 31.3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100.0) | 50.0 | 50.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29 (100.0) | 51.5 | 48.5 |
| | 알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2 (100.0) | 40.4 | 59.6 |
| | 가족을 통해 | 18 (100.0) | 27.8 | 72.2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216 (100.0) | 34.3 | 65.7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100.0) | 61.2 | 38.8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50 (100.0) | 60.0 | 40.0 |
| | 기타 | 18 (100.0) | 66.7 | 33.3 |
| 여 자 | 전체 | 985 (100.0) | 546 (55.4) | 439 (44.6)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6 (100.0) | 60.6 | 39.4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2 (100.0) | 87.5 | 12.5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37 (100.0) | 59.1 | 40.9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25 (100.0) | 88.0 | 12.0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31 (100.0) | 58.1 | 41.9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36 (100.0) | 55.9 | 44.1 |
| | 알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9 (100.0) | 33.9 | 66.1 |
| | 가족을 통해 | 13 (100.0) | 38.5 | 61.5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87 (100.0) | 36.4 | 63.6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100.0) | 79.6 | 20.4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6 (100.0) | 46.2 | 53.8 |
| | 기타 | 24 (100.0) | 91.7 | 8.3 |

〈부표 8〉 노동조합 유무

단위: 주기(spell), %, %

| | | 전체 | 있다 | 없다 | 모른다 |
|--------------------------------|--------------------------------|------------------|----------------|-----------------|---------------|
| 전체 | | 1,924 (100.0) | 163 (8.5) | 1,647 (85.6) | 114 (5.9) |
| 남 자 | 전체 | 1,010 (100.0) | 108 (10.7) | 865 (85.6) | 37 (3.7)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4 (100.0) | 11.9 | 81.0 | 7.1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100.0) | 8.6 | 91.4 | 0.0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84 (100.0) | 10.6 | 86.3 | 3.2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100.0) | 9.4 | 87.5 | 3.1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15 (100.0) | 0.0 | 100.0 | 0.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04 (100.0) | 10.8 | 87.7 | 1.5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49 (100.0) | 2.0 | 95.9 | 2.0 |
| | 가족을 통해 | 17 (100.0) | 23.5 | 76.5 | 0.0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94 (100.0) | 16.0 | 76.3 | 7.7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2 (100.0) | 4.8 | 92.9 | 2.4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37 (100.0) | 0.0 | 97.3 | 2.7 |
| | 기타 | 17 (100.0) | 11.8 | 88.2 | 0.0 |
| | 여 자 | 전체 | 914 (100.0) | 55 (6.0) | 782 (85.6)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 65 (100.0) | 9.2 | 72.3 | 18.5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 32 (100.0) | 0.0 | 100.0 | 0.0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 208 (100.0) | 2.9 | 92.3 | 4.8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 24 (100.0) | 20.8 | 79.2 | 0.0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 27 (100.0) | 3.7 | 92.6 | 3.7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 228 (100.0) | 7.0 | 89.5 | 3.5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58 (100.0) | 1.7 | 67.2 | 31.0 |
| 가족을 통해 | | 13 (100.0) | 53.8 | 46.2 | 0.0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 166 (100.0) | 7.2 | 83.7 | 9.0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 48 (100.0) | 2.1 | 72.9 | 25.0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 23 (100.0) | 0.0 | 95.7 | 4.3 |
| 기타 | | 22 v | 0.0 | 100.0 | 0.0 |

〈부표 9〉 전체 직업 수

단위: 주기(spell, %), 개

| | | 전체 | 개수 |
|-----------------------------|-----------------------------|---------------|-------------|
| 전체 | | 2,132 | 3.2 |
| 남 자 | 전체 | 1,147 (100.0) | 3.3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4 (7.3) | 2.0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3.1) | 3.9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38 (29.5) | 3.4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2.8) | 2.8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2.3) | 6.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29 (20.0) | 3.3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2 (4.5) | 3.3 |
| | 가족을 통해 | 18 (1.6) | 4.7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216 (18.8) | 2.8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4.3) | 3.9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50 (4.4) | 4.8 |
| | 기타 | 18 (1.6) | 2.6 |
| | 여 자 | 전체 | 985 (100.0)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 66 (6.7) | 1.9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 32 (3.2) | 2.0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 237 (24.1) | 3.4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 25 (2.5) | 2.9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 31 (3.1) | 3.2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 236 (24.0) | 3.1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59 (6.0) | 4.5 |
| 가족을 통해 | | 13 (1.3) | 2.6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 187 (19.0) | 2.9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 49 (5.0) | 2.9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 26 (2.6) | 3.8 |
| 기타 | | 24 (2.4) | 3.0 |

〈부표 10〉 산업 및 직업 여성 비율

단위: 주기(spell, %), %

| | | 전체 | 개수 |
|-----------------------------|-----------------------------|---------------|-------------|
| 전체 | | 2,096 | 0.4 |
| 남 자 | 전체 | 1,120 (100.0) | 0.3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1 (7.2) | 0.3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0 (2.7) | 0.2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32 (29.6) | 0.3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2.9) | 0.3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2.3) | 0.3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19 (19.6) | 0.3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2 (4.6) | 0.3 |
| | 가족을 통해 | 18 (1.6) | 0.2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214 (19.1) | 0.3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4.4) | 0.2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49 (4.4) | 0.2 |
| | 기타 | 18 (1.6) | 0.5 |
| | 여 자 | 전체 | 976 (100.0)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 66 (6.8) | 0.6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 32 (3.3) | 0.6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 236 (24.2) | 0.6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 25 (2.6) | 0.6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 29 (3.0) | 0.7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 236 (24.2) | 0.6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57 (5.8) | 0.5 |
| 가족을 통해 | | 13 (1.3) | 0.5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 186 (19.1) | 0.6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 46 (4.7) | 0.6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 26 (2.7) | 0.6 |
| 기타 | | 24 (2.5) | 0.5 |

〈부표 11〉 직업

단위: 주기(spell, %), %

| | 전체 | 의회의 원 고위 임직 임 직 임 및 관리자 | 전문 가 | 기술 및 준 전문 가 | 사무 종사 자 | 서비스 종사 자 | 판매 종사 자 | 농업 임 업 및 어 업 수 련 종 사 자 | 기능 원 및 관 련 기 능 종 사 자 | 정치, 기계 조 작 및 조 립 종 사 자 | 단 순 노 무 종 사 자 | 군 인 |
|------------------|------------------|---|---------------|-------------------------|---------------|----------------|---------------|--|---|---|---------------------------------|------------|
| 전체 | 2,132 (100.0) | 26 (1.2) | 161 (7.6) | 297 (13.9) | 361 (16.9) | 255 (12.0) | 178 (8.3) | 7 (0.3) | 261 (12.2) | 191 (9.0) | 388 (18.2) | 7 (0.3) |
| 1,147 (100.0) | 24 (2.1) | 59 (5.1) | 169 (14.7) | 132 (11.5) | 92 (8.0) | 73 (6.4) | 2 (0.2) | 219 (19.1) | 144 (12.6) | 144 (12.6) | 228 (19.9) | 5 (0.4) |
| 84 (100.0) | 0.0 | 4.8 | 33.3 | 22.6 | 3.6 | 6.0 | 0.0 | 9.5 | 15.5 | 4.8 | 0.0 | 0.0 |
| 35 (100.0) | 14.3 | 8.6 | 11.4 | 0.0 | 2.9 | 11.4 | 0.0 | 8.6 | 17.1 | 17.1 | 0.0 | 8.6 |
| 338 (100.0) | 2.1 | 3.6 | 16.3 | 4.1 | 9.5 | 5.9 | 0.0 | 22.5 | 10.9 | 24.9 | 0.0 | 0.3 |
| 32 (100.0) | 9.4 | 0.0 | 0.0 | 9.4 | 6.3 | 12.5 | 0.0 | 18.8 | 12.5 | 31.3 | 0.0 | 0.0 |
| 26 (100.0) | 0.0 | 0.0 | 0.0 | 0.0 | 11.5 | 3.8 | 0.0 | 3.8 | 23.1 | 3.8 | 53.8 | 0.0 |
| 229 (100.0) | 0.4 | 4.4 | 11.8 | 7.4 | 13.5 | 9.6 | 0.0 | 14.4 | 16.2 | 22.3 | 0.0 | 0.0 |
| 52 (100.0) | 11.5 | 0.0 | 1.9 | 21.2 | 7.7 | 5.8 | 1.9 | 5.8 | 17.3 | 26.9 | 0.0 | 0.0 |
| 18 (100.0) | 0.0 | 0.0 | 0.0 | 61.1 | 0.0 | 0.0 | 0.0 | 5.6 | 5.6 | 27.8 | 0.0 | 0.0 |
| 216 (100.0) | 0.0 | 11.1 | 21.8 | 21.8 | 5.6 | 6.0 | 0.0 | 14.4 | 11.6 | 7.4 | 0.5 | 0.5 |
| 49 (100.0) | 2.0 | 0.0 | 4.1 | 10.2 | 8.2 | 0.0 | 0.0 | 49.0 | 18.4 | 8.2 | 0.0 | 0.0 |
| 50 (100.0) | 2.0 | 6.0 | 8.0 | 4.0 | 4.0 | 0.0 | 0.0 | 52.0 | 4.0 | 20.0 | 0.0 | 0.0 |
| 18 (100.0) | 0.0 | 16.7 | 5.6 | 0.0 | 0.0 | 0.0 | 11.1 | 0.0 | 11.1 | 0.0 | 55.6 | 0.0 |
| 985 | 2 | 102 | 128 | 229 | 163 | 105 | 5 | 42 | 47 | 160 | 2 | 2 |

남자

여자

| | 전체 | 의회의 원 및 임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 기술 및 중 전문가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종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정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군인 |
|--------------------------------|-------------|----------------------------------|--------|---------------------|-----------|------------|-----------|---------------------------------------|-----------------------------|-----------------------------------|-----------------|-------|
| | (100.0) | (0.2) | (10.4) | (13.0) | (23.2) | (16.5) | (10.7) | (0.5) | (4.3) | (4.8) | (16.2) | (0.2)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6 (100.0) | 1.5 | 24.2 | 13.6 | 21.2 | 3.0 | 4.5 | 3.0 | 0.0 | 19.7 | 9.1 | 0.0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2 (100.0) | 0.0 | 21.9 | 25.0 | 3.1 | 9.4 | 28.1 | 3.1 | 0.0 | 0.0 | 9.4 | 0.0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37 (100.0) | 0.0 | 6.8 | 6.3 | 21.9 | 21.5 | 12.2 | 0.4 | 7.6 | 6.8 | 16.0 | 0.4 |
| 공공직업네트스를 통해 | 25 (100.0) | 0.0 | 8.0 | 8.0 | 36.0 | 16.0 | 0.0 | 0.0 | 0.0 | 0.0 | 32.0 | 0.0 |
| 사생활업네트스를 통해 | 31 (100.0) | 0.0 | 0.0 | 3.2 | 25.8 | 35.5 | 0.0 | 0.0 | 0.0 | 0.0 | 32.3 | 3.2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36 (100.0) | 0.0 | 6.4 | 14.4 | 25.4 | 19.9 | 9.7 | 0.0 | 8.1 | 5.5 | 10.6 | 0.0 |
| 알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9 (100.0) | 0.0 | 1.7 | 0.0 | 6.8 | 10.2 | 22.0 | 0.0 | 3.4 | 1.7 | 54.2 | 0.0 |
| 가족을 통해 | 13 (100.0) | 7.7 | 0.0 | 0.0 | 30.8 | 7.7 | 53.8 | 0.0 | 0.0 | 0.0 | 0.0 | 0.0 |
| 인터넷 등 전신망을 통해 | 187 (100.0) | 0.0 | 23.0 | 28.3 | 32.1 | 7.5 | 6.4 | 0.0 | 0.5 | 0.5 | 1.6 | 0.0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 | 49 (100.0) | 0.0 | 2.0 | 4.1 | 6.1 | 24.5 | 14.3 | 0.0 | 2.0 | 2.0 | 44.9 | 0.0 |
| 전 직장에서의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6 (100.0) | 0.0 | 0.0 | 11.5 | 26.9 | 34.6 | 7.7 | 0.0 | 3.8 | 7.7 | 7.7 | 0.0 |
| 기타 | 24 (100.0) | 0.0 | 4.2 | 4.2 | 29.2 | 12.5 | 0.0 | 4.2 | 0.0 | 0.0 | 45.8 | 0.0 |

〈부표 12〉 산업

단위: 주기(spell, %), %

| | 능력 및 임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 운수업 |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사업 서비스 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 업 |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업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 업 | 기타 서비스 업 | 가사 서비스 업 | 국제 및 외국 기관 |
|-----------------------------------|------------------|------------|-------------------------|--------------------|------------------|---------------|--------------|-------------|-----------------|----------------|-------------------------------------|----------------|------------------------|-------------------------------|------------------------------------|----------------|----------------|------------------|
| 전체 | 2,131 (100.0) | 8 (0.4) | 405 (19.0) | 22 (1.0) | 236 (11.1) | 329 (15.4) | 205 (9.6) | 39 (1.8) | 50 (2.3) | 27 (1.3) | 221 (10.4) | 120 (5.6) | 87 (4.1) | 75 (3.5) | 54 (2.5) | 20 (0.9) | 12 (0.6) | |
| 전체 | 1,147 (100.0) | 2 (0.2) | 258 (22.5) | 17 (1.5) | 195 (17.0) | 150 (13.1) | 64 (5.6) | 28 (2.4) | 18 (1.6) | 136 (11.9) | 65 (5.7) | 30 (2.6) | 20 (1.7) | 48 (4.2) | 19 (1.7) | 3 (0.3) | 4 (0.3)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양성을 통해 | 84 (100.0) | 0.0 | 20.2 | 8.3 | 13.1 | 15.5 | 0.0 | 4.8 | 0.0 | 19.0 | 1.2 | 4.8 | 0.0 | 6.0 | 3.6 | 0.0 | 0.0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 0.0 | 17.1 | 8.6 | 22.9 | 11.4 | 2.9 | 0.0 | 0.0 | 11.4 | 14.3 | 0.0 | 0.0 | 0.0 | 2.9 | 0.0 | 0.0 | 8.6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38 (100.0) | 0.0 | 15.7 | 0.0 | 25.1 | 13.3 | 6.2 | 5.3 | 2.1 | 2.4 | 3.8 | 2.7 | 2.4 | 4.7 | 2.1 | 0.6 | 0.3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100.0) | 0.0 | 12.5 | 12.5 | 15.6 | 15.6 | 0.0 | 0.0 | 0.0 | 9.4 | 34.4 | 0.0 | 0.0 | 0.0 | 0.0 | 0.0 | 0.0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100.0) | 0.0 | 3.8 | 11.5 | 0.0 | 30.8 | 7.7 | 11.5 | 3.8 | 0.0 | 19.2 | 0.0 | 0.0 | 0.0 | 0.0 | 0.0 | 0.0 | |
| 신문, TV, 책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29 (100.0) | 0.4 | 27.1 | 0.4 | 5.7 | 14.8 | 8.7 | 4.4 | 5.2 | 3.9 | 6.6 | 0.4 | 2.2 | 3.1 | 1.7 | 0.4 | 0.0 | |
| 알고 있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2 (100.0) | 1.9 | 7.7 | 0.0 | 26.9 | 5.8 | 7.7 | 19.2 | 1.9 | 0.0 | 3.8 | 0.0 | 0.0 | 21.2 | 0.0 | 0.0 | 0.0 | |
| 가족을 통해 | 18 (100.0) | 0.0 | 38.9 | 0.0 | 16.7 | 5.6 | 0.0 | 0.0 | 5.6 | 0.0 | 33.3 | 0.0 | 0.0 | 0.0 | 0.0 | 0.0 | 0.0 | |
| 인터넷 등 전신망을 통해 | 216 (100.0) | 0.0 | 25.0 | 0.9 | 8.8 | 18.5 | 5.1 | 3.2 | 3.7 | 3.2 | 14.4 | 0.9 | 7.4 | 3.2 | 1.9 | 0.0 | 0.0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 | 49 (100.0) | 0.0 | 63.3 | 0.0 | 16.3 | 0.0 | 8.2 | 8.2 | 0.0 | 2.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전 직장에서 임무상 알게 | 50 (100.0) | 0.0 | 32.0 | 0.0 | 40.0 | 0.0 | 0.0 | 8.0 | 0.0 | 12.0 | 2.0 | 0.0 | 0.0 | 4.0 | 0.0 | 0.0 | 0.0 | |

| | 농업 및 임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관련 산업 | 기타 공공 서비스업 | 가사 서비스업 | 국외 및 외국 기관 |
|-----------------------------|-------------|-----------|----------------|----------|------------|------------|----------|----------|----------|-----------|----------|---------------------|----------|----------------|--------------------|------------|----------|------------|
| 된 사람들 통해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8 (100.0) | 5.6 | 0.0 | 5.6 | 16.7 | 0.0 | 0.0 | 0.0 | 0.0 | 0.0 | 22.2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전체 | 984 (100.0) | 147 (0.0) | 5 (0.0) | 41 (4.2) | 179 (18.2) | 141 (14.3) | 11 (1.1) | 11 (1.1) | 22 (2.2) | 9 (0.9) | 85 (8.6) | 83 (8.4) | 90 (9.1) | 67 (6.8) | 27 (2.7) | 35 (3.6) | 17 (1.7) | 8 (0.8)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6 (100.0) | 3.0 | 0.0 | 27.3 | 6.1 | 4.5 | 0.0 | 1.5 | 6.1 | 0.0 | 4.5 | 1.5 | 7.6 | 21.2 | 4.5 | 4.5 | 3.0 | 0.0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2 (100.0) | 3.1 | 0.0 | 0.0 | 9.4 | 0.0 | 28.1 | 9.4 | 0.0 | 3.1 | 0.0 | 3.1 | 43.8 | 0.0 | 0.0 | 0.0 | 0.0 | 0.0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37 (100.0) | 0.8 | 0.0 | 22.4 | 0.8 | 18.1 | 20.3 | 1.3 | 2.5 | 0.8 | 5.1 | 4.2 | 3.8 | 5.5 | 4.2 | 6.3 | 2.5 | 1.3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25 (100.0) | 0.0 | 0.0 | 0.0 | 24.0 | 8.0 | 4.0 | 0.0 | 0.0 | 0.0 | 4.0 | 44.0 | 8.0 | 0.0 | 0.0 | 0.0 | 8.0 | 0.0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31 (100.0) | 0.0 | 0.0 | 16.1 | 0.0 | 12.9 | 29.0 | 0.0 | 3.2 | 0.0 | 12.9 | 0.0 | 0.0 | 9.7 | 0.0 | 6.5 | 6.5 | 3.2 |
| 신문, TV, 책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36 (100.0) | 0.0 | 0.0 | 14.8 | 4.2 | 27.1 | 17.8 | 1.7 | 0.0 | 0.8 | 10.6 | 1.7 | 5.1 | 3.8 | 2.5 | 3.8 | 1.7 | 1.7 |
| 알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9 (100.0) | 0.0 | 0.0 | 5.1 | 27.1 | 13.6 | 11.9 | 0.0 | 0.0 | 0.0 | 23.7 | 13.6 | 0.0 | 1.7 | 1.7 | 1.7 | 0.0 | 0.0 |
| 가족을 통해 | 13 (100.0) | 0.0 | 0.0 | 7.7 | 0.0 | 53.8 | 7.7 | 0.0 | 23.1 | 0.0 | 7.7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인터넷 등 직선임을 통해 | 186 (100.0) | 0.0 | 0.0 | 11.8 | 0.0 | 1.1 | 14.0 | 8.6 | 3.8 | 0.5 | 10.2 | 7.0 | 23.1 | 11.8 | 3.8 | 0.5 | 0.0 | 0.0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 | 49 (100.0) | 0.0 | 0.0 | 14.3 | 0.0 | 16.3 | 4.1 | 6.1 | 0.0 | 2.0 | 0.0 | 38.8 | 4.1 | 8.2 | 0.0 | 6.1 | 0.0 | 0.0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 통해 | 26 (100.0) | 0.0 | 0.0 | 11.5 | 7.7 | 11.5 | 30.8 | 0.0 | 0.0 | 7.7 | 19.2 | 0.0 | 7.7 | 0.0 | 0.0 | 3.8 | 0.0 | 0.0 |
| 기타 | 24 (100.0) | 4.2 | 0.0 | 0.0 | 4.2 | 4.2 | 0.0 | 0.0 | 0.0 | 4.2 | 4.2 | 66.7 | 4.2 | 4.2 | 0.0 | 0.0 | 4.2 | 0.0 |

여자

〈부표 13〉 그만둔 이유

단위: 주기(spell, %)

| |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 장리 해고로 인해 | 권고 사직 | 계약 기간 끝나서 | 소득 보수가 적어서 | 일거리가 많거나 일하기 힘들어서 | 일미 지시, 임의적 지시, 가능 등이 맞지 않아서 | 직성, 지시, 가능 등이 맞지 않아서 | 근무 시간 또는 근무 환경이 나빠서 | 자기(기술) 향상, 시간 하려고 | 직업, 고령 등의 이유로 | 건강, 회사 내 인사 관리 때문에 | 회사가 내 인사 하려고 | 유리직 이 하려고 | 확업 때문에 | 근임대 때문에 | 줄대 일자리가 있어 | 기타 무응답 | | | | | |
|----|-----------------------------|-------------|-------------|------------|------------|-------------------|-----------------------------|----------------------|---------------------|-------------------|---------------|--------------------|--------------|-----------|-----------|----------|--------------|--------------|--------------|--------------|------------|-----------|---------|
| 남자 | 전체 | 38 (4.5) | 21 (2.5) | 11 (1.3) | 94 (11.2) | 75 (8.8) | 88 (10.5) | 66 (7.9) | 47 (5.6) | 69 (8.2) | 22 (2.6) | 15 (1.8) | 50 (6.0) | 21 (2.5) | 4 (0.5) | 16 (1.9) | 89 (10.6) | 9 (1.1) | 58 (6.9) | 45 (5.4) | 2 (0.2) | |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임사를 통해 | 430 (100.0) | 22 (5.1) | 9 (2.1) | 5 (1.2) | 43 (10.0) | 43 (10.0) | 53 (12.3) | 46 (10.7) | 20 (4.7) | 36 (8.4) | 11 (2.6) | 4 (0.9) | 18 (4.2) | 3 (0.7) | 7 (1.6) | 16 (3.1) | 3 (0.7) | 18 (4.0) | 34 (7.9) | 9 (4.0) | 17 (4.0) | 0 (0.0) |
| | 회사, 교수, 스승을 통해 | 14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15.6 (18.8) | 18.8 (21.9) | 0 (0.0) | 9.4 (3.1) | 9.4 (3.1) | 0 (0.0) | 3.1 (0.0) | 3.1 (0.0) | 0 (0.0) | 0 (0.0) | 6.3 (3.1) | 3.1 (0.0) | 0 (0.0) | 18.8 (4.0) | 0 (0.0) | 0 (0.0) | 0 (0.0)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138 (100.0) | 8 (0.0) | 0 (0.0) | 0 (0.0) | 28.6 (35.7) | 35.7 (44.4) | 7.2 (9.0) | 7.2 (9.0) | 0 (0.0) | 8.7 (10.9) | 2.9 (3.7) | 2.2 (2.8) | 5.8 (7.2) | 0 (0.0) | 0 (0.0) | 7.1 (8.9) | 7.1 (8.9) | 0 (0.0) | 0 (0.0) | 7.1 (8.9) | 0 (0.0) | 0 (0.0)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16 (100.0) | 0 (0.0) | 0 (0.0) | 0 (0.0) | 56.3 (70.4) | 70.4 (88.0) | 12.5 (15.6) | 12.5 (15.6) | 0 (0.0) | 12.5 (15.6)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8 (100.0) | 0 (0.0) | 0 (0.0) | 0 (0.0) | 25.0 (31.3) | 31.3 (39.1) | 25.0 (31.3) | 25.0 (31.3)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 신문, TV, 책보 등의 광고를 통해 | 83 (100.0) | 6 (0.0) | 0 (0.0) | 0 (0.0) | 13.3 (16.1) | 16.1 (19.6) | 9.6 (11.9) | 12.0 (14.9) | 4.8 (5.9) | 12.0 (14.9) | 0 (0.0) | 1.2 (1.5) | 3.6 (4.5) | 2.4 (3.0) | 0 (0.0) | 3.6 (4.5) | 15.7 (19.6) | 3.6 (4.5) | 4.8 (5.9) | 4.8 (5.9) | 3.6 (4.5) | 0 (0.0)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22 (100.0) | 18.2 (82.7) | 0 (0.0) | 0 (0.0) | 9.1 (41.4) | 13.6 (61.4) | 18.2 (82.7) | 0 (0.0) | 0 (0.0) | 4.5 (20.5)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22.7 (103.2) | 0 (0.0) | 0 (0.0) | 4.5 (20.5) | 0 (0.0) | |
| | 가축을 통해 | 4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50.0 (125.0) | 25.0 (62.5)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25.0 (62.5) | 0 (0.0) | 0 (0.0) | 0 (0.0) | 0 (0.0) |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61 (100.0) | 0 (0.0) | 3.3 (5.4) | 1.6 (2.6) | 6.6 (10.8) | 6.6 (10.8) | 13.1 (21.5) | 9.8 (16.1) | 11.5 (18.9) | 1.6 (2.6) | 1.6 (2.6) | 3.3 (5.4) | 3.3 (5.4) | 0 (0.0) | 0 (0.0) | 0 (0.0) | 18.0 (29.3) | 8.2 (13.4) | 9.8 (16.1) | 4.9 (7.9) | 0 (0.0) |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21 (100.0) | 9.5 (45.2) | 0 (0.0) | 0 (0.0) | 0 (0.0) | 4.8 (22.9) | 19.0 (90.5) | 0 (0.0) | 9.5 (45.2) | 4.8 (22.9)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9.5 (45.2) | 0 (0.0) | 28.6 (136.2) | 9.5 (45.2) | 0 (0.0) |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0 (100.0) | 0 (0.0) | 0 (0.0) | 0 (0.0) | 10.0 (50.0) | 10.0 (50.0) | 15.0 (75.0) | 10.0 (50.0) | 10.0 (5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5.0 (25.0) | 0 (0.0) | 10.0 (50.0) | 5.0 (25.0) | 0 (0.0) | |
| | 기타 | 11 (100.0) | 0 (0.0) | 0 (0.0) | 0 (0.0) | 81.8 (74.4) | 9.1 (8.2) | 9.1 (8.2)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9.1 (8.2) | 0 (0.0) | 0 (0.0) | 0 (0.0) | 0 (0.0) | |
| 여자 | 전체 | 16 (100.0) | 12 (75.0) | 6 (37.5) | 51 (31.9) | 32 (20.0) | 35 (21.9) | 20 (12.5) | 27 (16.9) | 33 (20.6) | 11 (6.9) | 11 (6.9) | 32 (20.0) | 18 (11.3) | 3 (1.9) | 9 (5.6) | 40 (25.0) | 0 (0.0) | 24 (15.0) | 28 (17.5) | 2 (1.2) | 0 (0.0) |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임사를 통해 | 27 (100.0) | 0 (0.0) | 3.7 (13.7) | 7.4 (27.4) | 3.7 (13.7) | 14.8 (54.8) | 7.4 (27.4) | 14.8 (54.8) | 7.4 (27.4)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8.5 (68.5) | 0 (0.0) | 14.8 (54.8) | 3.7 (13.7) | 0 (0.0) | 0 (0.0) | |
| | 회사, 교수, 스승을 통해 | 11 (100.0) | 0 (0.0) | 9.1 (82.7) | 0 (0.0) | 0 (0.0) | 9.1 (82.7)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36.4 (331.3) | 0 (0.0) | 18.2 (165.5) | 9.1 (82.7) | 0 (0.0) | 0 (0.0) | |

| |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 장리 해고로 인해 | 권고 사직 | 계약 기간 끝나서 | 소속 또는 보수가 적어서 |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 일이 임의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 | 적성, 지식, 시간 또는 근무 환경이 맞지 않아서 | 근무 시간 또는 근무 환경이 나빠서 | 자기(직) 사업을 하려고 | 결혼, 이직, 육아, 등 가사 문제로 |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회사 내 인사 관계 때문에 | 회사 내 회사가 이사 하여 | 우리집 이 이사 때문에 | 확업 | 근임대 때문에 | 좀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기타 | 무응답 |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120 (100.0) | 5.0 | 3.3 | 2.5 | 6.7 | 7.5 | 9.2 | 5.0 | 5.8 | 11.7 | 3.3 | 11.7 | 2.5 | 0.8 | 2.5 | 6.7 | 0.0 | 6.7 | 7.5 | 0.0 | |
| 공공기관이나 소를 통해 | 19 (100.0) | 0.0 | 0.0 | 0.0 | 47.4 | 10.5 | 10.5 | 5.3 | 10.5 | 0.0 | 5.3 | 0.0 | 0.0 | 0.0 | 5.3 | 0.0 | 0.0 | 0.0 | 0.0 | 5.3 | |
| 사설직업안나소를 통해 | 12 (100.0) | 0.0 | 0.0 | 0.0 | 0.0 | 0.0 | 25.0 | 0.0 | 0.0 | 8.3 | 8.3 | 33.3 | 0.0 | 0.0 | 0.0 | 0.0 | 0.0 | 0.0 | 8.3 | 16.7 | 0.0 |
| 신문, TV, 보도 등의 광고를 통해 | 104 (100.0) | 6.7 | 2.9 | 2.9 | 3.8 | 12.5 | 4.8 | 1.0 | 10.6 | 12.5 | 2.9 | 4.8 | 9.6 | 1.9 | 1.9 | 7.7 | 0.0 | 3.8 | 4.8 | 0.0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19 (100.0) | 5.3 | 0.0 | 0.0 | 26.3 | 5.3 | 15.8 | 5.3 | 15.8 | 0.0 | 10.5 | 0.0 | 0.0 | 0.0 | 0.0 | 5.3 | 0.0 | 0.0 | 0.0 | 0.0 | |
| 가축을 통해 | 3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33.3 | 0.0 | 0.0 | 0.0 | 0.0 | 0.0 | 0.0 | 66.7 | 0.0 |
| 인터넷 등 전신망을 통해 | 52 (100.0) | 3.8 | 3.8 | 0.0 | 13.5 | 9.6 | 1.9 | 13.5 | 3.8 | 1.9 | 0.0 | 3.8 | 3.8 | 0.0 | 0.0 | 21.2 | 0.0 | 5.8 | 9.6 | 1.9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4 (100.0) | 0.0 | 0.0 | 0.0 | 21.4 | 0.0 | 28.6 | 0.0 | 0.0 | 0.0 | 7.1 | 0.0 | 7.1 | 0.0 | 7.1 | 21.4 | 0.0 | 0.0 | 7.1 | 0.0 | |
|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10 (100.0) | 0.0 | 10.0 | 0.0 | 0.0 | 0.0 | 40.0 | 0.0 | 0.0 | 0.0 | 0.0 | 20.0 | 10.0 | 0.0 | 0.0 | 0.0 | 0.0 | 20.0 | 0.0 | 0.0 | |
| 기타 | 19 (100.0) | 0.0 | 0.0 | 0.0 | 68.4 | 0.0 | 5.3 | 0.0 | 0.0 | 10.5 | 0.0 | 5.3 | 0.0 | 0.0 | 0.0 | 0.0 | 0.0 | 0.0 | 10.5 | 0.0 | |

〈부표 14〉 자발적 퇴직 여부

단위: 주기(spell, %), %

| | | 전체 | 비자발 | 자발 |
|--------------------------------|--------------------------------|----------------|----------------|---------------|
| 전체 | | 840 (100.0) | 264 (31.4) | 576 (68.6) |
| 남 자 | 전체 | 430 (100.0) | 135 (31.4) | 295 (68.6)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32 (100.0) | 18.8 | 81.3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14 (100.0) | 42.9 | 57.1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138 (100.0) | 39.1 | 60.9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16 (100.0) | 56.3 | 43.8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8 (100.0) | 37.5 | 62.5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83 (100.0) | 22.9 | 77.1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22 (100.0) | 45.5 | 54.5 |
| | 가족을 통해 | 4 (100.0) | 75.0 | 25.0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61 (100.0) | 9.8 | 90.2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21 (100.0) | 23.8 | 76.2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0 (100.0) | 35.0 | 65.0 |
| | 기타 | 11 (100.0) | 63.6 | 36.4 |
| | 여 자 | 전체 | 410 (100.0) | 129 (31.5)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 27 (100.0) | 11.1 | 88.9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 11 (100.0) | 9.1 | 90.9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 120 (100.0) | 32.5 | 67.5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 19 (100.0) | 63.2 | 36.8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 12 (100.0) | 16.7 | 83.3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 104 (100.0) | 20.2 | 79.8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19 (100.0) | 52.6 | 47.4 |
| 가족을 통해 | | 3 (100.0) | 0.0 | 100.0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 52 (100.0) | 26.9 | 73.1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 14 (100.0) | 50.0 | 50.0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 10 (100.0) | 60.0 | 40.0 |
| 기타 | | 19 (100.0) | 73.7 | 26.3 |

〈부표 15〉 근속기간

단위: 주기(spell, %), 월

| | | 전체 | 근속기간 | |
|--------------------------------|--------------------------------|----------------------|-------------|------|
| 전체 | | 2,132 | 18.4 | |
| 남 자 | 전체 | 1,147 (100.0) | 19.6 |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4 (7.3) | 18.8 |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3.1) | 20.5 |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38 (29.5) | 14.0 |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2.8) | 22.4 |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2.3) | 17.1 |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29 (20.0) | 28.9 |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2 (4.5) | 32.8 | |
| | 가족을 통해 | 18 (1.6) | 66.0 |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216 (18.8) | 13.2 |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 | 49 (4.3) | 16.9 |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 통해 | 50 (4.4) | 15.5 | |
| | 기타 | 18 (1.6) | 18.6 | |
| | 여 자 | 전체 | 985 (100.0) | 17.0 |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6 (6.7) | 17.3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 32 (3.2) | 15.8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 237 (24.1) | 12.9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 25 (2.5) | 3.5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 31 (3.1) | 16.8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 236 (24.0) | 20.4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59 (6.0) | 24.4 | |
| 가족을 통해 | | 13 (1.3) | 46.1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 187 (19.0) | 11.5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 | | 49 (5.0) | 35.6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 통해 | | 26 (2.6) | 22.5 | |
| 기타 | | 24 (2.4) | 2.9 | |

〈부표 16〉 고용 형태

단위: 주기(spell, %), %

| | | 전체 | 정규직 | 비정규직 |
|--------------------------------|--------------------------------|------------------|-----------------|---------------|
| 전체 | | 1,844 (100.0) | 1,035 (56.1) | 809 (43.9) |
| 남 자 | 전체 | 999 (100.0) | 591 (59.2) | 408 (40.8)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4 (100.0) | 60.9 | 39.1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100.0) | 74.3 | 25.7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86 (100.0) | 45.5 | 54.5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22 (100.0) | 36.4 | 63.6 |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22 (100.0) | 50.0 | 50.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07 (100.0) | 58.9 | 41.1 |
| | 알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38 (100.0) | 42.1 | 57.9 |
| | 가족을 통해 | 18 (100.0) | 77.8 | 22.2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204 (100.0) | 74.0 | 26.0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5 (100.0) | 77.8 | 22.2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46 (100.0) | 71.7 | 28.3 |
| | 기타 | 12 (100.0) | 50.0 | 50.0 |
| | 여 자 | 전체 | 845 (100.0) | 444 (52.5)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 52 (100.0) | 73.1 | 26.9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 32 (100.0) | 81.3 | 18.8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 210 (100.0) | 52.4 | 47.6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 19 (100.0) | 21.1 | 78.9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 29 (100.0) | 65.5 | 34.5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 188 (100.0) | 50.5 | 49.5 |
| 알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39 (100.0) | 15.4 | 84.6 |
| 가족을 통해 | | 12 (100.0) | 91.7 | 8.3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 176 (100.0) | 59.7 | 40.3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 49 (100.0) | 34.7 | 65.3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 25 (100.0) | 52.0 | 48.0 |
| 기타 | | 14 (100.0) | 0.0 | 100.0 |

〈부표 17〉 근로형태

단위: 주기(spell, %), %

| | | 전체 | 시간제 | 전일제 |
|--------|--------------------------------|------------------|---------------|-----------------|
| 전체 | | 2,129 (100.0) | 299 (14.0) | 1,830 (86.0) |
| 남 자 | 전체 | 1,144 (100.0) | 130 (11.4) | 1,014 (88.6)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4 (100.0) | 6.0 | 94.0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2 (100.0) | 6.3 | 93.8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38 (100.0) | 10.7 | 89.3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100.0) | 0.0 | 100.0 |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100.0) | 0.0 | 100.0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29 (100.0) | 17.9 | 82.1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2 (100.0) | 28.8 | 71.2 |
| | 가족을 통해 | 18 (100.0) | 5.6 | 94.4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216 (100.0) | 10.6 | 89.4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100.0) | 6.1 | 93.9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50 (100.0) | 8.0 | 92.0 |
| | 기타 | 18 (100.0) | 0.0 | 100.0 |
| 여 자 | 전체 | 985 (100.0) | 169 (17.2) | 816 (82.8)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66 (100.0) | 9.1 | 90.9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2 (100.0) | 3.1 | 96.9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237 (100.0) | 12.7 | 87.3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25 (100.0) | 8.0 | 92.0 |
| | 사실직업안내소를 통해 | 31 (100.0) | 25.8 | 74.2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36 (100.0) | 21.6 | 78.4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9 (100.0) | 25.4 | 74.6 |
| | 가족을 통해 | 13 (100.0) | 7.7 | 92.3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187 (100.0) | 18.2 | 81.8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100.0) | 32.7 | 67.3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26 (100.0) | 11.5 | 88.5 |
| | 기타 | 24 (100.0) | 8.3 | 91.7 |

〈부표 18〉 종사상 지위

단위: 주기(spell, %), %

| | | 전체 | 상용 | 임시 | 일용 |
|--------------------------------|--------------------------------|------------------|-----------------|---------------|---------------|
| 전체 | | 2,132 (100.0) | 1,235 (57.9) | 619 (29.0) | 278 (13.0) |
| 남 자 | 전체 | 1,147 (100.0) | 677 (59.0) | 315 (27.5) | 155 (13.5)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84 (100.0) | 75.0 | 21.4 | 3.6 |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35 (100.0) | 74.3 | 20.0 | 5.7 |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38 (100.0) | 49.1 | 31.1 | 19.8 |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32 (100.0) | 37.5 | 46.9 | 15.6 |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26 (100.0) | 50.0 | 19.2 | 30.8 |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229 (100.0) | 53.7 | 37.1 | 9.2 |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52 (100.0) | 34.6 | 34.6 | 30.8 |
| | 가족을 통해 | 18 (100.0) | 83.3 | 5.6 | 11.1 |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216 (100.0) | 77.3 | 19.9 | 2.8 |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49 (100.0) | 79.6 | 8.2 | 12.2 |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 통해 | 50 (100.0) | 54.0 | 10.0 | 36.0 |
| | 기타 | 18 (100.0) | 44.4 | 50.0 | 5.6 |
| | 여 자 | 전체 | 985 (100.0) | 558 (56.6) | 304 (30.9)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 | 66 (100.0) | 74.2 | 21.2 | 4.5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 32 (100.0) | 84.4 | 12.5 | 3.1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 237 (100.0) | 58.2 | 26.2 | 15.6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 25 (100.0) | 36.0 | 44.0 | 20.0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 31 (100.0) | 48.4 | 29.0 | 22.6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 236 (100.0) | 62.3 | 28.4 | 9.3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 59 (100.0) | 32.2 | 22.0 | 45.8 |
| 가족을 통해 | | 13 (100.0) | 92.3 | 7.7 | 0.0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 187 (100.0) | 62.0 | 32.1 | 5.9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 49 (100.0) | 22.4 | 73.5 | 4.1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 통해 | | 26 (100.0) | 53.8 | 42.3 | 3.8 |
| 기타 | | 24 (100.0) | 4.2 | 66.7 | 29.2 |

| | 전체 | 1~4 명 | 5~9명 | 10~29 명 | 30~49 명 | 50~69 명 | 70~99 명 | 100~29 9 명 | 300~49 9 명 | 500~99 9 명 | 1000명 이상 | 잘 모르겠다 |
|-----------------------------|------------|-------|------|---------|---------|---------|---------|------------|------------|------------|----------|--------|
|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일선을 통해 | 35 (100.0) | 0.0 | 20.0 | 5.7 | 8.6 | 5.7 | 2.9 | 8.6 | 5.7 | 0.0 | 20.0 | 22.9 |
|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 16 (100.0) | 0.0 | 18.8 | 37.5 | 0.0 | 0.0 | 0.0 | 0.0 | 6.3 | 0.0 | 0.0 | 37.5 |
| 친구, 친지들을 통해 | 57 (100.0) | 0.0 | 5.3 | 17.5 | 1.8 | 5.3 | 10.5 | 7.0 | 1.8 | 7.0 | 14.0 | 29.8 |
|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 10 (100.0) | 0.0 | 10.0 | 20.0 | 10.0 | 40.0 | 0.0 | 0.0 | 0.0 | 10.0 | 0.0 | 10.0 |
|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 12 (100.0) | 0.0 | 8.3 | 0.0 | 33.3 | 0.0 | 0.0 | 25.0 | 0.0 | 0.0 | 33.3 | 0.0 |
|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41 (100.0) | 2.4 | 4.9 | 4.9 | 12.2 | 14.6 | 2.4 | 7.3 | 0.0 | 12.2 | 14.6 | 24.4 |
|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31 (100.0) | 3.2 | 51.6 | 0.0 | 0.0 | 0.0 | 3.2 | 0.0 | 0.0 | 0.0 | 16.1 | 25.8 |
| 가족을 통해 | 9 (100.0) | 0.0 | 0.0 | 0.0 | 0.0 | 11.1 | 0.0 | 0.0 | 77.8 | 0.0 | 0.0 | 11.1 |
|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 58 (100.0) | 0.0 | 0.0 | 5.2 | 17.2 | 5.2 | 1.7 | 6.9 | 10.3 | 1.7 | 31.0 | 20.7 |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 | 18 (100.0) | 0.0 | 22.2 | 0.0 | 0.0 | 0.0 | 0.0 | 16.7 | 0.0 | 5.6 | 5.6 | 50.0 |
| 전 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 통해 | 10 (100.0) | 10.0 | 0.0 | 60.0 | 0.0 | 0.0 | 0.0 | 10.0 | 0.0 | 0.0 | 0.0 | 20.0 |
| 기타 | 3 (100.0) | 33.3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66.7 |